



정답과 해설

중학교

국어 1-2

박현숙 외

갈래 익히기

소설

006~007쪽

- 1 (1) X (2) O (3) O 2 ⑤ 3 (1) 반동 (2) 개성적
(3) 성격 4 ② 5 (1) 내적 (2) 사회 (3) 경험
6 ④

1 (1) 소설의 3요소는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인 '주제', 이야기를 짜임새 있게 배열하는 '구성', 작가의 개성적이고 독특한 문장 표현인 '문체'이다.

(2) 주제는 작품을 통해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으로, 작품 속에 구현된 중심 의미와 연관된다.

(3) 배경은 인물들이 활동하고 사건이 벌어지는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의미한다.

2 소설의 결말 부분에서는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사건이 마무리된다.

오답 풀이 ①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단계는 절정이다.

② 인물과 배경이 소개되는 단계는 발단이다.

③ 인물 간의 갈등이 시작되는 단계는 전개이다.

④ 갈등과 긴장감이 점차 심화되는 단계는 위기이다.

3 (1) 반동 인물은 주인공(주동 인물)과 대립적인 위치에서 갈등을 일으킨다.

(2) 개성적 인물은 어떤 부류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이나 성격을 보이는 인물을 의미한다.

(3) 인물의 성격 변화에 따라 성격이 일관적인 평면적 인물과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성격이 변하는 입체적 인물로 나눌 수 있다.

4 버스 타는 돈을 아끼기 위해 버스 두 정거장 거리를 걸어가는 모습에서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알뜰한 성격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인물의 행동을 통해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을 간접 제시라고 한다.

5 (1) 한 인물의 마음속에서 서로 반대되는 마음이 충돌하며 일어나는 갈등을 내적 갈등이라고 한다.

(2) 인물과 사회의 갈등은 인물이 그가 속한 사회의 관습이나 제도 등으로 인해 겪는 갈등을 의미한다.

(3) 소설 속 인물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자신의 경험과 연결 지어 자신이라면 어떻게 행동할지 떠올려 보면서 소설을 읽으면, 자신의 삶의 태도를 성찰할 수 있다.

6 소설에서 소재는 인물 간의 갈등을 일으키거나 해결하고, 인물의 심리나 처지,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대의 사회상을 드러내며,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인물의 성격과 행동이 사실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아니다.

시

008쪽

- 1 (1) O (2) O (3) X 2 (1) 운율 (2) 외재율 (3) 심상
3 ③

1 (1) 운율은 시의 음악적 요소로, 시를 읽을 때 리듬감을 느끼게 한다.

(2) 연은 시의 형식 요소 중 하나로, 시의 여러 행을 한 단위로 묶어서 이르는 말이다.

(3) 시어는 시에 사용되는 언어로, 단어의 사전적 의미 외에 시인이 전달하려는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따라서 시를 읽을 때에는 시어에 담긴 함축적 의미를 이해하면서 읽어야 한다.

2 (1) 시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정서나 생각 또는 느낌을 운율이 있는 말로 압축하여 표현한 글이다.

(2) 시조나 민요 등의 정형시에서는 주로 겹으로 규칙적인 리듬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운율인 외재율이 나타난다.

(3) 심상은 시의 회화적 요소로, 시를 읽을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각적인 이미지를 의미한다.

3 시를 감상할 때에는 시의 함축적 의미와 정서, 분위기를 파악하여 말하는 이의 태도를 이해하고, 운율을 느끼면서 읽어야 한다. 인물 간의 갈등 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소설을 읽을 때 적절한 방법이다.

수필

009쪽

- 1 ③ 2 (1) X (2) O (3) O 3 경수필, 중수필

1 수필은 글쓰기가 일상에서 경험한 일을 소재로 한다. 허구적인 사건을 상상하여 꾸며 쓴 글은 소설이다.

2 (1) 객관적인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글은 설명하는 글이다. 수필은 글쓰이의 경험과 생각, 느낌을 자유롭게 전달하는 글이다.

(2) 수필은 글쓰이의 경험이 담긴 글로, 수필을 쓸 때에는 자신의 경험을 구체적이고 진솔하게 드러내야 한다.

(3) 수필을 감상할 때에는 글쓰이가 사용한 개성적이고 독특한 표현과 문체를 살피면서, 글쓰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감동과 깨달음을 느끼며 읽어야 한다.

3 수필은 경수필과 중수필로 나눌 수 있다. 경수필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일들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가볍게 쓴 글인 반면, 중수필은 사회적인 문제나 시사적인 관심거리에 대한 생각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쓴 글이다.

시나리오

010쪽

1 ③ 2 (1) O (2) O (3) X 3 ④

1 시나리오는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 작가가 상상하여 꾸며 쓴 대본이다. 따라서 글쓴이의 경험과 생각이 솔직하게 표현된다고 보기 어렵다.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솔직하게 쓴 글은 수필이다.

2 (1) 시나리오의 구성 요소 중 대사는 등장인물이 하는 말로, 시나리오에서는 대화와 행동을 통해 인물의 성격이 제시되고 사건이 전개된다.

(2) 시나리오에서 장면 표시는 장면의 순서나 위치 등을 나타내는 번호로, S#(Scene Number)로 표시한다.

(3) 시나리오에서 인물의 행동, 동작, 표정, 음향 효과, 카메라의 위치 등을 지시하는 부분은 지시문이다. 해설은 시나리오의 첫머리에서 등장인물, 장소, 시간 등을 설명하는 부분을 말한다.

3 시나리오의 구성 단계 중,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사건의 반전이 일어나기도 하는 단계는 하강이다.

오답 풀이 ① 발단에서는 인물과 배경이 소개되고, 갈등의 실마리가 제시된다.

② 전개에서는 갈등과 대립이 깊어지면서 사건이 발전된다.

③ 절정에서는 인물 간의 갈등과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다.

⑤ 대단원에서는 사건이 마무리되고, 갈등이 해소된다.

희곡

011쪽

1 ⑤ 2 (1) 연극 (2) 대사, 행동 (3) 현재화 3 ④

1 희곡의 구성 요소 중, 대화 사이에 짤막하게 넣어 인물의 동작, 표정, 말투 등을 지시하고 설명하는 글을 지시문이라고 한다.

오답 풀이 ① 독백은 대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물이 상대 없이 혼자 하는 말이다.

② 방백은 대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객에게는 들리나 무대 위의 다른 등장인물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으로 약속하고 하는 말이다.

③ 대화는 대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등장인물끼리 주고받는 말이다.

④ 해설은 희곡의 첫머리에서 막이 오르기 전후에 필요한 무대 장치, 인물, 배경 등을 설명하는 글이다.

2 (1) 희곡은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공연하는 것을 목적으로 쓴 연극의 대본이다.

(2) 희곡은 등장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 사건이 전개되는 대화와 행동의 문학이다.

(3) 희곡은 모든 사건을 마치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현재화하여 보여 주는 현재 진행형의 문학이다.

3 희곡은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⑤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이다.

설명하는 글

012쪽

1 (1) 정보 (2) 끝 (3) 의견, 사실 2 (1) 인과 (2) 열거 (3) 정의 3 ①

1 (1) 설명하는 글은 독자에게 어떤 대상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글이다.

(2) 설명하는 글의 '끝' 부분에서는 중간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앞으로의 과제 및 독자에 대한 당부 등을 제시한다.

(3) 설명하는 글은 글쓴이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느낌은 배제하고 사실 위주로 설명하여 대상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2 (1) 인과를 사용하여, 스마트폰이 고장 났다는 원인과 새로운 스마트폰으로 바꾸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2) 열거를 사용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의 종류를 낱말이 죽 늘어놓아 설명하고 있다.

(3) 정의를 사용하여, 사랑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밝히고 있다.

3 설명하는 글을 읽을 때, 글에 제시된 정보뿐만 아니라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글에 드러나지 않은 의도나 관점을 추론하며 읽으면 글의 내용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주장하는 글

013쪽

1 (1) O (2) X (3) X 2 (1) 서론 (2) 근거 3 ④

1 (1) 주장하는 글은 글쓴이의 주장이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여 독자를 설득할 목적으로 쓴 글이다.

(2) 주장하는 글은 '서론-본론-결론'의 구성에 따라 짜임새 있게 내용이 전개된다.

(3) 주장하는 글은 글쓴이의 주장이나 의견을 바탕으로 독자를 설득하기 위한 글이므로, 글쓴이의 주장이 명확하게 나타나야 한다.

2 (1) 주장하는 글의 '서론' 부분에서는 글에서 다룰 문제와 글을 쓴 동기 및 목적을 제시하면서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한다.

(2) 주장하는 글을 쓸 때에는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타당하고 이치에 맞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3 주장하는 글을 쓸 때에는 주장을 명료하게 드러내고 글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주관적인 표현, 모호한 표현, 단정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대화를 나누면 문제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3 상대방을 존중하며 말할 때에는 부정적인 표현보다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매체

014쪽

- 1** (1) 매체 (2) 인쇄 (3) 뉴 미디어 **2** (1) X (2) O (3) X
3 ⑤

1 (1) 매체는 어떤 정보를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수단이자 인간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미디어(media)라고도 부른다.
(2) 신문, 책 등의 인쇄 매체는 문자와 사진 등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한다.
(3) 뉴 미디어는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전달 매체로 스마트폰, 인터넷, 누리 소통망(SNS) 등이 이에 속한다.

2 (1) 한 사람이 매체 자료의 기획부터 진행, 촬영, 편집까지 직접 해서 인터넷으로 공유하는 방송은 개인 인터넷 방송이다. 대중매체는 신문사, 방송국 등 전문 조직에서 제작한다.
(2) 개인 인터넷 방송은 매체 자료의 생산자와 수용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
(3) 매체 자료는 잘못된 정보나 한쪽으로 치우친 관점을 전달하여 혼란을 주고,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내용을 담기도 한다. 따라서 매체 자료의 내용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매체 자료의 생산자가 전하려는 의도를 파악하여 정보의 타당성과 신뢰성 등을 따져 보며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3 매체는 잘못된 정보나 한쪽으로 치우친 관점을 전달하여 혼란을 줄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지닌다.

대화

015쪽

- 1** (1) 협력 (2) 공손성 **2** (1) O (2) X (3) O **3** ③

1 (1) 대화는 듣는 이와 말하는 이가 서로 주고받으며 협력적으로 의미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2) 대화의 원리 중, 공손성의 원리는 대화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예절 바르게 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1) 대화할 때 말하는 이는 말하는 상황, 듣는 이의 지식수준과 감정, 태도 등을 고려하여 말해야 한다.
(2) 대화를 할 때, 듣는 이는 상대방(말하는 이)의 반응을 살피며 적절하게 호응하면서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

1 마음을 비추는 글

01 문학과 성장

소단원 한눈에 보기

020~023쪽

- 1 성장 2 (1) X (2) O 3 ㉠-㉡-㉢-㉣-㉤-㉥
4 (1) 수동적 (2) 한성 설비 (3) 엄마 5 (1) X (2) O
6 ㉡ 7 ㉢ 8 (1) 한아 (2) 유리컵 9 화장실 전
등불, 세면대 10 (1) O (2) X (3) O 11 ㉣
12 (1) 나무, 사람(인간) (2) 자연 (3) 기대다

1 성장 소설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주인공이 다양한 갈등과 위기를 겪고, 이를 극복하며 성장하는 과정을 담은 소설이다. 주로 인물이 겪는 어려움과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물 내면의 심리적, 도덕적 변화를 이야기한다.

2 (1) 독자는 성장을 다룬 소설을 읽으며 다양한 삶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다.

(2) 성장을 다룬 소설을 읽을 때에는 작품 속 인물이 어려움을 이겨 내며 깨달은 바가 무엇인지 이해하며 읽어야 한다.

3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화장실 전등불이 나가고 세면대 배수구가 막히자(㉠) '나'는 조언을 얻기 위해 만년 철물점 주인 할머니를 찾아간다(㉡). 할머니의 조언대로 '나'는 관리 사무소에 찾아갔지만, 집에 어른이 없다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는 엄마의 당부가 생각나 그냥 돌아오고(㉢), 만삭의 몸으로 혼자 지내는 외숙모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다(㉣). 결국 '나'는 동영상을 찾아보며 막힌 세면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자전거 가게에서 멍키 스페너를 빌려 막힌 세면대를 직접 고친다(㉥).

4 (1) 화장실 전등불이 나가자 '나'는 화장실 문을 열고 불일을 보면서 엄마가 돌아와서 고쳐 주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태도를 보인다.

(2) 만년 철물점 주인 할머니는 한성 설비에 가면 막힌 세면대를 고칠 수 있다고 했지만, '나'는 수리비 외에 기본 출장비가 5만원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한성 설비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포기하였다.

(3) '나'는 관리 사무소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으나, 집에 어른이 없다는 사실을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던 엄마의 당부가 생각나 나중에 엄마와 같이 오겠다고 말하고 관리 사무소를 나왔다.

5 (1) '나'는 동생 한아, 만년 철물점 주인 할머니, 자전거 가게 사장님 등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불이 나간 화장실 전등불과 막힌 세면대를 고칠 수 있었다.

(2) 이 소설은 성장 소설로, '나'가 세면대를 고친 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지니게 되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6 외숙모 집에 다녀온 날 저녁, '나'는 동생 한아의 근심 가득한 눈동자를 보고 세면대를 스스로 고쳐 보기로 결심하였다.

7 '나'는 처음에는 만년 철물점이라는 가게 이름을 보고 천년만년 철물점을 하겠다는 굳센 의지로 장사를 하나 싶어 주인 할머니를 부담스럽게 여겼으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인 할머니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나'가 만년 철물점 주인 할머니를 예전부터 존경해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8 (1) '나'는 처음에는 한아를 흑처럼 여겼지만, 세면대를 고칠 때 '나'의 옆에서 냄새를 참아 가며 의리를 지키는 한아를 보고 대견함을 느꼈다.

(2) 이 소설에서 '유리컵'은 동생 한아에 대한 '나'와 엄마의 인식 차이를 드러내는 소재로, 엄마는 한아를 아기 취급하여 유리컵을 쓰지 못하도록 하지만, 세면대를 고치는 경험을 통해 한아에 대한 인식이 바뀐 '나'는 주스를 유리컵에 따라서 한아에게 주었다.

9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나'와 한아는 화장실 전등불이 나가고 세면대가 막히는 문제 상황에 직면하지만,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성장하게 된다.

10 (1) 「멍키 스페너」는 '나'가 자전거 가게 사장님에게 멍키 스페너를 빌리는 '현재'에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동영상을 찾아보는 '과거'로, 또는 '나'가 엄마에게 사고 싶은 물건을 사도 되는지 허락을 구하는 '현재'에서 철물점에서 손잡이가 초록색인 스페너를 발견한 '과거'로 시간이 거슬러 가는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2) 「멍키 스페너」에서 '나'는 자전거 가게 사장님에게 빌린 멍키 스페너를 사용하여 막힌 세면대를 고쳤다. 그 후 '나'는 멍키 스페너가 자신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준다고 느끼고, 멍키 스페너를 갖고 싶어서 엄마에게 사도 되는지 허락을 구했다.

(3) 「멍키 스페너」에서 '나'는 금요일 밤에 동영상을 찾아보며 막힌 세면대를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다음 날 아침 자전거 가게에 가서 동영상에 나온 도구인 멍키 스페너를 빌렸다.

11 「비스듬히」에서 말하는 이의 초점은 1연의 '공기에 기대고 서 있는 나무'에서 2~3연의 '인간의 삶'으로 옮겨 가고 있다. 이를 통해 말하는 이는 자연에서 얻은 깨달음을 인간의 삶에 적용하여, 서로가 서로를 받쳐 주며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12 (1) 「비스듬히」에서는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나무가 공기에 기대고 서 있듯이 사람(인간)들도 서로서로 기대어 살아간다는 점에 주목하여 나무와 사람(인간)을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2) 「비스듬히」에서 말하는 이는 나무와 같은 자연에서 얻은 깨달음을 인간의 삶으로 확장하여, 서로가 서로를 비스듬히 받쳐 주며 험난한 세상을 함께 살아가자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3) 「기대다」는 '남의 힘에 의지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 말로, 「비스듬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시어로 사용되었다.

- 1 ③ 2 ④ 3 혹 4 (1) O (2) X 5 ⑤
 6 '나'와 한아가 세면대에서 긴 머리를 감고 행구는 동안 배수구 구멍으로 빠져나간 머리카락들 때문이다. 7 ③ 8 ④
 9 ① 10 ③ 11 ② 12 '나'는 만삭인 외숙모도 혼자 힘들게 버티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외숙모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다. 13 ① 14 어젯밤
 15 코딱지만 한 게 그래도 의리가 있다. 16 ③
 17 명키 스페너 18 ⑤ 19 ① 20 ⑤

1 '나'는 화장실 전등불이 나갔기 때문에 화장실 문을 반쯤 열어 두고 불일을 본다고 하였다. 따라서 '나'가 평소에도 화장실 문을 열어 두고 불일을 보는지는 알 수 없다.

2 발단 ①에서 '나'는 엄마가 일주일 동안 집을 비우게 되자, 엄마 없이 마음대로 지낼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감을 느끼고 있다.

3 발단 ②에서 '나'는 '요구리에 혹이 하나 붙어 있기는 했다.'라고 하였다. 이때 '혹'은 짐스러운 물건이나 일 등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동생 한아를 가리키며 엄마가 없는 동안 동생을 돌보아야 하는 것을 귀찮게 여기는 '나'의 태도를 드러낸다.

4 (1) 발단 ④에서 한아가 세면대의 물이 안 내려간다고 말하자, '나'는 한아가 손을 씻다가 자기도 모르게 마개를 눌러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2) 엄마가 집에 오려면 아직 4일이나 남았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나'는 고장 난 화장실 전등불과 세면대 문제를 자신이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엄마가 돌아와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나'는 스스로를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이도 저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동생 한아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식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그래서 '나'는 엄마가 한아의 머리를 자르지 못하도록 하고, 아침마다 한아의 긴머리를 꾸며 주는 것이다.

6 전개 ③에서 '나'는 '나'와 한아가 긴 머리를 세면대에 거꾸로 쏟아 넣어 감고 행구는 동안 배수구 구멍으로 빠져나간 머리카락들 때문에 세면대가 막힌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나'는 세면대가 막힌 까닭을 '나'와 한아의 머리카락 때문이라고 생각했음을 서술하였다.	☐
내용을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7 '나'는 '만년 철물점'이라는 가게 이름을 보고, 천년만년 철물점을 하겠다는 주인 할머니의 굳센 의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여 부담스럽게 여겼다.

8 '나'는 머리카락 때문에 세면대의 물이 막힌 것이라고 짐작했으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밥을 한 그릇 더 먹어 보기로 한다. 이를 통해 '나'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성격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9 '나'는 수리비 외에 한성 설비 사장님의 기본 출장비가 5만 원이라는 만년 철물점 할머니의 말을 듣고, 자신의 형편에 비해 수리비가 너무 비싸서 한성 설비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포기하였다.

10 관리 사무소에 가서 말을 잘하면 세면대를 봐 줄지도 모른다는 만년 철물점 주인 할머니의 말에, '나'는 관리 사무소에 부탁하여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막힌 세면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된다.

11 위기 ①에서 '나'는 막힌 세면대를 뚫기 위해 관리 사무소에 찾아가 세면대가 막혔다고 사실대로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나'가 엄마에게 빨리 돌아오라고 전화를 걸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③ 외삼촌은 엄마와 함께 광주로 떠난 상황이며, '나'가 외삼촌에게 막힌 세면대를 뚫는 방법을 배웠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④ '나'는 만삭의 몸으로 혼자 지내는 외숙모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 집에 별일 없냐는 외숙모의 물음에 아무 일도 없다고 답하였다.

⑤ '나'는 관리 사무소 아저씨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였으나, 집에 어른이 없다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했던 엄마의 당부가 생각나 엄마와 같이 오겠다고 말하고 관리 사무소를 나왔다.

12 만삭인 외숙모는 외삼촌 없이 혼자 힘들게 지내고 있는 상황이다. '나'는 이러한 외숙모를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쳐다보는 한아에게 고개를 내저으며 외숙모에게 화장실 전등불과 세면대 문제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고개를 내저는 '나'의 행동에 담긴 의미와 '나'가 그렇게 행동한 까닭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
내용을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13 절정 ②에서 '나'는 한아에게 자신이 직접 막힌 세면대를 고칠 것이라고 말하며, 보란 듯이 양치질을 바닥에 뱉었다. 이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나'의 자신감을 보여 주어 한아의 걱정을 덜어 주기 위한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14 '어젯밤 양치질을 하는데 한아가 칫솔을 입에 문 채 세면대를 계속 힐끔거렸다.'라는 문장을 기점으로, '나'가 명키 스페너를 빌리러 자전거 가게에 간 토요일 아침(현재)에서 막힌 세면대를 스스로 고치기로 결심한 금요일 밤(과거)으로 시간이 전환되고 있다.

15 세면대 배수관을 뚫을 때, 한아는 냄새를 참아 가며 '나'의 옆에서 도움을 주려고 한다. '나'는 이러한 한아의 모습을 보고, 마냥 어린아이인 줄만 알았던 동생이 의리가 있다고 느끼며 한아를 대견하게 여기게 되었다.

16 “별것도 아니네.”라는 ‘나’의 말에는 해내지 못할 것 같았던 일을 어렵게 성공한 후에 느끼는 성취감, 안도감, 자신감, 뿌듯함, 자랑스러움 등의 복합적인 감정이 드러난다. 따라서 ‘나’가 자신의 노력이 헛되었다는 생각에 허탈감을 느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7 결말 ㉒에서 ‘나’는 멍키 스패너를 쥐면 손아귀의 힘이 몇 배로 커지면서 고장 난 것들을 스스로 척척 고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다. 즉 ‘나’에게 멍키 스패너는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준 존재이다.

18 ‘나’는 만년 철물점 주인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면서 할머니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이를 통해 ‘나’는 만년 철물점 주인 할머니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소중한 이웃임을 깨닫고, 할머니가 오랫동안 철물점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나’가 막힌 세면대를 고치는 경험을 통해 철물점에서 파는 물건에 흥미가 생겼다는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19 ‘나’는 잠이 든 한아의 옆에 누워서 전구를 사러 철물점에 갔을 때 손잡이가 초록색인 스패너를 봤던 일을 회상하였다.

오답 풀이 ㉒ ‘나’는 철물점에서 초록색 손잡이의 스패너를 만지작대다가 도로 걸어 두었다.

㉓ 엄마가 집에 돌아오기 전에 ‘나’와 한아가 대청소를 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㉔ 이를 후에 엄마가 돌아온다는 사실에 ‘나’가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㉕ ‘나’는 드라이버와 펜치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구를 사기 위해 철물점에 간 것이다.

20 ㉑에서 ‘나’는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스스로에 대해 뿌듯함과 자랑스러움을 느끼며 웃고 있다.

활동 응용 문제

048~053쪽

- 1** ④ **2** 세면대를 수리하려면 엄마가 없는 집에 관리 사무소 아저씨가 들어와야 하기 때문이다. **3** ⑤ **4** ④
5 (1) 배수관, 머리카락 (2) 멍키 스패너 **6** ① **7** ④
8 ④ **9** ② **10** ② **11** ③

1 ‘나’는 막힌 세면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 만년 철물점 주인 할머니를 찾아간다. 할머니는 한성 설비에 가면 세면대를 뚫을 수 있다고 알려 주었으나(㉑), ‘나’는 수리비에 출장비까지 너무 큰 돈이 들 것 같아서 한성 설비에 가는 것을 포기한다. 그리고 만년 철물점 주인 할머니의 조언에 따라 관리 사무소에

가서 세면대 수리를 부탁하려다가(㉒), 집에 어른이 없다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했던 엄마의 당부가 생각나 엄마랑 같이 오겠다고 말하고 그냥 나온다. 결국 ‘나’는 ‘막힌 세면대 뚫는 법’에 관한 동영상 찾아보며 돈이 들지 않으면서도 가장 확실해 보이는 방법을 찾고(㉓), 자전거 가게에서 멍키 스패너를 빌려(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다.

2 ‘나’는 세면대를 고쳐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관리 사무소에 찾았으나, 집에 어른이 없다는 사실을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던 엄마의 당부를 떠올리게 된다. 그리고 세면대를 고치기 위해서는 ‘나’와 한아만 있는 집에 관리 사무소 아저씨가 들어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도움을 청하지 못한 채 그냥 되돌아온다.

평가 기준	확인 ☒
세면대를 수리하려면 엄마가 없는 집에 관리 사무소 아저씨가 들어와야 하기 때문임을 서술하였다.	☐
내용을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3 ‘나’는 막힌 세면대를 스스로 고치기로 결심하고 동영상을 찾아보다가, 마침내 돈이 전혀 들지 않으면서도 가장 확실해 보이는 방법을 찾았다.

오답 풀이 ① ‘나’는 막힌 세면대를 뚫기 위해 멍키 스패너를 빌리러 자전거 가게에 갔다.

② ‘나’는 세면대를 고쳐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관리 사무소에 찾았으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그냥 나왔다.

③ ‘나’는 한아를 내보내고 세면대 배수관을 뚫으려 하였으나 한아는 냄새를 참아 가며 의리를 지켰고, 결국 ‘나’와 한아는 힘을 합쳐서 막힌 세면대 문제를 해결하였다.

④ 자전거 가게 사장님은 멍키 스패너를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 꼬치꼬치 물은 후 ‘나’에게 멍키 스패너를 빌려주었다.

4 ‘나’는 세면대 문제를 해결한 후 해내기 어려울 것 같은 일을 스스로 해냈다는 뿌듯함과 자신감, 자랑스러움, 안도감 등의 감정을 느꼈다.

5 (1) ‘나’는 막힌 세면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멍키 스패너로 너트를 풀어 배수관을 분리하였고, 배수관 안에 잔뜩 낀 머리카락 뭉치를 발견하였다.

(2) ‘나’는 멍키 스패너를 사용하여 막힌 세면대 문제를 고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성취감과 자신감을 느꼈다.

6 세면대를 고친 후, ‘나’는 멍키 스패너를 손에 쥐고 고장 난 것들을 스스로 척척 고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였다. 이를 통해 ‘나’가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해결하려는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7 ‘나’는 멍키 스패너가 자신의 힘을 더 커지게 도와주고, ‘나’에게 무엇이든 척척 고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넣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멍키 스패너를 사고 싶어 한 것이다.

8 '나'는 만년 철물점 주인 할머니에게 막힌 세면대를 고치기 위한 조언을 얻고, 전구를 가는 방법도 배우면서 고마움을 느낀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나'는 만년 철물점 주인 할머니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든든하고 따뜻한 이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9 세면대를 고치는 동안 냄새를 참으며 '나'의 옆에서 도움을 주려고 한 한아의 모습을 보고, '나'는 한아가 자신에게 힘이 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따라서 한아를 아기처럼 취급하며 유리컵을 쓰지 못하게 하는 엄마와 달리, '나'는 한아도 이제 유리컵을 쓸 만큼 자랐다고 생각하여 주스를 유리컵에 따라 준 것이다.

10 화장실 전등불이 나가고 세면대가 막히는 등 이 소설에서 '나'가 겪은 문제 상황은 일상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이므로, 비현실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11 인물의 성장을 다룬 문학 작품을 감상하면 다양한 삶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으며, 작품 속 인물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독자는 자신의 태도를 성찰하고,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며,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내면화할 수 있다. 작품 속 인물의 삶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은 성장을 다룬 문학 작품을 읽고 얻을 수 있는 효과로 보기 어렵다.

내용 확인 문제

054쪽

- 1 ② 2 다른 존재에게 기대어 살아간다

1 이 시는 '비스듬히 다른 비스듬히를 받치고 있는 이'라는 가상의 청자를 설정하고 있으나, 말하는 이는 자연에서 얻은 깨달음을 독백조로 이야기하고 있을 뿐 청자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이 시는 인간의 삶을 나무에 빚대어, 공기에 기대고 서 있는 나무처럼 사람들도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③ 이 시에서 말하는 이의 초점은 1연의 자연에서 2~3연의 인간의 삶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를 통해 말하는 이는 자연에서 얻은 깨달음을 인간의 삶으로 확장하여, 서로가 서로를 비스듬히 받쳐 주며 험난한 세상을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④ '어디 기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나요?'와 같이 의문의 형식을 사용하여 모든 생명은 기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다.

⑤ 이 시는 '~요'로 문장을 끝맺음으로써 말하는 이가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부드럽고 친근한 어조로 드러내고 있다.

2 이 시에서는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나무가 공기에 기대고 서 있듯이 우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이 시에서 '나무'와 '우리'의 공통점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
내용을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활동 응용 문제

055쪽

- 1 ⑤ 2 ④ 3 문학 작품 속 인물의 성장 과정을 살펴
보며 인물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나아가 스스로를 성찰하
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1 '기대다'라는 말은 '몸이나 물건을 무엇에 의지하면서 비스듬히 기대다.' 또는 '남의 힘에 의지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며, 이 시에서는 다른 존재에게 의지한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 시에서 '기대다'라는 시어를 바꾸어 쓸 수 있는 말은 '의지하다'가 적절하다.

2 자신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에는 자신을 받쳐 주는 사람들에게 기대어 힘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자신이 다른 사람을 받쳐 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이 시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받쳐 주며 공존하는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자신을 받쳐 줄 때보다 자신이 다른 사람을 받쳐 줄 때 더 성장할 수 있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3 성장을 다룬 문학 작품에는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삶의 모습이 담겨 있다. 따라서 독자는 문학 작품을 통해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인물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스스로를 성찰하며, 이를 통해 자신에게 닥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성장을 다룬 문학 작품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음을 서술하였다.	☐
내용을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소단원 마무리

057쪽

- 1 (1) X (2) O (3) O 2 ③ 3 (1) X (2) O (3) X
(4) O 4 ⑤ 5 ① 6 ①

1 (1) 성장을 다룬 소설은 주로 아직 성숙하지 않은 주인공이 갈등을 극복하며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교훈을 전달한다.
 (2) 성장을 다룬 소설은 인물이 다양한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이에 대응하면서 성장하는 과정을 다룬다.
 (3) 성장을 다룬 소설은 주로 인물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물 내면의 심리적, 도덕적 변화를 이야기함으로써 작품의 주제를 드러낸다.

2 성장을 다룬 소설은 독자에게 다양한 삶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독자는 인물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태도를 성찰하고, 자신이 겪는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다. 그러나 성장을 다룬 소설을 읽음으로써 소설 속 인물과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미리 대비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1) '나'는 동생 한아를 배려하여 화장실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했으나, 한아는 의리를 지키며 '나'를 도와 세면대를 함께 고쳤다.
 (2) '나'가 전구를 사러 철물점에 갔을 때, 만년 철물점 주인 할머니는 전구를 꺼내 자세히 보여 주면서 '나'에게 전구를 갈아 끼우는 법을 설명해 주었다.
 (3) 한성 설비 아저씨가 아니라 만년 철물점 주인 할머니가 '나'에게 한성 설비에서 세면대를 고치려면 수리비 외에 기본 출장비 5만 원이 든다고 하였다.
 (4) '나'는 동영상 찾아보며 막힌 세면대를 뚫기 위해서는 멍키 스페너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자전거 가게 사장님에게 멍키 스페너를 빌렸다.

4 '나'는 세면대를 고친 후가 아니라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떤 일에도 결코 호들갑 떨지 않고 상대의 심장을 쿡쿡 찌르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머리를 짧게 잘랐다.

5 이 소설에서 멍키 스페너는 '나'의 힘을 몇 배로 더 세지게 하며, '나'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는 소재로 사용되었다.

오답 풀이 ② '나'가 멍키 스페너를 통해 엄마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③ '나'는 멍키 스페너를 사용하여 막힌 세면대 문제를 해결한 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지니게 되었다. 따라서 '나'가 자신이 아직 미약한 존재임을 깨달았다고 보기 어렵다.

④ '나'는 세면대를 고친 후 만년 철물점 주인 할머니가 든든하고 소중한 이웃임을 깨닫게 되지만, 만년 철물점 주인 할머니의 장인 정신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⑤ 이 소설에서 '나'에게 닥친 문제의 원인이자 '나'가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소재는 화장실 전등불과 세면대이다.

6 이 소설에서 '유리컵'은 동생 한아에 대한 '나'와 엄마의 인식 차이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소재이다. 한아를 아기처럼 취급하여 유리컵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엄마와 달리, '나'는 한아와 함께 세면대를 고친 후 한아가 자신에게 힘이 되는 존재임을 깨닫고 옐렌지 주스를 유리컵에 따라서 한아에게 준다.

문해력 키우기

059~061쪽

|1단계| 1 얼추 2 내절다 3 괜히 4 성찰하다
 5 꼬치꼬치 6 되돌아보다 7 내친김 8 호들갑
 9 붓다 10 느긋하다 11 넘실대다
 12 힐끔거리다 13 오기 14 조마조마하다
 15 번지르르하다

|2단계| 1 혹 2 가치 3 미처 4 꼬이다
 5 내면화 6 다듬다 7 되짚다 8 받치다
 9 다저넵때 10 뭉텅뭉텅 11 비스듬히
 12 반성하다 13 자그마치 14 청열대다

|3단계| 1 도무지 2 한산하다 3 손아귀
 4 짐작된다 5 알은체 6 예 그녀는 별것 아닌 일에 호들갑을 떨었다. 7 예 나는 어리둥절하여 철수를 뺐히 쳐다만 보았다. 8 예 그런 일은 애당초에 거절을 했어야 한다.
 9 예 사건이 일어났던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10 예 사람이 천년만년을 사는 것도 아닌데 안달하면서 지낼 것 없다.

|1단계|

- 오답 풀이** 막상: 어떤 일에 실지로 이르러.
- 오답 풀이** 내뿔다: 마음에 내키지 아니하거나 못마땅한 어조로 불쑥 말하다.
- 오답 풀이** 거뜬하: 다루기에 거볍고 간편하거나 손쉽게.
- 오답 풀이** 성장하다: 사람이나 동식물 등이 자라서 점점 커지다.
- 오답 풀이** 자작자작: 액체가 점점 찾아들어 적은 모양.
- 오답 풀이** 들여다보다: 가까이서 자세히 살피다.
- 오답 풀이** 여태: 지금까지. 또는 아직까지.
- 오답 풀이** 군소리: 하지 아니하여도 좋을 쓸데없는 말.
- 오답 풀이** 붙다: 살이 찌다.
- 오답 풀이** 험령하다: 행동이 조심스럽지 아니하고 미덥지 못하다.
- 오답 풀이** 간당간당하다: 물건 등을 거의 다 써서 얼마 남지 않은 상태가 되다.
- 오답 풀이** 훌쩍이다: 적은 양의 술이나 물 등을 조금씩 들이마시다.
- 오답 풀이** 근심: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함.
- 오답 풀이** 뻘뻘스럽다: 보기에 부끄러운 짓을 하고도 염치없이 태연하게 구는 태도가 있다.
- 오답 풀이** 어정쩡하다: 분명하지 아니하고 모호하거나 어중간하다.

소단원 평가

062-067쪽

- 01 ⑤ 02 불이 안 들어오는 화장실에 물이 안 내려가는 세면대라니! 03 ⑤ 04 ④ 05 ① 06 ④
- 07 한성 설비에서 세면대를 고치기 위해 필요한 수리 비용이 자신의 생각보다 비쌌기 때문이다. 08 ③ 09 집에 어른이 없다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했던 엄마의 당부가 생각났기 때문이다. 10 ③ 11 (나)-(다)-(가)-(라) 12 ①
- 13 ④ 14 ⑤ 15 ⑤ 16 ① 17 ④
- 18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나'는 만년 철물점 주인 할머니가 든든하고 따뜻한 이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 19 ④ 20 ④

01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말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2000년대의 어느 도시를 배경으로 한다.
 ② 이 글은 소설로, 글쓴이(작가)가 상상하여 꾸며 쓴 이야기이다.
 ③ '나'는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동생을 돌봐야 하는 것을 귀찮게 여기지만, 이 글에서 '나'와 동생의 갈등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
 ④ 이 글의 주인공인 '나'는 청소년으로, 현재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02 '나'는 엄마가 집을 비운 동안 팔자가 늘어질 거라고 기대했으나, 화장실 전등불이 나가고 세면대 배수구까지 막히면서 상황은 점점 꼬여만 간다.

03 '나'는 화장실 전등불이 나가고 세면대가 막히자, 스스로 이를 고치려고 하지 않고 엄마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즉 ㉠은 엄마가 집에 돌아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나'의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04 ㉡에서 '나'는 한아가 화장실 문을 열고 불일을 보는 게 대변이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여기고 있을 뿐, 자신이 의도한 대로 한아가 행동하여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①, ② 엄마가 일주일 간 집을 비우자, '나'는 엄마 없이 마음대로 지내고 엄마가 주고 간 10만 원으로 평소에 사지 못했던 것들을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떴다.
 ③ '혹'은 동생 한아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로, 엄마가 없는 동안 동생을 돌봐야 하는 것을 귀찮게 여기는 '나'의 태도를 드러낸다.
 ⑤ 화장실 전등불이 나갔지만, '나'는 직접 고치려고 하지 않고 화장실 문을 반쯤 열어 두고 불일을 본다. 이를 통해 '나'의 수동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05 '나'는 만년 철물점 주인 할머니에게 한성 설비에서 세면대를 고치려면 수리비 외에 기본 출장비 5만 원이 든다는 말을 들었다. 즉 한성 설비 사장님이 '나'에게 직접 수리비를 요구한 것은 아니

며, 만년 철물점 주인 할머니의 말을 통해 그 정도 수리비는 한성 설비 사장님의 기술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임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② (가)에서 '나'는 세면대가 막힌 원인이 머리카락 때문이라고 짐작했으나, 적당한 해결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밥을 한 그릇 더 먹어 보기로 한다. 이를 통해 '나'가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③ (다)에서 한성 설비 사장님의 기본 출장비가 5만 원이라는 만년 철물점 주인 할머니의 말에 '나'가 얼굴을 찌푸리자, 할머니는 일하는 사람에게 주는 돈은 왜들 그렇게 아까워하냐며 '나'를 꾸짖는다. 즉 만년 철물점 주인 할머니는 노동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한성 설비 사장님을 부르는 데에 드는 비용이 적당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④ (다)에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돌아서는 '나'를 따라 가게 밖까지 나온 만년 철물점 주인 할머니의 모습에서, 할머니의 따뜻한 성품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나)에서 '나'는 만년 철물점이라는 가게 이름이 지나치다고 생각하며, 천년만년 철물점을 하겠다는 굳센 의지로 장사를 하나 싶어 주인 할머니를 부담스럽게 여긴다.

06 (나)에서 '나'는 막힌 세면대를 고치기 위한 조언을 얻기 위해 만년 철물점 주인 할머니를 찾아갔다.

07 '나'는 코앞에 있는 아파트에 와서 고작 머리카락 좀 빼 주는 일을 하는 데에 돈이 얼마 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한성 설비 사장님의 기본 출장비가 5만 원이며, 수리비도 내야 한다는 만년 철물점 주인 할머니의 말을 듣고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큰돈이 들 것 같아 깜짝 놀란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나'가 한성 설비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듣고 놀란 까닭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
내용을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08 만삭인 외숙모는 외삼촌 없이 혼자 힘들게 지내고 있는 상황이다. '나'는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외숙모를 더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이다. '나'가 외숙모가 세면대 고치는 법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는 이 글을 통해 알 수 없다.

- 오답 풀이** ① (가)에서 '나'는 관리 사무소에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고, 무엇을 하는 곳인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하였다.
 ② (다)에서 외삼촌은 엄마와 함께 일 때문에 광주로 내려갔고, 만삭인 외숙모는 혼자 버티고 있는 중이라고 하였다.
 ④ (다)에서 집에 별일 없다는 외숙모의 물음에 한아는 화장실 전등불과 세면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서 '나'를 쳐다보았으나, '나'는 아무 일도 없다고 답변하였다.
 ⑤ (나)에서 '나'는 세면대를 고치기 위해 관리 사무소에 가서 세면대가 막혔다고 사실대로 말을 하되 아주 약간만 가여운 척하려 했다고 하였다.

09 '나'는 관리 사무소 아저씨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으나, 집에 어른이 없다는 사실을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던 엄마의 당부를 떠올린다. 이내 '나'는 세면대를 고치려면 자신과 한아만 있는 집에 관리 사무소 아저씨가 들어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나'가 관리 사무소 아저씨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기로 한 까닭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
내용을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10 집이 몇 동 몇 호인지 묻는 관리 사무소 아저씨의 물음에, '나'는 집에 어른이 없다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던 엄마의 당부가 생각나 답변을 하지 못하고 긴장한다(㉑). 결국 '나'는 엄마와 같이 오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관리 사무소를 나오지만, 행여 관리 사무소 아저씨가 자신을 따라오지는 않을까 불안해한다(㉒).

11 '나'가 멍키 스페너를 빌리러 자전거 가게에 간 토요일 아침(현재)인 (가)에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로 결심한 금요일 밤(과거)인 (나)와 (다)로 시간이 전환되고 있으며, (라)에서 다시 토요일 아침(현재)으로 시간이 되돌아오고 있다. 따라서 이를 시간의 흐름 순으로 배열하면, (나)-(다)-(가)-(라)가 된다. 이처럼 시간이 현재에서 과거로 거슬러 가는 구성을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한다.

12 '오기'는 '능력은 부족하면서도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말로, ㉑에서 '나'는 꼭 세면대를 직접 고칠 것이라는 오기가 생겨서 멍키 스페너를 꼭 쥐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결심을 굳히고 있다.

오답 풀이 ㉒ '나'는 시간이 지나며 세면대의 물이 저절로 빠질까 싶어 하루 종일 세면대를 들여다봤지만 달라진 것은 거의 없었다고 하였다.
 ㉓ '나'는 의도적으로 양치물을 바닥에 뱉으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 줌으로써 한아의 걱정을 덜어 주고자 하였다.
 ㉔ '나'는 막힌 세면대를 뚫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관련 동영상을 여러 개 찾아보았다.
 ㉕ 자전거에 기름을 발라 주며 '나'와 한아를 챙겨 주는 모습을 통해 자전거 가게 사장님의 따뜻한 성품을 확인할 수 있다.

13 '나'는 '막힌 세면대 뚫는 법'에 관한 동영상을 찾아보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멍키 스페너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㉖), 자전거 가게에 가서 사장님에게 멍키 스페너를 빌린다(㉗).

오답 풀이 ㉘. '나'와 한아에게 닥친 문제의 원인이 되는 소재는 화장실 전등불, 세면대이다.
 ㉙. '나'는 한아의 근심 어린 눈동자를 보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결심하였다.

14 이 글은 성장 소설로, 이와 같은 성장 소설을 읽을 때에는 주인공이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과 이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살펴봐야 한다. 또한 작품 속 인물이 겪은 문제 상황을 자신의 경험과 연결 지어 보면서 자신의 태도를 성찰함으로써 바람직한 삶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한다.

15 이 글은 화장실 전등불과 세면대를 고치는 '나'의 경험을 통해 동생 한아와 만년 철물점 주인 할머니와 같이 문제가 생겼을 때 주

변에 힘이 되는 든든한 사람들이 있음을 전달하고 있다.

오답 풀이 ㉑ 다른 사람의 됴됨이를 먼저 판단한 후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내용은 이 글의 내용과 거리가 멀다.
 ㉒ 이 글에서 '나'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생 한아와 만년 철물점 주인 할머니 등 주변 인물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주변 사람에 대한 평가를 달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는 감상은 이 글의 내용과 거리가 멀다.
 ㉓ 이 글에서 '나'는 시간이 흐르며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능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㉔ 이 글은 '나'와 동생 한아가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담고 있으며, 부모님을 위해 동생과 우애 있게 지내야 한다는 내용은 이 글의 내용과 거리가 멀다.

16 (나)에서 '나'는 처음에는 세면대를 제대로 고쳤는지 확신이 들지 않아 조마조마해한다. 그러나 이내 마개 틈새로 물이 내려가는 것을 확인하고, '나'는 해내지 못할 것 같던 일을 성공했다는 성취감, 안도감, 뿌듯함 등의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게 된다.

17 한아와 함께 세면대를 고친 후 '나'는 마냥 어린아이인 줄만 알았던 한아가 자신에게 힘이 되는 존재임을 깨닫고, 한아에게 유리컵을 준다. '나'와 한아가 세면대를 고치는 경험을 통해 성장한 것은 맞지만, 한아가 완전한 어른으로 성숙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18 (다)에서 전구를 사러 철물점에 들린 '나'에게 만년 철물점 주인 할머니는 전구를 가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나'는 만년 철물점 주인 할머니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든든하고 소중한 이웃임을 깨닫고, 할머니가 오랫동안 장사를 계속하기를 바란다.

평가 기준	확인 ☒
만년 철물점 주인 할머니에 대한 '나'의 태도가 변화한 계기를 바르게 서술하였다.	☐
내용을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19 이 시의 말하는 이는 자연을 보면서 깨달은 바를 전하고 있을 뿐, 자신의 유년 시절을 회상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㉑ 이 시에서 말하는 이는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기에 기대고 서 있는 나무의 모습을 통해 모든 생명은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간다는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
 ㉒ '기대는 게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니, '우리 또한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지요.'에서 유사한 시구를 반복하고 있다.
 ㉓ '보세요, '하지요'와 같이 문장을 '~요'로 끝맺어 부드럽고 친근한 느낌을 주고 있다.
 ㉔ '어디 기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나요?'에서 의문문의 형식을 사용하여 모든 생명은 다른 존재에 기대어 살아간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20 이 시에서 말하는 이는 공기에 기대어 살아가는 나무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이처럼 서로가 서로를 비스듬히 받쳐 주며 험난한 세상을 함께 살아가자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02 진솔한 글 쓰기

소단원 한눈에 보기

070~071쪽

- 1 (1) O (2) O (3) X 2 표현하기 3 ④ 4 ②
5 (1) X (2) O (3) O 6 (1) 택배원 (2) 산타

1 (1) 정서를 표현하는 글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게 된 생각이나 깨달음,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한 글을 말한다.
(2) 글쓴이는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쓰는 과정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건강한 자아를 형성할 수 있다.
(3) 독자는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읽으며 감동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글을 읽으며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점검할 수 있는 글은 설명하는 글이다.

2 정서를 표현하는 글 쓰기 과정 중 ‘표현하기’ 단계에서는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여 경험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글쓴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진솔하게 나타낸다.

3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쓸 때에는 ‘시간의 흐름’뿐만 아니라 ‘공간의 이동’, ‘원인과 결과’, ‘사건과 깨달음’ 등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순서로 내용을 배열해야 한다.

4 ‘나(지원)’은 중간 부분에서 비 오는 날 비를 맞으며 물건을 배달하는 아빠의 모습을 지켜본 것과 이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쓰기로 하였다. 따라서 이 글의 ‘중간’ 부분에는 비를 맞으며 일하는 아빠를 보면서 속상했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나’가 택배원의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 찾아본다는 내용은 이 글의 개요에서 확인할 수 없다.

③, ④ 택배원으로 일하는 아빠가 200개의 운송장을 가지고 돌아오고, ‘나’가 아빠를 도와 운송장을 입력하면서 아빠의 하루를 짐작하는 모습은 이 글의 ‘처음’ 부분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다.

⑤ 누군가 기다리는 물건을 소중하게 전달하는 아빠에게 자랑스러움을 느끼는 ‘나’의 모습은 이 글의 ‘끝’ 부분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다.

5 (1) 정서를 표현하는 글은 일반적으로 ‘처음-중간-끝’의 구조로 이루어지나, 정해진 형식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다.

(2) 「탑차를 끄는 사계절의 산타」에서 ‘나’는 비를 맞으며 물건을 배달하는 아빠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택배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아빠에 대한 존경심을 느꼈다.

(3) 「탑차를 끄는 사계절의 산타」에서 ‘나’는 ‘정말 속상했다’, ‘정겨운 눈빛으로’ 등과 같이 아빠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6 (1) 「탑차를 끄는 사계절의 산타」는 택배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 아빠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느낀 ‘나’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한 글이다.

(2) 「탑차를 끄는 사계절의 산타」에서 ‘나’는 택배원인 아빠를,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는 산타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아빠가 하는 일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활동 응용 문제

074~087쪽

- 1 ⑤ 2 ④ 3 ③ 4 ④ 5 탑차를 끌고 물건을 배달하는 아빠를 산타에 빗대어 표현한다. 6 운송장 속에는 아빠의 고된 하루가 고스란히 묻어 있었기 때문이다.
7 ① 8 ④ 9 운송장 10 ④ 11 산타
12 ⑤ 13 ⑤ 14 ③

1 지원은 최선을 다해 일하는 아빠에게 존경심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택배원으로 일하는 아빠를 지켜본 일에 대한 글을 쓰기로 하였다.

2 정서를 표현하는 글 쓰기 과정 중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는 글감으로 선정한 경험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때의 생각과 감정,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정리하여 글로 쓸 내용을 마련한다.

오답 풀이 ①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자신의 경험을 자유롭게 떠올리고, 그중에서 글감을 선택한다.

② ‘고쳐쓰기’ 단계에서는 자신이 쓴 글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③ ‘표현하기’ 단계에서는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여 경험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감정이나 생각을 진솔하게 나타낸다.

⑤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경험한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글로 쓸 내용을 조직한다.

3 지원은 글로 쓸 경험을 구체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때와 장소, 비를 맞으며 물건을 배달하는 아빠를 지켜본 일과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 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점 등을 떠올렸다. 지원과 함께 일해 본 아빠의 느낌은 지원이 떠올린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지원이 작성한 개요에 따르면, 이 글의 ‘끝’ 부분에는 누군가 기다리는 물건을 소중하게 전달하는 아빠를 산타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아빠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아빠가 하는 일의 가치를 드러내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소중한 사람과 시간을 보내자고 독자에게 권유하는 내용은 ‘끝’ 부분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5 지원은 ‘끝’ 부분에서 탑차를 끌고 물건을 배달하는 아빠를 산타에 빗대어 표현하고자 한다. 이는 산타가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듯이 아빠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물건을 전달해 준다는 점에서 아빠가 하는 일의 가치를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아빠가 하는 일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비유를 사용하였음을 서술하였다.	☐
내용을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6 처음 ②에서 ‘나’는 하루에 200장이나 되는 운송장 속에 아빠가 뛰거나, 물건을 옮기며 달려 온 하루의 때가 고스란히 묻어 있었기 때문에 아빠의 하루를 입력한 손이 더러워졌다고 짐작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아빠를 돕는 ‘나’의 손이 더러웠던 까닭이 운송장에 아빠의 고된 하루가 묻어 있기 때문임을 서술하였다.	☐
내용을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7 200장이나 되는 운송장, 아빠가 대문 안에 둔 물건, 주소지를 향해 운전하는 아빠의 모습, 열두 자리의 숫자를 입력하면서 아빠의 하루를 상상하는 ‘나’의 모습은 모두 아빠가 물건을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을 것임을 추측하게 한다. 그러나 아빠의 하얀 러닝셔츠는 아빠가 하는 일과는 관련이 없다. 이처럼 글쓴이는 아빠의 직업을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음으로써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8 이 글에서는 “오늘은 몇 개나 되냐?” / “글쎄, 200개 정도?” / “그렇게 많아?” / “응, 엄청 많아.”와 같이 ‘나’와 아빠의 대화 장면을 직접 인용함으로써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9 중간 ③에서 ‘나’는 아빠의 고된 하루가 담긴 운송장이 금방이라도 찢어질 것 같다고 여기고, 빗물에 젖은 운송장을 교복 상의에 대고 말린다. 즉 ‘나’는 운송장을 보고 아빠의 고된 하루를 떠올리며, 아빠가 너무 힘들지 않게 일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운송장이 뽀뽀하고 구김 없이 펴지기를 바란 것이다.

10 중간 ④에서 ‘나’는 송장 번호와 주소만으로 모든 물건의 상태를 파악하는 아빠를 보고, 택배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아빠의 모습에 자랑스러움과 존경심을 느끼고 있다.

11 ‘나’는 탑차를 타고 물건을 배달하는 아빠가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는 산타와 비슷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글의 제목인 「탑차를 끄는 사제절의 산타」와도 연결되는 부분으로, 비유 표현을 사용해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물건을 전달하는 아빠의 일이 지닌 가치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12 ㉠에서는 아빠와 배달을 받는 사람과의 통화를 직접 인용하여, 받는 사람에게 물건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는 아빠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13 지원이 글을 고쳐 쓰기 전과 후 모두 아빠와 물건을 배달 받는 사람과의 통화를 직접 인용하고 있다. 따라서 ⑤는 지원이 고쳐 쓴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③, ④ 〈보기〉에서는 탑차를 ‘루돌프’, 아빠의 매일매일은 ‘12월 25일’, 아빠가 배달하는 물건은 ‘선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② 〈보기〉에서 산타와 달리 아빠는 언제나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였다.

14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을 쓸 때에는 특별한 경험만을 다룰 필요는 없다. 자신에게 의미 있거나 다른 이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가치 있는 경험을 선택하면 된다.

활동 응용 문제

088~089쪽

1 편지(글) 2 ② 3 ③

1 편지는 한 사람, 또는 극히 한정된 사람들을 상대로 안부를 묻거나 자신의 용건과 심정을 전달하기 위해 말 대신 적어 보내는 글로, 대체로 잘 아는 상대와 주고받는 글이기 때문에 진솔한 마음을 담아 상대방에게 전달한다.

2 ‘아빠의 그림은 용감한 우리 태현이와 태성이를 그린 것이란다.’라는 내용과 편지에 포함된 그림에서 아빠가 아들에게 편지와 함께 그림을 보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편지에서 그림을 전할 수 없는 아쉬움이 느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쓸 때에는 경험을 미화하기보다는 경험과 느낀 점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 이 과정에서 글쓴이는 자신을 성찰하고, 건강한 자아를 형성할 수 있으며, 독자는 이러한 글을 읽으며 감동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소단원 마무리

090~091쪽

1 ② 2 (1) O (2) X (3) O (4) O 3 (1) X (2) O (3) O (4) O 4 ⑤

1 ㉠은 ‘내용 생성하기’, ㉡은 ‘내용 조직하기’, ㉢은 ‘계획하기’, ㉣은 ‘고쳐쓰기’, ㉤은 ‘표현하기’ 단계에서 할 일이다. 정서를 표현하는 글 쓰기는 ‘㉢ 계획하기 → ㉠ 내용 생성하기 → ㉡ 내용 조직하기 → ㉤ 표현하기 → ㉣ 고쳐쓰기’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2 (1) 정서를 표현하는 글은 글쓴이가 글을 쓰는 과정뿐만 아니라 독자가 글을 읽는 과정에서도 가치를 지닌다. (2) 글쓴이가 독자에게 대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설명하는 글의 특징이다.

(3) 글쓴이는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쓰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이를 통해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내면화하며 건강한 자아를 형성할 수 있다.

(4) 독자는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한 글을 읽으며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 등을 통해 감동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3 (1) 운송장에는 아빠가 하루에 200개나 되는 물건을 배달하면서 달려 온 하루의 때가 고스란히 묻어 있다. 지원은 이러한 운송장을 입력하면서 더러워진 자신의 손을 보고, 아빠의 고된 하루를 짐작하며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2) 지원은 비를 맞으며 최선을 다해 일하는 아빠의 모습을 지켜본 경험을 계기로, 택배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 아빠에게 존경심을 갖게 되었다.

(3) 지원은 비가 오는 날 아빠가 우산도 들지 않은 채 비를 맞으며 물건을 배달하고, 그날따라 자꾸만 주소를 잘못 찾아 비를 맞으며 몇 번이나 차 주변으로 되돌아오는 모습을 보고는 속상함을 느낀다.

(4) 지원은 택배에 관한 것이라면 대부분을 기억하는 아빠에게 경이로움을 느끼며, 아빠의 몸 어딘가에 택배와 관련된 엄청난 용량의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였다.

4 이 글에서 지원은 산타가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듯이 아빠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물건을 배달해 준다는 점에서, 아빠를 산타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문해력 키우기

093~095쪽

|1단계| 1 진술하다 2 글감 3 조직하다

4 자아 5 뿌듯하다 6 탐차 7 찾아들다

8 보완하다 9 인용하다 10 후련하다

11 짜임새 12 거추장스럽다 13 경험

14 가물가물하다 15 고스란히

|2단계| 1 개요 2 용량 3 정서 4 필체

5 귀찮다 6 베이다 7 운송장 8 존경심

9 해매다 10 각별하다 11 경이롭다

12 까칠하다 13 육하원칙 14 초조하다

|3단계| 1 행어 2 조마조마하였다 3 점검하였다

4 떠올리며 5 송장 6 예 지금의 시련을 계기로 삼아 노력하면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다. 7 예 두 형제는

장난감을 놓고 자주 다투는 편이다. 8 예 전철 안에는 사람

이 발 디딜 틈 없이 뻘뻘하였다. 9 예 그는 오늘 가장 친한

친구와의 약속을 못 지킨 것이 너무 속상하였다. 10 예 나

는 아무것도 없는 길에서 혼자 넘어진 것이 창피하여 얼른 그 자리

를 벗어났다.

|1단계|

1 오답 풀이 원만하다: 서로 사이가 좋다.

2 오답 풀이 갈등: 칩과 등나무가 서로 얹히는 것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함. 또는 그런 상태.

3 오답 풀이 생성하다: 사물이 생겨나다. 또는 사물이 생겨 이루어지게 하다.

4 오답 풀이 자부심: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그 가치나 능력을 믿고 당당히 여기는 마음.

5 오답 풀이 덩덤하다: 특별한 감정의 동요 없이 그저 예사롭다.

6 오답 풀이 내비게이션: 지도를 보이거나 지름길을 찾아 주어 자동차 운전자를 도와주는 장치나 프로그램.

7 오답 풀이 스며들다: 속으로 배어들다.

8 오답 풀이 배열하다: 일정한 차례나 간격에 따라 벌여 놓다.

9 오답 풀이 오해하다: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뜻을 잘못 알다.

10 오답 풀이 흐뭇하다: 마음에 흡족하여 매우 만족스럽다.

11 오답 풀이 마인드맵: 마음속에 지도를 그리듯이 줄거리를 이해하며 정리하는 방법.

12 오답 풀이 그림다: 보고 싶거나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13 오답 풀이 감정: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하여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

14 오답 풀이 보송보송하다: 잘 말라서 물기가 없고 보드랍다.

15 오답 풀이 뜬금없이: 갑작스럽고도 엉뚱하게.

소단원 평가

096~097쪽

01 ② 02 ④ 03 ⑤ 04 ③ 05 ⑤

06 택배에 관한 것은 대부분 기억하는 아빠에게 경이로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07 ② 08 ①

01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표현한 글을 읽을 때에는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경험과 정서를 파악하고, 이에 공감하며 읽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규칙적인 리듬감을 느끼며 읽는 것은 시를 읽는 방법이다. ③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읽는 것은 정보를 전달하는 글, 설명하는 글 등을 읽는 방법이다.

- ④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에 집중하며 읽는 것은 소설, 희곡 등을 읽는 방법이다.
- ⑤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근거의 타당성을 판단하며 읽는 것은 주장하는 글을 읽는 방법이다.

02 (가)에서 '나'는 우산 대신 택배 상자를 바짝 쥔 채 물건을 배달하러 다니는 아빠의 뒷모습을 보고 속상함을 느꼈다. 따라서 '나'가 비가 오는데도 우산을 쓰지 않는 아빠를 미련하게 여겼다고 보기 어렵다.

03 이 글은 택배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 아빠를 지켜보며 아빠에게 존경심을 느끼게 된 '나'의 경험을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독자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며 일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느낄 수 있다.

04 (다)와 (라)에서 글쓴이는 '나'와 아빠의 대화를 직접 인용하여 자신의 경험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05 고친 제목인 '갑차를 끄는 사계절의 산타'에서는 비유를 활용하여 택배원인 아빠를 산타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이는 산타가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듯이 아빠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물건을 전달해 준다는 점에서, 아빠가 하는 일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06 (다)에서 '나'는 "송장 번호 좀 알려 주실래요?"와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라는 두 마디만으로 모든 물건의 상태를 파악하는 아빠에게 경이로움을 느끼고, 아빠의 몸 어딘가에 택배와 관련된 엄청난 용량의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
'나'가 아빠에게 경이로움을 느낀 까닭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
내용을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07 이 글은 편지로, 한 사람 또는 극히 한정된 사람들을 상대로 안부를 묻거나 자신의 용건과 심정을 전달하기 위해 말 대신 적어 보내는 비전문적인 성격의 글이다. 따라서 편지가 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8 '태현아, '아빠도 부지런히 그림과 편지를 보내 주마.' 등과 같이, 이 글은 멀리 떨어져 지내는 아들에게 말을 건네는 듯이 서술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이 글에서 비유 표현은 찾을 수 없다.

③ 이 글에서는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통일하고 있지 않다.

④ "아빠에게 부지런히 편지를 써야겠다."라는 아들의 말을 직접 인용하고 있으나, 이는 아들의 말을 아빠가 전해 들은 것일 뿐 아빠와 아들이 직접 대화를 나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이 글은 '아빠는 정말 정말 기쁘다.', '아빠는 너희들이 보고 싶어서 못 견디겠다.' 등과 같이 아들에 대한 애정과 애뜻함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덤덤한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단원 평가

108~115쪽

- 01** ② **02** ③ **03** ⑤ **04** 화장실 전등불이 나가고 세면대가 막힌 것을 의미한다. / 화장실 불이 안 들어오고 세면대 물이 안 내려간다. **05** ③ **06** '나'와 한아가 세면대에서 긴 머리를 감고 행구는 동안 배수구 구멍으로 빠져나간 머리카락을 때문이다. **07** ① **08** ② **09** ③
- 10** ② **11** ③ **12** ① **13** 막힌 세면대를 고치는데 필요한 망키 스페너를 빌리기 위해서이다. **14** ②
- 15** ① **16** 막힌 세면대를 스스로 고친 후 성취감, 안도감, 뿌듯함 등의 감정을 느꼈기 때문이다. **17** ② **18** ③
- 19** (철물점 주인) 할머니, '나'에게 전구 가는 법을 자세히 알려 주었기 때문이다. **20** ⑤ **21**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 **22** ③ **23** ④ **24** 산타,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물건을 전달해 준다. **25** ④ **26** ③
- 27** ④

01 이 글은 성장 소설로, 주인공인 '나'가 자신이 겪은 일과 그에 대한 자신의 심리를 직접 서술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소설로, 글쓴이가 상상하여 꾸며 쓴 이야기이므로 글쓴이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이 글은 성숙하지 않은, 즉 어린 주인공이 현재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 인물의 일생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하고 있지 않다.

④ 이 글은 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향토적인 분위기도 나타나지 않는다.

⑤ (가)에서 집을 나서기 전까지 한아를 걱정하던 엄마의 모습을, (다)에서 어제, 오늘 세면대에서 머리를 감았던 일을 떠올리고 있으나, 이를 통해 앞으로 전개될 사건의 실마리가 제시되고 있지는 않다.

02 (다)에서 '나'는 요즘 들어 세면대 물 내려가는 속도가 좀 느리다 싶긴 했지만 이렇게 안 내려간 적은 처음이라, 세면대가 막힌 이유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나'는 곧 세면대가 고장 날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03 ⑤은 화장실 전등불이 나간 데 이어, 세면대까지 막힌 문제 상황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을 나타내는 관용구로 적절한 것은 '어렵거나 나쁜 일이 겹치어 일어나다.'라는 뜻의 '얹친 데 덮치다'이다.

오답 풀이 ① '마음이 풀리다'는 '마음속에 맺히거나 틀어졌던 것이 없어지다.' 또는 '긴장하였던 마음이 누그러지다.'라는 뜻이다.

② '하늘이 노랗다'는 '지나친 과로나 상심으로 기력이 몹시 쇠하다.' 또는 '큰 충격을 받아 정신이 아찔하다.'라는 뜻이다.

③ '생사람을 잡다'는 '아무 잘못이나 관계가 없는 사람을 헐뜯거나 죄인으로 몰다.'라는 뜻이다.

④ '발 벗고 나서다'는 '적극적으로 나서다.'라는 뜻이다.

04 ㉠은 '나'와 동생 한아에게 닥친 주된 문제 상황을 가리키는 것으로, 화장실 전등불이 나가고 세면대가 막힌 것을 의미한다.

평가 기준	확인 ☒
화장실 전등불이 나가고 세면대가 막힌 문제 상황 두 가지를 모두 서술하였다.	☐
내용을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05 (나)에서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때 큰맘 먹고 머리를 짧게 잘랐으나, 얼굴이 커 보인다는 아이들의 반응에 상처를 받았다고 하였다.

- 오답 풀이** ① (가)에서 '나'는 자신도 머리가 길지만, 남의 눈에 띄어 보려는 수작은 절대 아니라고 하였다.
- ② (가)에서 엄마가 아니라 '나'가 아침마다 한아의 긴 머리를 묶거나 땀겨나 여기저기 핀을 꽃거나 화려한 머리띠를 돌려 준다고 하였다.
- ④ (가)에서 엄마가 한아의 머리를 잘라 주려고 하는 것을 '나'가 그러지 못하게 막았다고 하였다.
- ⑤ (다)에서 '나'는 세면대가 막힌 원인이 머리카락 때문이라고 짐작하였으나, 이를 해결할 적당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밥을 한 그릇 더 먹어 보기로 하였다.

06 (다)에서 '나'는 자신과 한아가 긴 머리를 세면대에 거꾸로 쏟아 놓고 감고 행구는 동안 배수구 구멍으로 빠져나간 머리카락들 때문에 세면대 물이 안 내려가는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나'가 머리카락 때문에 세면대 물이 안 내려가는 것이라고 짐작했음을 서술하였다.	☐
주어진 문장 형식에 맞게 서술하였다.	☐

07 ㉠에서 '나'는 비록 자신은 애들 속에 묻혀 이도 저도 아닌 인생을 살고 있지만, 한아까지 그렇게 살게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즉 '나'가 애들 속에 묻혀 이도 저도 아닌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은 한아가 아니라 '나' 자신이다.

08 (가)에서 '나'는 듣기 좋은 말 몇 마디로 천 냥씩이나 떼어먹으려 드는 것은 양심상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막힌 세면대를 좀 봐 달라는 것 정도는 서로 돕고 살 수 있는 정도라고 여기며, 관리 사무소에 가서 세면대 고치는 일을 부탁하려고 한다. 이러한 '나'의 모습을 통해 '나'는 막힌 세면대를 뚫는 일이 천 냥 빚을 갚는 것보다는 쉬운 일이라고 여기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나)에서 관리 사무소의 위치를 찾지 못하고 헤매는 '나'의 모습에서, '나'가 평소 관리 사무소에 대해 관심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다)에서 '나'는 관리 사무소 아저씨에게 세면대 고치는 일을 부탁하면서, 사실대로 말하되 아주 약간만 가여운 척하려 했다고 하였다.
- ④ (가)에서 '나'는 막힌 세면대를 봐 달라는 것 정도는 서로 돕고 살 수 있는 일이 아니냐면서, 관리 사무소로 향하는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다.

⑤ (다)에서 '나'는 세면대를 고치려면 엄마가 없는 집에 낯선 아저씨가 들어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집에 엄마가 없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엄마와 같이 오겠다는 거짓말을 하고는 관리 사무소를 나왔다.

09 엄마는 '나'에게 집에 오면 보조 걸쇠까지 다 잠그고, 누가 와서 벨을 눌러도 문을 열어 주지 말고 가만히 있으며, 어디 가서 집에 엄마가 없다는 말을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나)에서 '나'는 이러한 엄마의 당부가 생각나서, 관리 사무소에서 도움을 받기를 포기한 것이다.

10 (라)에서 '나'는 버스 카드 안에 돈이 얼마 남지 않고 외숙모의 집까지 그리 멀지 않아서, 버스 두 정거장 거리를 걸어갔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나'는 돈을 허투루 쓰지 않는 알뜰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11 이 글은 시간의 흐름이 현재에서 과거로 전환되는 역순행적 구성을 사용하고 있다. (가)에서 외숙모의 집에 갔던 '나'와 한아는 (나)에서 집에 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 과자를 산다. 그리고 (라)에서 막힌 세면대를 스스로 뚫기로 결심한 '나'는 (마)에서 동영상을 찾아보며 세면대를 뚫기 위해서는 멍키 스페너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에서 자전거 가게 사장님에게 멍키 스페너를 빌린다. 따라서 이 글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배열하면 '(가)-(나)-(라)-(마)-(다)'가 된다.

12 (가)를 통해 외숙모는 임신한 상태로, 외삼촌 없이 혼자 힘들게 버티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즉 '나'는 혼자 힘들게 지내는 외숙모를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집에 아무 일도 없다고 말한 것이다.

13 (마)에서 '나'는 '막힌 세면대 뚫는 법'에 관한 동영상을 보면서, 세면대를 고치기 위해서는 멍키 스페너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나'는 이를 자전거 가게 사장님의 공구 상자 안에서 보았던 것을 기억해 내고, (다)에서 멍키 스페너를 빌리기 위해 자전거 가게에 찾아가는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나'가 멍키 스페너를 빌리기 위해 자전거 가게에 찾아갔음을 서술하였다.	☐
내용을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14 (나)에서 '나'는 동영상을 다섯 번쯤 돌려 봤더니 저절로 외어져, 작업 순서가 모두 머릿속에 있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나'가 동영상을 보면서 막힌 세면대를 뚫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가)에서 '나'와 한아는 세면대 아래에 있는 관을 보면서, 이 집에 오래 살았지만 이런 공간이 있는 줄은 몰랐다고 하였다.
- ③ 이 글에서 한아는 '나'를 도와 막힌 세면대를 고친 후, "별것도 아니네."라는 '나'의 말을 따라 하며 웃고 있다. 즉 한아는 세면대를 고친 경험을 통해 언니와 함께 힘을 합치면 어려워 보이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 ④ (다)에서 '나'는 배수관 구멍에 잔뜩 걸려 있는 머리카락들을 보며, '이

노무 가시나들, 머리를 다 밀어 버릴라.'라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고 하였다. 이는 '나'가 한아와 자신의 머리를 길게 기른 것 때문에 세면대가 막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㉔ (라)에서 '나'는 세면대의 물이 완전히 빠져나가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세면대를 제대로 고친 것인지 조마조마하였다.

15 이 글에서 '나'는 세면대를 고칠 때 냄새를 참아 가며 자신의 옆에서 도움을 주려는 한아를 보고 의리가 있다고 여기며,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아가 자신에게 힘이 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16 ㉕ “별것도 아니네.”라는 말은 해내지 못할 것만 같았던 일을 어렵게 해내고 난 후에 느끼는 성취감, 안도감, 자신감, 뿌듯함, 자랑스러움 등의 복합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㉕에서 드러나는 '나'의 심리를 두 가지 이상 서술하였다.	☐
주어진 문장 형식에 맞게 서술하였다.	☐

17 (다)에서 '나'는 멍키 스페너를 꼭 쥐면 손아귀의 힘이 몇 배로 더 커지면서 고장 난 것들을 스스로 척척 고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18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와 있었다.’에서 '나'와 한아에게 닥쳤던 문제 상황이 모두 해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㉖에서 '나'는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 것에 대해 뿌듯함을 느끼면서 스스로를 칭찬하고 있는 것이다.

19 〈보기〉의 시는 공기에 기대고 서 있는 나무와 같이, 인간도 서로가 서로를 비스듬히 받쳐 주며 살아간다는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 이 글에서 〈철물점 주인〉 할머니는 '나'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구 가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 준다는 점에서 '나'를 받쳐주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이 글에서 〈철물점 주인〉 할머니가 '나'를 받쳐 주는 존재임을 찾아 썼다.	☐
이 글에서 〈철물점 주인〉 할머니가 '나'를 어떠한 방식으로 받쳐 주는지 바르게 서술하였다.	☐

20 이 글은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한 글로, 글쓴이의 경험과 이를 통해 느낀 점 등을 솔직하게 드러낸다. 이러한 글을 쓰는 과정에서 글쓴이는 자신을 성찰하고 건강한 자아를 형성할 수 있으며, 독자는 글을 읽으며 감동과 즐거움을 느끼고 바람직한 삶의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서를 표현하는 글은 부조리한 사회 제도를 비판하고 바람직한 인간상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21 (가)에서는 “오늘은 몇 개나 되냐?” / “글쎄, 200개 정도?” / “그렇게 많아?” / “응, 엄청 많아.”와 같이 '나'와 아빠의 대화 장면

을 직접 인용함으로써 '나'의 경험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나'와 아빠의 대화를 직접 인용함으로써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한다는 점을 서술하였다.	☐
내용을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22 정서를 표현하는 글 쓰기 과정 중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자신의 경험을 자유롭게 떠올리고(㉗), 떠올린 경험 중에서 글감을 선택한다(㉘).

오답 풀이 나. 경험을 구체화하여 글로 쓸 내용을 마련하는 것은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할 일이다.

ㄷ.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은 '표현하기' 단계에서 할 일이다.

ㄹ. 개요를 작성하는 것은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할 일이다.

23 (나)~(다)에서 '나'는 비가 오는 날, 비를 맞으며 물건을 배달하는 아빠를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꾸만 주소를 잘못 찾아 비를 맞으며 몇 번이나 차 주변으로 되돌아오는 아빠의 모습에 '나'는 실망스러움이 아니라 속상함, 안타까움 등을 느낀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24 (마)에서 글쓴이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는 산타와 같이 아빠는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물건을 배달해 준다는 점에서, 아빠를 산타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이 글에서 글쓴이가 아빠를 산타에 빗대어 표현하였음을 서술하였다.	☐
아빠와 산타의 공통점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

25 ㉙에서 '까칠하고 물기 하나 없는 그 하루'는 아빠의 하루를 의미하는 것으로, 아빠가 힘들고 고된 일을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나'는 '살이 베일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라고 표현하면서, 힘들게 일하는 아빠에 대한 안타까움을 진솔하게 나타내고 있다.

26 (나)와 (다)에서 '나'는 비를 맞으며 힘들게 일하는 아빠를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따라서 비를 맞으며 일하는 아빠의 뒷모습을 보는 '나'의 심리로 적절한 것은 속상함, 안타까움, 안쓰러움 등이다(㉚). (라)에서 택배에 관한 것은 대부분 기억하는 아빠의 모습에, '나'는 아빠의 몸 어딘가에 택배와 관련된 엄청난 용량의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며 아빠에 대해 놀라움, 존경심, 경이로움 등을 느꼈다고 짐작할 수 있다(㉛).

27 '아빠의 그림은 용감한 우리 태현이와 태성이를 그린 것이란다.'라는 말에서 아빠가 편지와 함께 그림을 보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멀리 떨어진 자식들에 대한 애정을 담은 것일 뿐, 아들에게 그림에 대한 평가를 부탁하고 있지는 않다.

01 화장실 전등불이 나가고 세면대가 막히자, (나)에서 '나'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엄마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려는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태도를 보인다. 반면 (다)에서 '나'는 직접 막힌 세면대를 고치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02** 처음에 '나'는 아기 취급받는 한아를 못마땅하게 여기며 한아를 돌보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지만, 한아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면서 한아가 자신에게 힘이 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03** 멍키 스페너를 사용하여 막힌 세면대를 고치는 경험을 통해 '나'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04**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여 경험을 생생하게 드러낸다. 감정이나 생각을 진솔하게 나타낸다. **05** <보기>와 달리, (라)는 아빠의 매일매일은 '12월 25일', 탐차는 '루돌프', 아빠가 배달하는 물건은 '선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택배원으로서 아빠의 자부심과 아빠가 하는 일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06** 아빠가 너무 힘들지 않게 일하기를 바라고 있다.

01 (나)의 '불이 안 들어오는 화장실에 물이 안 내려가는 세면대라니!'에서 '나'에게 닥친 문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나)에서 '나'는 엄마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엄마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려는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다)에서 '나'는 직접 막힌 세면대를 뚫으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평가 기준

- 상 (나)와 (다)에서 문제를 대하는 '나'의 태도를 비교하여 <조건>에 맞게 바르게 서술하였다.
- 중 (나)와 (다)에서 문제를 대하는 '나'의 태도를 바르게 비교하였으나, <조건>에 맞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 하 (나)와 (다)에서 문제를 대하는 '나'의 태도 중 하나만 서술하였다.

02 세면대를 고치기 전, '나'는 아기 취급받는 한아를 못마땅하게 여기며 엄마가 없는 동안 한아를 돌봐야 하는 것을 귀찮게 여긴다. 그러나 '나'는 한아와 함께 세면대를 고치면서, 한아가 의리가 있고 자신에게 힘이 되어 주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따라서 '나'는 한아를 마냥 어리기만 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한아에게 오렌지주스를 유리컵에 따라 준 것이다.

평가 기준

- 상 한아에 대한 '나'의 태도 변화를 바탕으로 '나'가 한아에게 유리컵을 준 까닭을 <조건>에 맞게 바르게 서술하였다.
- 중 한아에 대한 '나'의 태도 변화를 바탕으로 '나'가 한아에게 유리컵을 준 까닭을 바르게 서술하였으나, <조건>에 맞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 하 <조건>에 관계없이 '나'가 한아에게 유리컵을 준 까닭을 서술하였다.

03 '나'는 멍키 스페너를 사용하여 막힌 세면대를 스스로 고치는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적극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다.

평가 기준

- 상 세면대를 스스로 고친 후, '나'가 ㉠과 같이 생각하게 된 계기를 <조건>에 맞게 바르게 서술하였다.
- 중 세면대를 스스로 고친 후, '나'가 ㉠과 같이 생각하게 된 계기를 바르게 서술하였으나, <조건>에 맞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 하 <조건>에 관계없이 '나'가 ㉠과 같이 생각하게 된 계기를 서술하였다.

04 이 글은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로, 이와 같은 글을 쓸 때에는 '계획하기-내용 생성하기-내용 조직하기-표현하기-고쳐쓰기'의 과정을 거친다. 이때 '표현하기' 단계에서는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여 경험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감정이나 생각을 진솔하게 나타내야 한다.

평가 기준

- 상 정서를 표현하는 글 쓰기 과정 중 '표현하기'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을 두 가지 모두 바르게 서술하였다.
- 중 정서를 표현하는 글 쓰기 과정 중 '표현하기'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을 한 가지만 바르게 서술하였다.
- 하 정서를 표현하는 글 쓰기 과정 중 '표현하기'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을 바르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05 <보기>와 달리, (라)는 아빠의 매일매일은 '12월 25일', 탐차는 '루돌프', 아빠가 배달하는 물건은 '선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배달하는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아빠를 '선물을 받지 못해 시무룩한 아이들의 표정을 견딜 수 없는 산타'에 빗대고 있다. 이처럼 (라)에서는 다양한 비유 표현을 활용하여 택배원으로서 아빠의 자부심과 아빠가 하는 일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평가 기준

- 상 <보기>를 (라)와 같이 고쳐 쓰며 달라진 부분과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조건>에 맞게 바르게 서술하였다.
- 중 <보기>를 (라)와 같이 고쳐 쓰며 달라진 부분과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바르게 서술하였으나, <조건>에 맞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 하 <보기>를 (라)와 같이 고쳐 써서 얻을 수 있는 효과만 서술하였다.

06 이 글에서 '운송장'은 아빠의 고된 하루가 담긴 소재로, '나'가 아빠와 동일시하는 대상이다. ㉠에서 '나'는 운송장을 교복 상의에 대고 말리며 운송장이 뽀뽀하고 구김 없이 퍼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는 아빠가 너무 힘들지 않게 일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평가 기준

- 상 ㉠에 나타나는 아빠에 대한 '나'의 심리를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바르게 서술하였다.
- 중 ㉠에 나타나는 아빠에 대한 '나'의 심리를 바르게 서술하였으나,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못하였다.

- ④ ㉠에 나타나는 아빠에 대한 '나'의 심리를 바르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한 걸음 더 고득점 문제

118~119쪽

01 ③ 02 ② 03 ⑤ 04 ④ 05 ⑤

01 (다)에서 자전거 가게 사장님은 '나'에게 멍키 스페너를 어디에 쓸 것인지 물어본 후, 멍키 스페너를 빌려 주며 '나'와 한아의 자전거 체인에 기름을 발라 주었다. 따라서 (다)에서 자전거 가게 사장님과 '나'의 갈등이 드러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02 (마)에서 '나'와 한아는 막힌 세면대를 고친 후 “별것도 아니네.”라고 말하며, 해내지 못할 것 같은 일을 해낸 것에 대한 뿌듯함, 성취감 등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 '세면대'는 '나'와 한아에게 닥친 문제이자 이를 해결하면서 '나'와 한아가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역할을 한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나'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하고는 양치물을 바닥에 뒀 뺐다. 이는 한아의 걱정을 덜어 주기 위한 행동이자 '나'의 자신감을 보여 주는 행동으로, 양치물이 '나'의 두려움을 떨쳐 내는데 도움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나)에서 '나'는 고장 난 연필깎이를 고쳐 주었던 경험을 언급하고 있다. 다만, 이는 한아의 불안감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일 뿐, '나'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④ (나)에서 '나'는 한아의 근심 어린 눈을 보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한다. 그러나 '안 되면 말고'에서 알 수 있듯이 '나'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 것은 아니다.

⑤ (라)에서 '나'와 한아는 멍키 스페너를 사용하여 막힌 세면대를 고친다. 따라서 멍키 스페너가 '나'와 한아의 갈등을 심화시킨다고 볼 수 없으며, 이 글에서는 '나'와 한아의 갈등이 나타나지 않는다.

03 이 글은 택배원으로 힘들게 일하는 아빠를 지켜본 경험과 이 경험을 통해 느낀 아빠에 대한 안타까움과 자랑스러움 등의 감정을 진솔하게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글쓴이가 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깨달은 점으로는 택배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 아빠가 존경스럽다는 내용이 적절하다.

04 아빠는 '산타', 탑차는 '루돌프', 아빠가 배달하는 물건은 '선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등 다양한 비유 표현을 사용하면, 산타가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듯이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물건을 배달해 주는 아빠의 일이 지닌 가치와 그에 대한 아빠의 자부심을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05 ㉠은 물건을 배달하는 아빠와 배달을 받는 사람과의 통화 내용을 직접 인용한 것이다. 이를 통해 글쓴이는 물건을 끝까지 안전하게 배달하려는 아빠의 모습을 드러내며, 택배원으로서 일하는 아빠의 책임감을 강조하고 있다.

2 다채로운 단어

01 단어의 짜임과 새말

소단원 한눈에 보기

124~125쪽

1 (1) ○ (2) X (3) X **2** (1) 꽃 (2) 이, 피-, -다 (3) 꽃, 피- (4) 이, -다 **3** (1) 어근 (2) 접미사 **4** (1) 단일어 (2) 합성어, 파생어 **5** ⑤ **6** (1) X (2) ○ (3) X

1 (1) 홀로 쓰일 수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 또는 홀로 쓸 수 있는 말에 붙어 앞말과 쉽게 분리되는 말을 '단어'라고 한다.

(2) '이/가', '을/를', '에서' 등의 조사는 홀로 쓰일 수 없으나, 홀로 쓸 수 있는 말에 붙어 앞말과 쉽게 분리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단어로 인정한다.

(3)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형태소'라고 한다.

2 형태소는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구분하고, 실질적 의미의 유무에 따라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구분한다.

(1) 자립 형태소는 홀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로, '꽃이 피다.'에서 자립 형태소는 '꽃'이다.

(2) 의존 형태소는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이는 형태소로, '꽃이 피다.'에서 의존 형태소는 '이, 피-, -다'이다.

(3) 실질 형태소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형태소로, '꽃이 피다.'에서 실질 형태소는 '꽃, 피-'이다.

(4) 형식 형태소는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형태소로, '꽃이 피다.'에서 형식 형태소는 '이, -다'이다.

3 (1) 단어를 이루는 형태소 중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을 '어근'이라고 한다.

(2) 접사는 어근의 앞이나 뒤에 붙어 그 뜻을 제한하는 형태소로, '장난꾸러기'의 '-꾸러기', '지우개'의 '-개'와 같이 어근의 뒤에 붙는 것을 '접미사'라고 한다.

4 (1) '나', '너', '우리' 등과 같이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를 '단일어'라고 한다.

(2) 둘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를 복합어라고 한다. 복합어 중 '눈사람(눈+사람)', '금도끼(금+도끼)' 등과 같이 어근과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를 '합성어'라고 하고, '맨주먹(맨+주먹)', '가위질(가위+-질)' 등과 같이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단어를 '파생어'라고 한다.

5 ⑤ '반려동물'은 '짝이 되는 동무.'를 뜻하는 어근 '반려'와 어근 '동물'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오답 풀이 ① '컴맹'은 '컴퓨터+맹인'에서 단어의 첫 글자를 결합하여 만든 새말이다.

② '자만추'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다'에서 단어의 첫 글자를 결합하여 만든 새말이다.

③ '누리꾼'은 어근 '누리'와 접사 '-꾼'으로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④ '암체죽'은 어근 '암체'와 접사 '-죽'으로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6 (1) 새말은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을 표현하려고 새로 만들어 사용하는 말로, 외래어뿐만 아니라 외래어를 우리말로 순화한 말도 새말에 포함된다.

(2) 무분별하게 만들어진 새말은 의사소통을 어렵게 하거나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해칠 수 있다.

(3) 새말을 올바르게 만들거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사용하는 새말이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에서 문제가 되거나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해치지 않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활동 응용 문제

128~139쪽

- 1 ③ 2 ② 3 ④ 4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 형태소를 분류하였다. / 홀로 쓰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형태소를 분류하였다. 5 ④ 6 ② 7 ④ 8 ⑤
- 9 합성어: 책방, 돌아다니다 / 파생어: 덧신 10 ①
- 11 ⑤ 12 ① 13 ① 14 접사는 어근의 앞이나 뒤에 붙어서 그 의미를 더하거나 제한한다. 15 ④
- 16 ④ 17 ③ 18 새말은 우리말을 더욱 풍성하게 한다. / 변화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담고 있다. 19 ④
- 20 ㉠: 단어의 첫 글자를 결합하여 만들었다. ㉡: 합성의 방법에 따라 만들었다. 21 ③ 22 ⑤ 23 ①
- 24 단어의 뜻을 쉽게 짐작할 수 있고,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살릴 수 있다. 25 ⑤

1 ㉠은 조사(단어)이고, ㉡은 어미(형태소)이다. 조사는 홀로 쓰일 수 없지만, 앞말과 쉽게 분리되는 성질이 있어서 단어로 인정한다.

오답 풀이 ①, ⑤ ㉠, ㉡ 모두 홀로 쓰일 수 없고,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인다.

② 띄어쓰기의 단위가 되는 것은 '어절'이다.

④ ㉠, ㉡ 모두 실질적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다.

2 '보름달'은 '보름'과 '달'로 나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보름달 / 은 / 둥글다'와 같이 3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③ '보름 / 달 / 은 / 둥글- / -다'와 같이 5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④ '은'은 조사로, 홀로 쓰일 수 없지만 앞말과 쉽게 분리되는 성질이 있어서 단어로 인정한다.

⑤ '둥글다'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어간 '둥글-'과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어미 '-다'로 나뉜다.

3 ④ '씻는다'는 '씻-+-는-+-다'와 같이 3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오답 풀이 ① '물+병'으로, 2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② '뜻-+감'으로, 2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③ '잡-+-다'로, 2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⑤ '시나브로'는 1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4 '날씨', '엄청'은 홀로 쓰일 수 있는 자립 형태소이고, '가', '덧-', '-다'는 홀로 쓰일 수 없고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이는 의존 형태소이다. 즉 <보기>는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 형태소를 나눈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분류하였음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
내용을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5 <보기>의 문장을 형태소로 나누면 '아이 / 가 / 이야기 / 책 / 을 / 읽- / -는- / -다'이다. 이 중에서 문법적 기능을 하는 형식 형태소는 '가', '을', '-는-', '-다'로, 총 4개이다.

6 합성어는 '밤나무(밤+나무)'와 같이 어근과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오답 풀이 ① 단일 어근, 즉 어근 하나로만 이루어진 단어는 단일어이다.

③, ④ 어근의 앞이나 뒤에 접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는 파생어이다.

⑤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결합한 것은 어근과 어근,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단일어이다.

7 ④ '여름밤'은 '여름(어근)+밤(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8 ⑤ '바다표범'은 '바다(어근)+표범(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개', '악어', '하마', '원숭이'는 모두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이다.

9 '책방(책+방)', '돌아다니다(돌다+다니다)'는 어근과 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고, '덧신(덧-+신)'은 '겹쳐 신거나 입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덧-'과 어근 '신'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보다(보-+-다)', '예쁘다(예쁘-+-다)'는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결합한 단일어이다.

10 ① '수캐(수-+개)'는 '새끼를 배지 않거나 열매를 맺지 않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수-'와 어근 '개'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오답 풀이 ② '안팎(안+밖)'은 어근과 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③ '바닷물(바다+물)'은 어근과 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④ '꽃나무(꽃+나무)'는 어근과 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⑤ '달그림자(달+그림자)'는 어근과 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11 ⑤ '뒤흔들다(뒤-+흔들다)'는 '몹시, 마구, 온통'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뒤-'와 어근 '흔들다'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12 접사와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는 파생어이다. 반면 ① ‘감나무’는 ‘감(어근)+나무(어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오답 풀이 ② ‘바느질(바늘+-질)’의 ‘-질’은 ‘그 도구를 가지고 하는 일’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③ ‘사냥꾼(사냥+-꾼)’의 ‘-꾼’은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또는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④ ‘잔가지(잔-+가지)’의 ‘잔-’은 ‘가늘고 작은’ 또는 ‘자질구레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⑤ ‘장난꾸러기(장난+-꾸러기)’의 ‘-꾸러기’는 ‘그것이 심하거나 많은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13 <보기>에 제시된 어근 ‘눈’, ‘땅’, ‘밥’, ‘주먹’에 공통으로 붙을 수 있는 접사는 ‘다른 것이 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맨-’이다.

14 ‘군-’은 어근 앞에 붙어 ‘쓸데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고, ‘헛-’은 어근 앞에 붙어 ‘이유 없는, 보람 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며, ‘-장이’는 어근의 뒤에 붙어 ‘그것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이와 같이 접사는 어근의 앞이나 뒤에 붙어서 그 의미를 더하거나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보기>의 밑줄 친 말들이 접사임을 밝혀 서술하였다.	☐
어근의 앞이나 뒤에 붙어서 그 의미를 더하거나 제한하는 접사의 역할을 서술하였다.	☐

15 ‘소나기’는 ‘갑자기 세차게 쏟아지다가 곧 그치는 비.’를 의미하는 단어로,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이다.

오답 풀이 ① ‘꽃비’는 비가 꽃잎처럼 가볍게 흩뿌리듯이 내리는 것을 이르는 말로, 어근 ‘꽃’과 어근 ‘비’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② ‘이슬비’는 아주 가늘게 내리는 비로, 어근 ‘이슬’과 어근 ‘비’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③ ‘먹구름’은 몹시 검은 구름으로, 검은 빛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먹-’과 어근 ‘구름’으로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⑤ ‘가을바람’은 가을철에 부는 바람으로, 어근 ‘가을’과 어근 ‘바람’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16 단어의 짜임을 알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해할 수 있고, 단어의 짜임을 활용하여 짐작한 단어의 의미를 바탕으로 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미 알고 있는 단어를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단어의 짜임을 안다고 해서 단어의 발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7 ③ ‘워라벨’은 일과 개인의 삶 사이의 균형을 이르는 ‘워크 라이프 밸런스’를 줄여 이르는 말로, 단어의 첫 글자를 결합하여 만든 새말이다.

오답 풀이 ① ‘그림(어근)+말(어근)’은 합성의 방법으로 만든 새말이다.

② ‘누리(어근)+-꾼(접사)’은 파생의 방법으로 만든 새말이다.

④ ‘채팅(어근)+방(어근)’은 합성의 방법으로 만든 새말이다.

⑤ ‘갱거루(어근)+-족(접사)’은 파생의 방법으로 만든 새말이다.

18 새말은 우리말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변화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19 ‘꽃(어근)+길(어근)’은 합성의 방법으로 만든 새말이다. 이와 같이 합성의 방법으로 만든 새말은 ④ ‘흙(어근)+경기(어근)’이다.

오답 풀이 ① ‘먹방’은 ‘먹는 방송’의 줄임말로, 단어의 첫 글자를 결합하여 만든 새말이다.

② ‘고령(어근)+-화(접사)’는 파생의 방법으로 만든 새말이다.

③ ‘가성비’는 ‘가격 대비 성능의 비율’의 줄임말로, 단어의 첫 글자를 결합하여 만든 새말이다.

⑤ ‘짬뽕’은 ‘짬뽕이+재테크’의 줄임말로, 단어의 일부를 따서 결합하여 만든 새말이다.

20 <보기>의 ㉠ ‘엄친아’는 ‘엄마 친구 아들’의 줄임말로, 단어의 첫 글자를 결합하여 만든 새말이고, ㉡ ‘취미부자’는 ‘취미(어근)+부자(어근)’과 같이 합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새말이다.

평가 기준	확인 ☒
㉠ ‘엄친아’의 새말 형성 방법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
㉡ ‘취미부자’의 새말 형성 방법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

21 새말은 사회가 변화하면서 생겨난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창의적으로 만든 새말은 우리말을 더욱 풍성하게 하므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2 ‘에어 캡’, ‘백패킹’, ‘그린 루프’와 같이 외국어에서 가져온 새말은 해당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혼란을 느낄 수 있다.

23 ① ‘멜빵’은 외국어에서 가져온 새말이 아니라 ‘짐 등을 어깨에 걸쳐 메는 끈’을 뜻하는 순우리말이다.

24 ‘팝업 스토어 → 반짝매장’과 같이 외국어에서 가져온 새말을 외국어의 정확한 뜻을 살려 쉬운 우리말로 표현하면 단어의 뜻을 쉽게 짐작할 수 있고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살릴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새말을 우리말로 다듬으면 좋은 점 두 가지를 바르게 서술하였다.	☐
내용을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25 ⑤ ‘셀프서비스’를 다듬은 우리말 ‘손수하기’의 짜임을 분석하면 ‘손수(어근)+-하-(접사)+-기(접사)’이다.

오답 풀이 ① ‘휘핑’을 다듬은 우리말 ‘거품크림’은 ‘거품(어근)+크림(어근)’으로 분석된다.

② ‘쇼핑몰’을 다듬은 우리말 ‘상점가’는 ‘상점(어근)+-가(접사)’로 분석된다.

③ ‘리빙딩’을 다듬은 우리말 ‘재정비’는 ‘재-(접사)+정비(어근)’로 분석된다.

④ ‘리허설’을 다듬은 우리말 ‘예행연습’은 ‘예행(어근)+연습(어근)’으로 분석된다.

1 ④ 2 ① 3 ③

1 불확실하거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가정하여 말할 때 쓰는 ‘-면’은 접사가 아니라 어미이다. 어미는 형식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라는 점에서 접사와 공통점이 있지만, 단어의 형성에 쓰이는 접사와 달리 용언의 활용에 쓰인다는 차이점이 있다.

2 ‘-장이’는 ‘간판장이’, ‘웅기장이’, ‘땀장이’, ‘양복장이’, ‘칠장이’와 같이 ‘그것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땀’은 기술과 관련이 없으므로, ‘그것이 나타내는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쟁이’를 붙여 ‘땀쟁이’로 만드는 것이 적절하다.

3 ③ ‘오운완’은 ‘오늘 운동 완료’의 줄임말로, 단어의 첫 글자를 결합하여 만든 새말이다. 이와 같이 줄임말로 만든 새말은 특정 집단에서만 통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집단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소단원 마무리

143쪽

1 ① 2 ② 3 ③ 4 ① 5 ④
6 (1) O (2) O (3) O

1 ‘밤’, ‘하늘’과 같이 단어는 하나의 형태소로도 구성될 수 있다. 이처럼 하나의 형태소(어근)로 이루어진 단어를 단일어라고 한다.

2 <보기>의 문장을 형태소로 나누면 ‘조국 / 이 / 우리 / 를 / 부르- / -ㄴ- / -다’이다. 이 중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형태소는 ‘조국’, ‘우리’, ‘부르-’이다.

오답 풀이 ① 홀로 쓰일 수 있는 자립 형태소만 골라 묶은 것이다.
③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형식 형태소만 골라 묶은 것이다.
④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이는 의존 형태소만 골라 묶은 것이다.
⑤ <보기>의 문장을 단어로 나눈 것이다.

3 ③ ‘땀개(땀-+-개)’에서 ‘땀-’은 ‘물건 등이 드러나거나 보이지 않도록 땀을 천 등을 얹어서 씌우다.’라는 뜻을 지닌 어근이고, ‘-개’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간단한 도구’의 뜻을 더하고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이다.

오답 풀이 ① ‘길이(길-+-이)’에서 ‘-이’는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이다.
② ‘정답다(정-+답다)’에서 ‘-답다’는 ‘성질이 있음’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이다.

④ ‘잠보(잠+-보)’에서 ‘-보’는 ‘그것을 특성으로 지닌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⑤ ‘헛소문(헛-+소문)’에서 ‘헛-’은 ‘이유 없는, 보람 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4 단어의 형태 변화 여부가 아니라 단어의 형성 방식, 즉 단어를 이루고 있는 형태소의 개수에 따라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뉜다.

오답 풀이 ② 실질 형태소인 어근에 형식 형태소인 접사가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파생어와 달리, 합성어는 ‘어근+어근’의 구조이므로 실질 형태소끼리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③ 단일어는 ‘강’, ‘산’ 등과 같이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④ 파생어는 ‘뚫사과(뚫-+사과)’, ‘햇밤(햇-+밤)’ 등과 같이 어근의 앞이나 뒤에 접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이다.

⑤ 합성어는 ‘불고기(불+고기)’, ‘콩나물(콩+나물)’ 등과 같이 둘 이상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5 ‘완소(완전히 소중하다), 솔까말(솔직히 깎놓고 말해서), 별다줄(별것을 다 줄인다)’에서 알 수 있듯이, 제시된 새말은 모두 단어의 첫 글자를 결합하여 만든 줄임말이다.

6 (1) 새말은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 현상 등을 표현하려고 새로 만들어 사용하는 말이므로, 이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2) 외국어를 그대로 쓰거나 지나치게 줄여서 만든 새말은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의사소통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3) 우리말의 단어 형성법에 맞게 창의적으로 만든 새말을 의사소통 상황에 맞게 활용하면 더욱 풍성한 언어생활을 누릴 수 있다.

문해력 키우기

145~147쪽

1단계 | 1 풍성하다 2 짜임 3 외동아이
4 까다 5 다듬다 6 새말 7 본래 8 자립
9 실질적 10 제한하다 11 세련되다 12 파생
13 전반 14 복합어 15 그림말

2단계 | 1 기존 2 꽃비 3 당해 4 기본형
5 단일어 6 먹구름 7 물안개 8 잔가시
9 잔머리 10 풋과일 11 풋사랑 12 한여름
13 더치페이 14 황소바람

3단계 | 1 무분별한 2 다듬으면 3 명확하여
4 순화하여 5 결합한 6 예 박물관 안쪽에는 간단한
음식을 먹고 쉴 수 있는 작은 휴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7 예 전학 간 학교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 8 예 어머니의 얼굴에 가득한 잔주름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9 예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창의적인 인재 육성이 시급하다.

10 예 나의 고향은 바다를 끼고 있어 해산물이 풍부하다.

1단계

- 1 **오답 풀이** 섬세하다: 매우 찬찬하고 세밀하다.
- 2 **오답 풀이** 형성: 어떤 모양이나 상태를 이룸.
- 3 **오답 풀이** 누리꾼: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는 사람.
- 4 **오답 풀이** 담다: 어떤 내용이나 사상을 그림, 글, 말, 표정 등 속에 포함하거나 반영하다.
- 5 **오답 풀이** 순화하다: 잡스러운 것을 걸러서 순수하게 하다.
- 6 **오답 풀이** 단어: 분리하여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나 이에 준하는 말. 또는 그 말의 뒤에 붙어서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말.
- 7 **오답 풀이** 당해: 일이 있는 바로 그해.
- 8 **오답 풀이** 의존: 다른 것에 의지하여 존재함.
- 9 **오답 풀이** 문법적: 문법에 관한 것.
- 10 **오답 풀이** 결합하다: 둘 이상의 사물이나 사람이 서로 관계를 맺어 하나가 되다. 또는 그렇게 되게 하다.
- 11 **오답 풀이** 명확하다: 명백하고 확실하다.
- 12 **오답 풀이** 합성: 둘 이상의 실질 형태소를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를 만들. 또는 그런 일.
- 13 **오답 풀이** 위주: 으뜸으로 삼음.
- 14 **오답 풀이** 외래어: 외국에서 들어온 말로 국어에서 널리 쓰이는 단어.
- 15 **오답 풀이** 형태소: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소단원 평가

148~151쪽

- | | | | | |
|------|-----------------|------------------|------|--------|
| 01 ③ | 02 ⑤ | 03 앞말과 쉽게 분리되는 말 | | |
| 04 ② | 05 ③ | 06 ④ | 07 ④ | 08 ③ |
| 09 ① | 10 기름, 두, 병, 사- | 11 ① | 12 ② | |
| 13 ① | 14 ② | 15 ① | 16 ④ | 17 ③ |
| 18 ③ | 19 ④ | 20 ④ | 21 ⑤ | 22 ③ |
| 23 ③ | 24 ① | 25 ④ | 26 ② | 27 단어의 |
- 짜임을 알면 모르는 단어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어휘력을 기를 수 있고, 글을 읽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 | | | |
|------|------|------|------|
| 28 ④ | 29 ⑤ | 30 ③ | 31 ④ |
|------|------|------|------|

01 단어는 홀로 쓰일 수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이다. 단, 조사는 홀로 쓰일 수 없지만 앞말과 쉽게 분리되는 성질이 있어서 단어로 인정한다. 따라서 '누나가 김밥을 먹다.'에서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은 조사인 '가(㉠)'와 '을(㉡)'을 제외한 '누나(㉢)', '김밥(㉣)', '먹다(㉤)'이다.

02 <보기>는 '감나무/가/매우/크다'와 같이 4개의 단어로 나누어진다. 이와 같은 개수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은 ⑤로, '아이/가/밝고/성실하다'와 같이 4개의 단어로 나눌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강물/이/불다'와 같이 3개의 단어로 나누어진다.
 ② '어서/대답해라'와 같이 2개의 단어로 나누어진다.
 ③ '밤나무/가/뽕뽕하다'와 같이 3개의 단어로 나누어진다.
 ④ '철호/는/병원/에/갔다'와 같이 5개의 단어로 나누어진다.

03 단어는 홀로 쓰일 수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 또는 홀로 쓸 수 있는 말에 붙어 앞말과 쉽게 분리되는 말을 의미한다.

04 형태소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이다. ② '주먹'과 같이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는 더 나누면 단어의 뜻이 사라지거나 본래의 뜻과는 관계없는 말이 되어서 더 나눌 수 없다.

- 오답 풀이** ① '콩밥'은 '콩'과 '밥'으로 나눌 수 있다.
 ③ '꽃다발'은 '꽃'과 '다발'로 나눌 수 있다.
 ④ '풋과일'은 '풋-'과 '과일'로 나눌 수 있다.
 ⑤ '사과나무'는 '사과'와 '나무'로 나눌 수 있다.

05 '튀놀다'는 '튀-+놀-+-다'로 분석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가방'은 1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② '들국화'는 '들-+국화'와 같이 2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④ '예쁘다'는 '예쁘-+-다'와 같이 2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⑤ '먹는다'는 '먹-+-는-+-다'와 같이 3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06 ④ '지우개'는 '지우-+-개'와 같이 2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이고, '이쑤시개'는 '이+쑤시-+-개'와 같이 3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 오답 풀이** ① '종이', '무지개'는 모두 1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② '앉았다'는 '앉-+-았-+-다', '섰다'는 '서-+-었-+-다'와 같이 모두 3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③ '손바닥'은 '손+바닥', '발등'은 '발+등'과 같이 모두 2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⑤ '떠들다'는 '떠들-+-다', '기다리다'는 '기다리-+-다'와 같이 모두 2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07 '강', '물', '안개', '까-'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실질 형태소이고, '에', '가', '-었-', '-다'는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형식 형태소이다. 따라서 <보기>의 형태소 분류 기준은 실질적 의미의 유무이다.

08 ③ '꽃바람'은 '꽃+바람'으로 이루어진 단어로, '꽃'과 '바람'은 모두 홀로 쓰일 수 있는 자립 형태소이다.

- 오답 풀이** ① '뒹개'는 '뒹-+-개'로 이루어진 단어로, '뒹-'과 '-개'는 모두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이는 의존 형태소이다.
 ② '햇과일'은 '햇-+과일'로 이루어진 단어로, '햇-'은 의존 형태소이다.
 ④ '욕심쟁이'는 '욕심+쟁이'로 이루어진 단어로, '-쟁이'는 의존 형태소이다.
 ⑤ '손가락질'은 '손+가락+질'로 이루어진 단어로, '-질'은 의존 형태소이다.

09 '구경꾼'은 '구경+-꾼'으로 이루어진 단어로, 이 중 '구경'은 홀로 쓰일 수 있는 자립 형태소이다.

오답 풀이 ② '마시+-ㄴ-+-다'의 '-다'는 용언의 어미로,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이는 의존 형태소이다.

③ '차+-고'의 '차-'는 용언의 어간으로, 의존 형태소이다.

④ '관계자+에게'의 '에게'는 조사로, 의존 형태소이다.

⑤ '늦-+가을'의 '늦-'은 어근에 붙어 그 의미를 제한하는 접사로, 의존 형태소이다.

10 <보기>의 문장을 형태소로 나누면 '참-/기름/두/병/을/사-/앓-/다'이다. 이 중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실질 형태소는 '기름, 두, 병, 사-(어간)'이고 '참-(접사), 앓-(어미), -다(어미)'는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형식 형태소이다.

11 ① '말벌'은 '큰'의 뜻을 더하는 접사 '말-'과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어근 '벌'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접사 '말-'은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어근에 붙어서 그 의미를 제한하는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형식 형태소이다.

오답 풀이 ② '첫눈'은 어근 '첫'과 어근 '눈'이 결합한 합성어로, 두 형태소 모두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실질 형태소이다.

③ '둘다리'는 어근 '둘'과 어근 '다리'가 결합한 합성어로, 두 형태소 모두 실질 형태소이다.

④ '주머니'는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로,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하나의 실질 형태소로 이루어졌다.

⑤ '양떼구름'은 어근 '양'과 어근 '떼', 어근 '구름'이 결합한 합성어로, 세 형태소 모두 실질 형태소이다.

12 어근은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으로, '땅', '하늘'과 같이 홀로 단어를 이룰 수 있다. 이처럼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를 단일어라고 한다.

오답 풀이 ① 접사는 홀로 쓰일 수 없으며 어근과 결합하여 단어를 이룬다.

③ 어근에 붙어 그 의미를 제한하는 접사에는 어근의 앞에 붙는 접두사와 어근의 뒤에 붙는 접미사가 있다.

④ 어근은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지만, 접사는 실질적인 의미 없이 어근에 붙어서 그 의미를 제한한다.

⑤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를 합성어라고 한다. 파생어는 접사와 어근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이다.

13 단어를 형성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은 어근이다. ① '빗금'에서 '금'은 '접거나 굿거나 한 자국.'이라는 뜻을 지닌 어근으로, '빗금'은 어근 '금'과 '기울어진'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빗-'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오답 풀이 ② '대가족'에서 '대-'는 어근 '가족'에 '큰, 위대한, 훌륭한, 범위가 넓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③ '설익다'에서 '설-'은 어근 '익다'에 '충분하지 못하게'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④ '먹히다'에서 '-하-'는 어근 '먹-'에 '피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⑤ '걱정꾸러기'에서 '-꾸러기'는 어근 '걱정'에 '그것이 심하거나 많은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14 ② '한돌(한+돌)'의 '한'은 '큰, 정확한, 한창인'의 뜻을 더하는 접사 '한-'이 아니라 '하나'라는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어근이다. '돌'도 '하나에 하나를 더한 수.'라는 의미를 지닌 어근으로 사용되었다.

오답 풀이 ① '논밭(논+밭)'에서 '논'과 '밭'은 모두 어근이다.

③ '고구마'는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이다.

④ '무식쟁이(무식+-쟁이)'에서 '무식'은 어근이고, '-쟁이'는 접사이다.

⑤ '칠판지우개(칠판+지우+-개)'에서 '칠판'과 '지우-'는 어근이고 '-개'는 접사이다.

15 '우리'는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이다. ① '어르다'도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이다.

오답 풀이 ② '휘-(접사)+감다(어근)'로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③ '들-(접사)+끓다(어근)'로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④ '빌다(어근)+먹다(어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⑤ '뛰다(어근)+내리다(어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16 복합어는 둘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로, 어근과 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와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파생어로 나뉜다. <보기>의 단어 중 '의자'는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이고, '책가방(책+가방)', '사물함(사물+함)'은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풍경화(풍경+-화)', '보건실(보건+-실)', '실내화(실내+-화)'는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따라서 복합어는 모두 5개이다.

17 ③ '집안일'은 '집(어근)+안(어근)+일(어근)'과 같이 3개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오답 풀이 ① '앞뒤'는 '앞(어근)+뒤(어근)'와 같이 2개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② '맨얼굴'은 '맨-(접사)+얼굴(어근)'과 같이 1개의 접사와 1개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④ '숫아오르다'는 '숫다(어근)+오르다(어근)'와 같이 2개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⑤ '뽕으락푸르락하다'는 '뽕으락(어근)+푸르락(어근)+-하다(접사)'와 같이 2개의 어근과 1개의 접사로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18 ③ '휘-+돌다'는 어근 '돌다' 앞에 '마구' 또는 '매우 심하게'의 뜻을 더하는 접사 '휘-'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파생어이다. '돌아가다'는 두 어근 '돌다'와 '가다'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오답 풀이 ① '달+밤'과 '초승+달'은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② '물+고기'와 '바닷+물'은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④ '꽃+가루'와 '진달래+꽃'은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⑤ '오다+가다'와 '들여(다)+오다'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19 ④ '높-+푸르다'는 어근 '높-'과 어근 '푸르다'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 오답 풀이** ① ‘오뚝+-이’는 어근 ‘오뚝’ 뒤에 ‘사람’ 또는 ‘사물’의 뜻을 더하고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이’가 붙어서 만들어진 파생어이다.
- ② ‘여름+-내’는 어근 ‘여름’ 뒤에 ‘그 기간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뜻을 더하고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 ‘-내’가 붙어서 만들어진 파생어이다.
- ③ ‘셋+-노랗다’는 어근 ‘노랗다’ 앞에 ‘매우 질고 선명하게’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셋-’이 붙어서 만들어진 파생어이다.
- ⑤ ‘자랑+-스럽다’는 어근 ‘자랑’ 뒤에 ‘그려한 성질이 있음’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 ‘-스럽다’가 붙어서 만들어진 파생어이다.

20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④ ‘가위질’은 ‘가위(어근)+-질(접사)’로 이루어진 파생어이고, ‘헛기침’도 ‘헛-(접사)+기침(어근)’으로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 오답 풀이** ① ‘얼굴’, ‘생각’은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이다.
- ② ‘하늘’은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이고, ‘맨손’은 ‘맨-(접사)+손(어근)’으로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 ③ ‘물병’은 ‘물(어근)+병(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고, ‘늦더위’는 ‘늦-(접사)+더위(어근)’로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 ⑤ ‘햇과일’은 ‘햇-(접사)+과일(어근)’로 이루어진 파생어이고, ‘복주머니’는 ‘복(어근)+주머니(어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21 ⑤ ‘휘젓다’는 ‘휘-(접사)+젓다(어근)’와 같이 ‘접사+어근’으로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 오답 풀이** ① ‘가운데’는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이다.
- ② ‘망치(어근)+-질(접사)’은 ‘어근+접사’로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 ③ ‘이(어근)+-까짓(접사)’은 ‘어근+접사’로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 ④ ‘작은(어근)+집(어근)’은 ‘어근+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22 ③ ‘채찍질’은 어근 ‘채찍’에 ‘그 도구를 가지고 하는 일’의 뜻을 더하는 접사 ‘-질’이 붙어서 만들어진 파생어이다.

- 오답 풀이** ① ‘불+구경’은 어근과 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 ② 둘 이상의 형태로 이루어진 복합어가 쓰이지 않았다.
- ④ ‘돌+다리’는 어근과 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 ⑤ ‘낮+말’과 ‘밤+말’은 어근과 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23 ‘수나사’는 어근 ‘나사’에 ‘길게 튀어나온 모양의, 안쪽에 들어가는, 잘 보인’의 뜻을 더하는 접사 ‘수-’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단어이다. 따라서 접사 카드에 제시된 의미의 ‘수-’가 사용된 단어로 적절하지 않다.

24 <보기>의 어근에 공통적으로 붙을 수 있는 접사는 ‘군-’이다. 접두사 ‘군-’은 (일부 명사 앞에 붙어) ‘쓸데없는’의 뜻을 더하여 ‘군불’, ‘군살’, ‘군말’ 등과 같은 단어를 만들고, ‘필요 밖으로 더한’, ‘덧붙은’의 뜻을 더하여 ‘군사람’, ‘군식구’ 등과 같은 단어를 만든다.

- 오답 풀이** ② 접두사 ‘햇-’은 (어두음이 된소리나 거센소리가 아닌 일부 명사 앞에 붙어) ‘당해에 난’의 뜻을 더하여 ‘햇감자’, ‘햇과일’, ‘햇양파’ 등의 단어를 만들 수 있고, ‘얼마 되지 않은’의 뜻을 더하여 ‘햇병아리’, ‘햇비둘기’ 등과 같은 단어를 만들 수 있다.
- ③ 접두사 ‘참-’은 (일부 명사 앞에 붙어) ‘진짜’ 또는 ‘진실하고 올바른’의 뜻을 더하여 ‘참사랑’, ‘참똥’ 등의 단어를 만들 수 있고, ‘품질이 우수한’의 뜻을 더하여 ‘참떡’, ‘참흙’ 등의 단어를 만들 수 있다.

- ④ 접미사 ‘-질’은 (도구를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 도구를 가지고 하는 일’의 뜻을 더하여 ‘가위질’, ‘걸레질’ 등의 단어를 만들 수 있고, (신체 부위 등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 신체 부위를 이용한 어떤 행위’의 뜻을 더하여 ‘결눈질’, ‘손가락질’ 등의 단어를 만들 수 있다.
- ⑤ 접미사 ‘-꾼’은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또는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의 뜻을 더하여 ‘살림꾼’, ‘심부름꾼’, ‘씨름꾼’ 등의 단어를 만들 수 있고, ‘어떤 일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또는 ‘어떤 일을 즐겨 하는 사람’의 뜻을 더하여 ‘낚시꾼’, ‘잔소리꾼’, ‘말썽꾼’ 등의 단어를 만들 수 있다.

25 ‘-쟁이’는 ‘그것이 나타내는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그것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는 ‘-장이’이다.

26 ② ‘먹구름’은 검은 빗갈의 뜻을 더하는 접사 ‘먹-’과 공중에 떠 있는 물방울을 뜻하는 ‘구름’을 합한 파생어로, ‘몹시 검은 구름’이라는 뜻이다.

27 단어의 짜임을 알면 모르는 단어의 의미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어휘력을 기를 수 있다. 또한 문장에 쓰인 단어의 의미를 짐작하여 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단어의 짜임을 알면 좋은 점을 어휘력과 문해력의 측면에서 바르게 서술하였다.	☐
주어진 문장 형식에 맞게 서술하였다.	☐

28 새말은 일시적으로 사용되다가 사라지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 널리 쓰이면서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기도 한다.

- 오답 풀이** ① 새말은 합성이나 파생처럼 기존의 단어 형성 방법에 따라 만들어진단.
- ② 새말은 사회가 변화하면서 생겨난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을 표현하려고 새로 만들어 사용하는 말이다.
- ③ 외국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쓰는 외래어나, 이를 우리말로 순화한 말도 새말에 포함된다.
- ⑤ 최근에는 단어의 첫 글자를 결합하거나 단어의 일부를 따서 결합하여 만드는 등 기존의 단어 형성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새말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29 <보기>의 ㉠, ㉡와 같이 지나치게 말을 줄여서 만들거나 다른 나라의 말을 무분별하게 결합하여 만든 새말은 의사소통에 혼란을 주고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해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 ‘그림(어근)+말(어근)’, ‘마을(어근)+버스(어근)’는 ‘셈(어근)+물(어근)’, ‘달(어근)+빛(어근)’ 등과 같이 합성의 방법으로 만든 새말이다.
- ② ㉡ ‘누리(어근)+꾼(접사)’, ‘디지털(어근)+화(접사)’는 ‘햇-(접사)+밤(어근)’, ‘한-(접사)+여름(어근)’ 등과 같이 파생의 방법으로 만든 새말이다.
- ③ ㉢ ‘오운완(오늘+운동+완료하다)’, ‘자만추(자연스러운+만남+추구)’는 단어의 첫 글자를 결합하여 만든 새말이다.

④ ④ '네티켓(네트워크+에티켓)', '라볶이(라면+떡볶이)'는 단어의 일부를 따서 결합하여 만든 새말이다.

30 ③ '채팅방'은 '채팅(어근)+방(어근)'으로, 외래어와 우리말을 합성하여 만든 새말이다.

오답 풀이 ① '친추(친구+추천)'는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새말이다.
 ② '근자감(근거없는+자신감)'은 단어의 일부를 따서 결합하여 만든 새말이다.
 ④ '저메추(전혀+메뉴+추천)'은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새말이다.
 ⑤ '와이파이'는 외국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쓰는 새말이다.

31 '멋글씨'는 외국어에서 가져온 새말인 '캘리그래피'의 정확한 뜻을 살려 우리말로 쉽게 다듬은 말이다. 이와 같이 의미를 알기 어려운 외국어에서 가져온 새말을 우리말로 다듬으면, 새말의 의미를 쉽게 짐작할 수 있으며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살릴 수 있다.

02 어휘의 양상과 쓰임

✦ 소단원 한눈에 보기

154쪽

1 (1) O (2) X (3) O 2 ① 3 (1) 매체 (2) 무분별

1 (1) 세대마다 경험한 문화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사용하는 어휘에도 차이가 생긴다.
 (2) 노년층은 한자어, 예의를 갖춘 표현 등을 자주 사용하고, 청소년층은 줄임말, 외래어 등 새말을 자주 사용한다.
 (3) 세대 간에 대화할 때에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어휘를 사용해야 한다.

2 예의를 갖춘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것은 세대별 어휘 중 노년층이 사용하는 말의 특성이다.

오답 풀이 ②, ④ 전문어는 뜻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므로, 해당 분야의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③ 전문어는 주로 외국어나 외래어, 한자어로 이루어진다.
 ⑤ 전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해당 분야 외의 일반인과 대화할 때에는 전문어를 쉽게 풀어서 표현해야 한다.

3 (1) 인터넷 매체가 등장하면서 매체의 특성에 따라 어휘가 다양하게 변이되었는데, 이러한 인터넷 언어는 간편하게 쓰기, 생생하게 쓰기, 글자를 재미있게 표현하기 등 어휘를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고 있다.
 (2) 인터넷 언어를 사용할 때에는 소통 상황과 대상을 고려해야 하며,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활동 응용 문제

158~167쪽

1 ④ 2 줄임말을 자주 사용한다. 3 (1) X (2) O (3) O
 4 우리의 언어를 다채롭고 풍성하게 만들어 준다. 5 ①
 6 ② 7 ① 8 전문어 9 ① 10 해당 분야 외의 일반인은 전문어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반인과 대화할 때 전문어를 사용하면 의사소통을 방해할 수 있다.
 11 ③ 12 ⑤ 13 ④ 14 ③ 15 ②
 16 ③

1 ④ '강녕(康寧)하다'는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뜻의 한자어(한자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말)로, 노년층이 자주 사용하는 어휘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친추'는 '친구 추가'의 줄임말로, 청소년층이 자주 사용하는 어휘에 해당한다.
 ② '볼매'는 '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의 줄임말로, 청소년층이 자주 사용하는 어휘에 해당한다.
 ③ '엄빠'는 '엄마 아빠'의 줄임말로, 청소년층이 자주 사용하는 어휘에 해당한다.
 ⑤ '알잘딱깔센'은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의 줄임말로, 청소년층이 자주 사용하는 어휘에 해당한다.

2 '멘붕(멘탈 붕괴)', '솔까말(솔직히 까놓고 말해서)'은 모두 단어의 첫 글자를 결합하여 만든 줄임말이다. 이와 같이 청소년층은 줄임말을 자주 사용한다.

평가 기준	확인 ☒
〈보기〉에 나타난 청소년층 어휘의 특성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
내용을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3 (1) '사흘간'은 '3일 동안'을 의미한다.
 (2) '국룰'은 '보편적으로 정해진 규칙'이라는 뜻의 새말로, 청소년층이 자주 사용하는 어휘에 해당한다.
 (3) '무료(無聊)하다'는 '흥미 있는 일이 없어 심심하고 지루하다.'라는 뜻의 한자어(한자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말)로, 노년층이 자주 사용하는 어휘에 해당한다.

4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 세대가 자주 사용하는 새말에는 새롭게 등장한 문화나 언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젊은 세대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러한 말들은 우리의 언어를 다채롭고 풍성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청소년층이 사용하는 새말의 긍정적인 측면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
내용을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5 줄임말이나 외래어 등 새말을 자주 사용하는 세대는 청소년층이다. 노년층은 한자어(한자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말)나 예의를 갖춘 표현 등을 자주 사용한다. 이와 같이 세대마다 사용하는 어휘에 차이가 생기는 까닭은 세대마다 경험한 문화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6 세대별 어휘에는 각 시대의 문화와 가치관이 담겨 있다. 그러므로 세대별 어휘를 대할 때에는 서로의 경험과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세대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관용적 태도를 지녀야 한다.

- 오답 풀이** ① ‘독선적’은 ‘자기 혼자만이 옳다고 믿고 행동하는 성향을 가진.’이라는 의미이다.
 ③ ‘방관적’은 ‘어떤 일에 직접 나서서 관여하지 않고 곁에서 보기만 하는.’이라는 의미이다.
 ④ ‘배타적’은 ‘남을 배척하는.’이라는 의미이다.
 ⑤ ‘무비판적’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이는.’이라는 의미이다.

7 ‘고수하다’는 ‘차지한 물건이나 형세 등을 굳게 지키다.’라는 뜻으로, 청소년층과 노년층이 각자의 언어문화를 고수하면 세대 간 소통의 단절이 더 심해질 수 있다.

8 각 분야마다 그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문어가 있다. 전문어는 뜻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므로 해당 분야의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9 전문어는 전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쓰는 말로, 어휘가 담고 있는 뜻이 정확하고 구체적이다.

- 오답 풀이** ②, ④ 전문어가 아니라 유행어와 관련 있는 설명이다.
 ③ 전문어는 학술회나 세미나 등과 같은 공식적인 상황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⑤ 전문어가 아니라 관용어와 관련 있는 설명이다.

10 “어떤 병에 걸렸다는 말씀인가요?”라는 환자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의학 분야의 전문인인 아닌 일반인은 ‘임상’, ‘인후’, ‘스왑(swab) 검사’, ‘급성 상기도 감염’과 같은 전문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와 같이 일반인은 전문어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반인과 대화할 때 전문어를 사용하면 의사소통을 방해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전문어를 사용할 때, 일반인이 전문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
내용을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11 인터넷 언어는 ‘순삭(순간 삭제)’, ‘조아(좋아)’, ‘ㅇㅈ(인정)’처럼 간편하게 쓰기, ‘헿’, ‘헹’, ‘절레절레’처럼 생생하게 쓰기, ‘1도 안 보고 싶은 줄!’, ‘척오!’처럼 재미있게 쓰기 등 어휘를 다양한 형태로 활용한다. 또한 그림말, 사진, 영상 등 시각적, 청각적 요소가 언어의 일부로 활용되므로 인터넷 언어는 정중하고 예의를 갖춘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인터넷 언어는 재미있게 쓰기 위해 ‘머해’, ‘척오!’처럼 의도적으로 글자를 잘못 쓰기도 한다.

② 인터넷 언어는 쉽고 빠른 의사소통을 위해 ‘순삭(순간 삭제)’, ‘꿀잼(꿀재미)’, ‘왜케(왜 이렇게)’처럼 글자를 입력하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 간편하게 쓴다.

④ 인터넷 언어는 간편하게 쓰기 위해 ‘ㅇㅈ(인정)’처럼 초성만 적거나 ‘조아’, ‘보고시퍼’처럼 소리 나는 대로 적기도 한다.

⑤ 인터넷 언어는 ‘헿’, ‘헹!’, ‘절레절레’처럼 의성어나 의태어를 사용하여 감정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한다.

12 그림말, 사진, 영상 등의 시각적, 청각적 요소는 언어의 의미를 더 풍부하게 해 주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에 반해 글은 시각적, 청각적 요소보다 많은 정보를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13 하준의 댓글에 그림말은 쓰이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② 교내 시설을 이용할 때 냉방기와 난방기 작동 시기가 정해져 있어 불편하다는 문제 상황을 명확하게 제기하고, 각 학급에서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함께 제시하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③ 공적인 공간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상황에 맞게 예의를 지키며 글을 작성하였다.

⑤ 읽는 이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건의 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14 윤서의 댓글에서 주장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근거로 제시한 ‘칭구들도 다 힘들다 함.’은 객관적이거나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타당한 근거를 들었다고 보기 어렵다.

- 오답 풀이** ① 급식실 줄이 길다는 불만 사항만 제기할 뿐,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②, ⑤ 건의 게시판이라는 공적인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줄임말 등의 인터넷 언어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였다.
 ④ 예의를 지키지 않고 친구에게 사적으로 대화하듯 글을 썼다.

15 ‘정말 짜증이 납니다.’와 같이 부정적인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은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말로, 공적인 공간에서의 의사소통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다.

16 인터넷 언어를 사용할 때에는 소통 상황과 대상을 고려해야 하며(ㄷ),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ㄴ).

오답 풀이 ㄱ. 인터넷 언어를 사용할 때에는 글자를 입력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기 위해 간편하게 쓸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단어의 첫 글자만 결합하여 줄이기, 초성만 적기, 소리 나는 대로 적기 등 맞춤법에 어긋난 표현을 사용한다. 또한 의도적으로 글자를 잘못 써서 재미있게 표현하기도 한다.

ㄷ. 인터넷 언어에서 사용하는 그림말이나 사진, 영상 등의 시각적, 청각적 요소는 언어의 의미를 더 풍부하게 해 주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인터넷 언어를 사용할 때에는 이러한 시각적, 청각적 요소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1 ⑤ 2 ⑤ 3 ② 4 ⑤

1 '4랑해, 내맘RG, H3llø'는 인터넷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로, 영문자나 숫자를 이용하여 글자를 바꾸어 써서 재미있게 표현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소리 나는 대로 쓴 예로는 '조아', '보고시퍼' 등이 있다.
 ② 같은 음절을 반복한 예로는 '제에에에발' 등이 있다.
 ③ 의성어나 의태어를 사용한 예로는 '헉', '질레질레' 등이 있다.
 ④ 단어의 첫 글자를 결합하여 쓴 예로는 '세젤예(세상에서 제일 예쁜)' 등이 있다.

2 손녀는 할머니가 사용한 '고뽈'이라는 어휘가 '감기'를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고뽈에 걸렸나 보구나."라는 할머니의 말에 "아니요, 그냥 감기예요."라고 답하였다.

오답 풀이 ①, ② 할머니는 '고뽈'이라는 옛날 어른들이 쓰던 말을 사용했을 뿐, 전문어나 줄임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③ 손녀가 할머니가 사용한 '고뽈'이라는 어휘를 이해하지 못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④ 손녀는 '무료하다'라는 노년층이 자주 사용하는 어휘를 사용하였을 뿐, 인터넷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3 줄임말은 청소년층이 자주 사용하는 어휘이다. 이를 세대가 다른 엄마가 이해하지 못하였으므로, 의사소통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까닭은 세대에 따른 어휘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청소년층이 자주 사용하는 새말을 노년층인 할아버지가 이해하지 못하였으므로, 의사소통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낀 까닭은 세대에 따른 어휘의 차이로 볼 수 있다.
 ③ 전문어인 의학 용어를 일반인인 환자가 이해하지 못하였으므로, 의사소통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낀 까닭은 분야에 따른 어휘의 차이로 볼 수 있다.
 ④ 노년층에서 자주 사용하는 한자어를 청소년층인 손자가 이해하지 못하였으므로, 의사소통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낀 까닭은 세대에 따른 어휘의 차이로 볼 수 있다.
 ⑤ 전문어인 미술 용어를 일반인인 관람객이 이해하지 못하였으므로, 의사소통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낀 까닭은 분야에 따른 어휘의 차이로 볼 수 있다.

4 공적인 소통 상황에서 새로 생긴 말을 사용하면 그 새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해당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할 수 있다.

1 세대에 따라 사용하는 어휘에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세대마다 경험한 문화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2 (1) 한자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말(한자어)을 자주 사용하는 세대는 노년층이다. 청소년층은 줄임말, 외래어 등 새말을 자주 사용한다.
 (2) '강녕', '별고'는 노년층에서 자주 사용하는 한자어이다.
 (3) 노년층은 일반적으로 예의를 중시하기 때문에 정중하고 예의를 갖춘 표현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4) 시대의 변화나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는 새말에는 새롭게 등장한 문화나 언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젊은 세대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3 전문어는 주로 외국어나 외래어, 한자어로 이루어진다.

오답 풀이 ①, ② 전문어는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로, 일반인은 그 의미를 알기 어렵다.
 ④, ⑤ 전문어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어휘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드물고, 뜻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므로 해당 분야의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4 일반인은 전문어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해당 분야 외의 일반인과 대화할 때에는 전문어를 쉽게 풀어서 표현해야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5 인터넷 언어는 인터넷 매체의 특성상 대체로 젊은 세대에서 사용하며, 일시적으로 유행하다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오답 풀이 ① 그림말, 사진, 영상 등 시각적, 청각적 요소가 언어의 일부로 활용된다.
 ② 줄임말, 새말 등이 많이 쓰이는 인터넷 언어는 공적 공간보다 친근한 분위기의 사적 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인터넷 언어는 영문자나 숫자를 이용하여 글자를 바꾸어 쓰는 등 기존 언어를 창의적으로 변형하여 쓰기도 한다.
 ④ 인터넷 언어는 글자를 입력하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 쉽고 빠르게 소통하기 위해 초성만 적거나 서술어를 줄이기도 한다.

6 (1) 세대 간에 대화할 때에는 서로 사용하는 어휘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어휘를 사용해야 한다.
 (2) 인터넷 언어를 사용할 때에는 소통 상황과 대상을 고려해야 하며,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 ③ 2 (1) X (2) X (3) O (4) O 3 ③ 4 ⑤
 5 ⑤ 6 (1) O (2) O

- |1단계|** 1 시각적 2 원활하다 3 추측하다
4 손해 5 양상 6 전문어 7 구체적
8 생생하다 9 반영되다 10 의태어 11 청구
12 변론하다 13 분석하다 14 외면 15 자율적
- |2단계|** 1 고별 2 관용 3 매체 4 세대
5 원고 6 요인 7 얼핏 8 어휘 9 추중
10 생동감 11 강녕하다 12 도약하다
13 밀접하다 14 수용하다
- |3단계|** 1 개선 2 분야 3 스스럼없이
4 기성세대 5 단절 6 예 우리는 사흘 뒤에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7 예 상품을 만들 때에는 소비자의 취향을 고려해야 한다. 8 예 밤하늘에 별이 무수히 반짝인다.
9 예 학생 자치회를 중심으로 학교 축제를 기획하였다.
10 예 이 제품은 휴대하기 쉽고 사용이 간편하다.

|1단계|

- 1 **오답 풀이** 청각적: 귀로 듣는.
- 2 **오답 풀이** 무료하다: 흥미 있는 일이 없어 심심하고 지루하다.
- 3 **오답 풀이** 특정하다: 특별히 정하여져 있다.
- 4 **오답 풀이** 과실: 부주의로 인하여, 어떤 결과의 발생을 미리 내다보지 못한 일.
- 5 **오답 풀이** 변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바뀌고 변함.
- 6 **오답 풀이** 유행어: 비교적 짧은 시기에 걸쳐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단어나 구절.
- 7 **오답 풀이** 일시적: 짧은 한때의 것.
- 8 **오답 풀이** 다채롭다: 여러 가지 색채나 형태, 종류 등이 한데 어울리어 화사스럽다.
- 9 **오답 풀이** 어리다: 어떤 현상, 기운, 추억 등이 배어 있거나 은근히 드러나다.
- 10 **오답 풀이** 의성어: 사람이나 사물의 소리를 흉내 낸 말.
- 11 **오답 풀이** 증명: 소송법에서, 법관에게 쟁점이 되는 사실의 있고 없음에 관하여 확신을 얻게 할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노력, 또는 이에 따라 법관이 확신을 얻은 상태.
- 12 **오답 풀이** 기각하다: 소송을 받은 법원이, 심판을 요구한 신청이 형식적으로 필요한 조건은 갖추었으나, 그 내용이 실제적으로 이유가 없다 고 판단하여 소송을 끝마치다.
- 13 **오답 풀이** 여쭙다: 웃어른에게 말씀을 올린다.
- 14 **오답 풀이** 보도: 대중 전달 매체를 통하여 일반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알림. 또는 그 소식.
- 15 **오답 풀이** 의도적: 무엇을 하려고 꾀하는 것.

- 01 ③ 02 ⑤ 03 ⑤ 04 (세대 간의 어휘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05 ⑤ 06 ④
07 ① 08 ① 09 ④

01 이 뉴스 보도에서는 새말의 긍정적인 측면을 설명하면서 '일시적으로 유행하다가 빠르게 사라지는 말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새말의 유행 과정, 즉 새말이 어떻게 확산되어 정착되거나 사라지는지에 관하여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사용하는 언어의 차이에 대해 다루고 있다.

② (나)에서 '사흘간', '별고', '무료하다'와 같이 기성세대가 자주 쓰는 말의 예와 '볼매', '알잘딱깔센', '국룰'과 같이 젊은 세대가 자주 쓰는 말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④ (다)에서 전문가의 견해를 통해 우리의 언어를 다채롭고 풍성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새말의 긍정적 측면과, 일시적으로 유행하다가 빠르게 사라지는 말들은 언어의 다양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새말의 부정적 측면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⑤ (나)에서 초등학생과 어른들이 세대가 달라 서로가 자주 사용하는 어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실태를 보여 주고 있다.

02 세대별 언어적 특성은 모든 세대에서 나타난다. 청소년층이 줄임말이나 외래어 등 새말을 자주 사용하는 언어적 특성을 보이는 것처럼 노년층 역시 한자어나 예의를 갖춘 표현 등을 자주 사용하는 언어적 특성을 보인다.

03 (다)에서 새말은 우리의 언어를 다채롭고 풍성하게 만들어 줄 수 있지만, 일시적으로 유행하다가 빠르게 사라지는 말들은 언어의 다양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 '떡방'은 현재까지도 널리 쓰이는 새말로 우리말의 다양성에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으나, ㉢ '안습'은 이전에 일시적으로 유행하다가 지금은 잘 쓰이지 않는 말로, 우리 언어문화의 다양성에 크게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떡방', '셀카'와 같은 말은 현재까지 꾸준히 사용되는 새말로, 우리의 언어를 다채롭고 풍성하게 만들어 준다.

② '안구에 습기가 차다'라는 의미의 '안습'은 안타깝거나 불쌍하여 눈물이 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로, 잠시 유행하다가 지금은 사라져 잘 쓰이지 않는다.

③ '떡방', '안습'은 젊은 세대들이 새롭게 등장하는 문화나 언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만든 새말에 해당한다.

④ '떡방', '안습'과 같은 새말은 그 말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과 같은 기성세대가 이해하기 어렵다.

04 세대 간 사용하는 어휘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의사소통의 단절은 세대 간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세대 간 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대별 어휘의 차이를 인정하고, 관용적인 태도로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고 배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라)의 빈칸에 서로 다른 세대가 소통할 때 지녀야 할 바람직한 태도와 관련한 내용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

05 밑줄 친 어휘는 법률 분야의 전문어로, 법률 분야의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준다.

- 오답 풀이** ① 특정 세대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은 세대별 어휘이다.
 ② 매체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변이되는 말은 인터넷 매체가 등장하면서 나타난 인터넷 언어이다.
 ③ 집단의 비밀 유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말은 은어이다.
 ④ 해당 분야 외의 일반인은 전문어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다.

06 전문어는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쓰는 말로(ㄴ), 다의성이 적기 때문에 명확하고 세부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전달한다(ㄹ).

- 오답 풀이** ㄱ. 전문어는 고유어보다 외국어나 외래어, 한자어가 많이 쓰인다.
 ㄴ. 전문어는 하나의 어휘가 한 가지의 뜻을 지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07 학생회 회의 등과 같이 공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인터넷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공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는 정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위해 정중하고 예의를 갖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오답 풀이** ② 인터넷 언어는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나 온라인 대화방 등에서 쓰인다.
 ③ 인터넷상에서 그림말, 사진, 영상 등 시각적, 청각적 요소를 언어의 일부로 활용하면 언어의 의미를 더 풍부하게 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
 ④ 인터넷 언어를 사용할 때에는 간편하게 쓰기, 생생하게 쓰기, 재미있게 쓰기 등 어휘를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⑤ 인터넷 언어를 사용할 때에는 소통 상황과 대상을 고려해야 하고,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08 시무룩하거나 속상함을 표현하는 ‘헿’이나 냄새 맡는 것을 표현하는 ‘쿵쿵’은 소리를 흉내 내는 말이므로, 의성어나 의태어를 사용하는 ㉠ ‘생생하게 쓰기’의 예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② ‘조아’는 ‘좋아’를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고, ‘ㄴㄴ’은 초성만 적은 것이므로 ‘간편하게 쓰기’의 예로 볼 수 있다.
 ③ ‘후다닥’, ‘부들부들’은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 낸 의태어이므로, ‘생생하게 쓰기’의 예로 볼 수 있다.
 ④ ‘싫어어어’, ‘빼애애애액’은 음절을 반복한 것이므로, ‘생생하게 쓰기’의 예로 볼 수 있다.
 ⑤ ‘머해’는 ‘뭐해’를 의도적으로 글자를 잘못 쓴 것이고, ‘1도 안 보고 싶은 줄’은 숫자를 이용하여 글자를 바꾸어 쓴 것이므로 ‘재미있게 쓰기’의 예로 볼 수 있다.

09 집단이나 사회에 따라 사용하는 어휘에 차이가 나타나는 까닭은 집단이나 사회마다 경험한 문화와 환경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 따라서 집단이나 사회에 따라 나타나는 어휘의 차이를 없애는 것은 어렵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어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단원 평가
182~187쪽

01 ⑤ **02** ① **03** (1): 작은형 / 만 / 주먹밥 / 을 / 먹었다 (2): 작- / -은 / 형 / 만 / 주먹 / 밥 / 을 / 먹- / -었- / -다 **04** ⑤ **05** ③ **06** ① **07** 자립 형태소는 ‘가을, 바람’이고, 의존 형태소는 ‘이, 차-, -다’이다.

08 ② **09** ⑤ **10** ③ **11** ④ **12** ③
13 ③ **14** ③ **15** ④ **16** ⑤ **17** ③
18 ② **19** ⑤ **20** ② **21** ① **22** ②
23 접사 ‘막-’은 ‘마지막’의 뜻을 더한다. **24** ④
25 사회가 변화하면서 생겨난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26** ⑤ **27** ① **28** ② **29** ③
30 ② **31** 청소년층은 줄임말이나 외래어 등 새말을 자주 사용하는 반면에, 노년층은 한자어와 예의를 갖춘 표현 등을 자주 사용한다. **32** ③ **33** ④ **34** ⑤ **35** ⑤
36 전문가(수의사)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어를 쉽게 풀어서 표현한다. **37** ④ **38** 그림말, 사진, 영상 등의 시각적, 청각적 요소를 활용하여 언어의 의미를 더 풍부하게 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다. **39** ①

01 조사는 홀로 쓰일 수 없지만 홀로 쓸 수 있는 말에 붙어 앞말과 쉽게 분리되기 때문에 단어로 인정하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태소로도 인정한다.

- 오답 풀이** ① 단어는 홀로 쓰일 수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이다.
 ② ‘강’, ‘산’, ‘보다’, ‘오다’, ‘감나무’, ‘손수건’ 등과 같이 단어는 하나 이상의 형태소로 구성된다.
 ③, ④ 형태소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로, 더 나누면 본래의 뜻이 사라지거나 본래의 뜻과는 관계없는 말이 되어서 더 나눌 수 없다.

02 단어는 홀로 쓰일 수 있거나, 홀로 쓸 수 있는 말에 붙어 앞말과 쉽게 분리되는 말(조사)이다. ‘이’는 조사이고, ‘아주’는 뒤의 용언을 꾸며 주는 부사로 단어에 해당한다. ‘똥-’과 같은 접사, ‘시-’와 같은 용언의 어간, ‘-다’와 같은 용언의 어미는 단어에 해당하지 않는다.

03 ‘작은형만 주먹밥을 먹었다.’를 단어, 즉 홀로 쓰일 수 있거나, 홀로 쓸 수 있는 말에 붙어 앞말과 쉽게 분리되는 말(조사)로 나누면 ‘작은형 / 만 / 주먹밥 / 을 / 먹었다’로 분석할 수 있다. ‘작은형만 주먹밥을 먹었다.’를 형태소, 즉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로 나누면 ‘작- / -은 / 형 / 만 / 주먹 / 밥 / 을 / 먹- / -었- / -다’로 분석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제시된 문장을 단어로 바르게 나누어 서술하였다.	☐
제시된 문장을 형태소로 바르게 나누어 서술하였다.	☐

04 ⑤ ‘예쁜 / 꽃 / 이 / 집 / 뒤뜰 / 에 / 활짝 / 피었구나’와 같이 8개의 단어로 구성된 문장이다.

오답 풀이 ① ‘하늘 / 은 / 푸르다’와 같이 3개의 단어로 구성되었다.
 ② ‘아기 / 가 / 방긋 / 웃는다’와 같이 4개의 단어로 구성되었다.
 ③ ‘철수 / 는 / 반장 / 에 / 당선되었다’와 같이 5개의 단어로 구성되었다.
 ④ ‘남편 / 도 / 사과 / 를 / 정말 / 좋아합니다’와 같이 6개의 단어로 구성되었다.

05 ③ ‘고드름’과 같이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는 더 나누면 ‘고드름’이라는 단어가 지닌 뜻이 사라지거나, 본래의 뜻과는 관계없는 말이 되어서 더 나눌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들-’, ‘벌’의 2개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② ‘종이’, ‘컵’의 2개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④ ‘마음’, ‘가자-’, ‘-ㅁ’의 3개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⑤ ‘모래’, ‘바람’의 2개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06 ① ‘본다’는 동사의 어간 ‘보-’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과 종결 어미 ‘-다’가 결합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명 + 들- + -다’와 같이 분석할 수 있다.
 ③ ‘바닥 + 굴’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④ ‘색 + 종이’와 같이 분석할 수 있다.
 ⑤ ‘코 + 흘러- + -개’와 같이 분석할 수 있다.

07 형태소는 자립성 여부에 따라 홀로 쓰일 수 있는 자립 형태소와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이는 의존 형태소로 나뉜다. 제시된 문장에서 자립 형태소는 ‘가을’, ‘바람’이고, 의존 형태소는 ‘이’, ‘차-’, ‘-다’이다.

평가 기준	확인 ☒
제시된 문장을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바르게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
제시된 문장 형식에 맞게 서술하였다.	☐

08 ② ‘날개’는 어근(동사의 어간) ‘날-’에 접미사 ‘-개’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용언의 어간 및 접사는 각각 용언의 어미 및 어근과 결합하지 않으면 홀로 쓰일 수 없는 의존 형태소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옆+집’으로, ‘옆’, ‘집’ 모두 홀로 쓰일 수 있는 자립 형태소이다.

③ ‘병+따-+-개’로, ‘병’은 자립 형태소이다.
 ④ ‘생+고기’로, ‘고기’는 자립 형태소이다.
 ⑤ ‘잔-+소리+-꾼’으로, ‘소리’는 자립 형태소이다.

09 홀로 쓰일 수 없어 다른 말에 꼭 붙어서 쓰이는 형태소는 의존 형태소이다. ‘먹었다’에 쓰인 의존 형태소는 ‘먹-, -었-, -다’이다.

오답 풀이 ① ‘나는’에서 ‘나’는 자립 형태소, ‘는’은 의존 형태소이다.
 ② ‘어제’에서 ‘어제’는 자립 형태소이다. 의존 형태소는 쓰이지 않았다.
 ③ ‘동생과’에서 ‘동생’은 자립 형태소, ‘과’는 의존 형태소이다.
 ④ ‘햇밤을’에서 ‘밤’은 자립 형태소, ‘햇-’, ‘을’은 의존 형태소이다.

10 ‘바늘구멍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온다.’를 형태소로 나누면 ‘바늘 / 구멍 / 으로 / 황소 / 바람 / 이 / 들- / -어 / 오- / -ㄴ- / -다’이다. 이중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실질 형태소는 ‘바늘’, ‘구멍’, ‘황소’, ‘바람’, ‘들-’, ‘오-’이며, 이 중에서 홀로 쓰일 수 있는 자립 형태소는 ‘바늘’, ‘구멍’, ‘황소’, ‘바람’의 4개이다.

11 ④ ‘눈꽃바람’은 ‘눈+꽃+바람’으로 구성된다. ‘눈’, ‘꽃’, ‘바람’은 모두 실제적인 의미가 있는 실질 형태소이므로 3개의 실질 형태소가 쓰였다.

오답 풀이 ① ‘밤+낮’으로 구성되며, 2개의 실질 형태소가 쓰였다.
 ② ‘무지개’는 1개의 실질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③ ‘뜻-+사과’로 구성되며, 1개의 실질 형태소가 쓰였다.
 ⑤ ‘아지랑이’는 1개의 실질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12 ㉠에 들어갈 형태소는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이는 의존 형태소이고, ㉡에 들어갈 형태소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실질 형태소이다. ‘누나가 김밥을 먹었다.’에서 의존 형태소는 ‘가, 을, 먹-, -었-, -다’이며 이 중에서 실질 형태소는 ‘먹-’이다.

13 단어의 구성 요소 중,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은 접사가 아니라 어근이다. 접사는 어근에 붙어 그 뜻을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오답 풀이 ① 어근은 홀로 쓰일 수 있으나 접사는 홀로 단어를 이루지 못하고 어근과 결합하여 단어를 이룬다.
 ② 접사는 어근이나 단어의 앞에 붙는 접두사와 어근이나 단어의 뒤에 붙는 접미사로 나뉜다.
 ④ 접사는 어근과 결합하여 파생어를 만든다.
 ⑤ ‘뜻-’은 ‘처음 나온’, 또는 ‘덜 익은’의 뜻을 더하기도 하고, ‘미숙한’, ‘깊지 않은’의 뜻을 더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하나의 접사가 여러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14 ③ ‘한겨울’은 ‘한-+겨울’로, ‘정확한’ 또는 ‘한창인’의 뜻을 더하는 접사 ‘한-’과 어근 ‘겨울’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오답 풀이 ① ‘며느리’는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이다.
 ② ‘부채(어근)+-질(접사)’로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④ ‘금(어근)+가루(어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⑤ ‘욕심(어근)+-쟁이(접사)’로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15 '나무'는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이다. ④ '불우물'은 어근 '불'과 어근 '우물'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16 ⑤ '보다'는 동사(용언)의 어간 '보-'와 어미 '-다'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로, 접사나 또 다른 어근이 결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에 해당한다.

17 둘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를 복합어라고 하며, 복합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합성어와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파생어로 나뉜다. ③ '너비아니'는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이다.

오답 풀이 ① '김(어근)+밥(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② '동태(어근)+탕(접사)'으로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④ '돼지(어근)+갈비(어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⑤ '잔치(어근)+국수(어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18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는 합성어이다. ② '달나라', '꽃망울'은 각각 '달(어근)+나라(어근)', '꽃(어근)+망울(어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오답 풀이 ① '보름', '새벽'은 각각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이다.
 ③ '오가다'는 '오다(어근)+가다(어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지만, '깨뜨리다'는 '깨다(어근)+뜨리다(접사)'로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④ '거느리다'는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이다. '돌아가다'는 '돌다(어근)+가다(어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⑤ '들쭉시다', '짓누르다'는 각각 '들-(접사)+쭉시다(어근)', '짓-(접사)+누르다(어근)'로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19 '또다시(또+다시)', '손수건(손+수건)', '산나물(산+나물)', '날아오르다(날다+오르다)'는 모두 어근과 어근, 즉 둘 이상의 실질 형태소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오답 풀이 ①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는 단일어이다.
 ② 접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는 파생어이다. 일부 접사는 어근과 결합하면서 그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
 ③, ④ '또다시(또+다시)', '손수건(손+수건)', '산나물(산+나물)'은 홀로 쓰일 수 있는 자립 형태소끼리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이고, '날아오르다(날-+아+오르-+다)'는 의존 형태소끼리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이다.

20 파생의 방법으로 형성된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이다. ② '도량을 쟁충 건너뛰었다.'에는 접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파생어가 쓰이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파생어 '잔-(접사)+물결(어근)'이 쓰였다.
 ③ 파생어 '옛-(접사)+보다(어근)'가 쓰였다.
 ④ 파생어 '망치(어근)+질(접사)'이 쓰였다.
 ⑤ 파생어 '장난(어근)+꾸러기(접사)'가 쓰였다.

21 '마구' 또는 '매우 심하게'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는 '휘-'이고, '그것이 나타내는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는 '-쟁이'이다. '헛-'은 '이유 없는', '보람 없는' 또는 '보람 없이', '잘

못'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고, '-장이'는 '그것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며, '-꾸러기'는 '그것이 심하거나 많은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22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단어는 '검은 구름'이라는 뜻을 짐작할 수 있는 파생어이다. 이에 해당하는 단어는 검은 빛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먹-'과 어근 '구름'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먹구름'이다.

오답 풀이 ① '눌(노을)+구름'으로, 단어의 짜임으로는 '검은 구름'이라는 뜻을 짐작할 수 없으며, '어근+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③ '비+구름'으로, 단어의 짜임으로는 '검은 구름'이라는 뜻을 짐작할 수 있지만, '어근+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④ '먹장+구름'으로, 단어의 짜임으로는 '검은 구름'이라는 뜻을 짐작할 수 있지만, '어근+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⑤ '몽게(몽게몽게)+구름'으로, 단어의 짜임으로는 '검은 구름'이라는 뜻을 짐작할 수 없으며, '어근+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23 '막차'는 '그날 마지막으로 오거나 가는 차'를, '막판'은 '어떤 일의 끝이 되는 판'을 뜻하는 파생어이다. 두 단어의 뜻으로 미루어 보아 접사 '막-'은 어근과 결합하여 '마지막'의 뜻을 더한다.

평가 기준	확인 ☒
두 단어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접사 '막-'의 의미를 바르게 서술하였다.	☐
내용을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24 '오저치고?', '쿠크다스 멘탈'과 같이 재미 위주로 무분별하게 만들어지는 새말은 우리말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어렵게 만들고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해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5 '스미싱', '율로', '팬데믹', '챗봇' 등은 사회가 변화하면서 생겨난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을 표현하려고 새로 만든 말인 새말의 예로 볼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주어진 새말이 생성되는 까닭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

26 '열린 쉽터'는 외국에서 가져온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라는 새말을 우리말로 다듬은 말이다.

27 '눈팅(눈+채팅)'은 우리말과 외래어를 결합하여 만든 새말(㉓)에 해당하고, '냉삼(냉동+삼겹살)'은 단어의 첫 글자를 결합하여 만든 새말(㉔)에 해당하며, '라볶이(라면+떡볶이)'는 단어의 일부를 따서 결합하여 만든 새말(㉕)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② '빵집(빵+집)'은 우리말끼리 결합하여 만든 새말이고, '컴맹(컴퓨터+문맹)'은 ㉔에 해당하며, '오운완(오늘+운동+완료)'은 ㉔에 해당한다.
 ③ '헬스장(헬스+장)'은 ㉓에 해당하고, '치맥(치킨+맥주)'과 '갑분싸(갑자기+분위기가 싸해짐)'는 ㉔에 해당한다.

④ '쇼핑센터(쇼핑+센터), 롤 모델(롤+모델), 후드 티(후드+티)'는 모두 외국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쓰는 외래어이며 외래어끼리 결합하여 만든 새말이다.

⑤ '놀이공원(놀이+공원)'은 우리말끼리 결합하여 만든 새말이고, '아침(아침+점심)'은 ⑥에 해당하며, '캘리그래피'는 외국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쓰는 외래어에 해당한다.

28 '배타적'은 남을 배척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한 집단과 사회의 언어를 대할 때에는 서로의 차이를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배타적인 태도가 아니라 관용적인 태도를 지녀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세대마다 경험한 문화나 환경이 달라 서로 사용하는 어휘에도 차이가 생긴다.

③ 각 분야마다 해당 분야의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문어가 있다.

④ 인터넷 매체가 등장하면서 매체의 특성에 따라 어휘가 다양하게 변이되기도 한다.

⑤ 다양한 집단과 사회의 언어를 대할 때에는 각자 자주 사용하는 어휘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해야 한다.

29 제시된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까닭은 할머니가 젊은 세대가 이해하기 힘든 어휘(고뿔)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즉, 세대마다 사용하는 어휘나 표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0 청소년층은 줄임말이나 외래어 등 새말을 자주 사용한다. ② '별고(別故)'는 특별한 사고를 뜻하는 한자어로, 노년층에서 자주 사용하는 어휘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국룰'은 '보편적으로 정해진 규칙'을 뜻하는 새말이다.

③ '소확행'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줄임말이다.

④ '리스펙(respect)'은 '존경, 인정'을 뜻하는 외래어이다.

⑤ '알잘딱깔센'은 '알아서 잘 짤 잘 깔끔하고 센스 있게'의 줄임말이다.

31 ㉠에서 청소년층은 '퀄리티', '볼매' 등과 같은 외래어나 줄임말 등 새말을 사용하고 있다. ㉡의 노년층은 '수려(秀麗)하다', '과찬(過讚)' 등과 같은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고, '좋습니다', '모자랍니다'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정중하고 예의를 갖추어 말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주어진 대화를 참고하여 청소년층과 노인층이 사용하는 어휘의 특성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
주어진 문장 형식에 맞게 서술하였다.	☐

32 세대 간에 대화할 때에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어휘를 사용해야 한다. ③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있다.'는 노년층이 자주 사용하는 어휘 대신 청소년층이 이해할 수 있는 어휘를 사용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초나홀날', '증조부', '기일' 등 청소년층이 이해하기 어려운 어휘를 사용하였다.

② '고뿔', '강건하다' 등 청소년층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였다.

④ '조부', '출타하다' 등 청소년층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였다.

⑤ '추렴하다', '고희연' 등 청소년층이 이해하기 어려운 어휘를 사용하였다.

33 새말은 새롭게 등장하는 문화나 언어를 표현하며 우리의 언어를 다채롭고 풍성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하지만 새말 중에는 일시적으로 유행하다가 빠르게 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말들은 언어의 다양성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34 "경기 중계방송을 보는데, 외국어로 된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경기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전문어를 사용하면 해당 분야 외의 일반인들이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35 <보기>의 밑줄 친 어휘는 음악 분야에서 특별한 뜻으로 쓰이는 전문어이다. 외부에 알려지면 다른 말로 변경되는 특성을 갖는 어휘는 특정 집단 내에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자기들끼리 사용하는 '은어'이다.

36 제시된 대화에서 고객이 수의사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 이유는 수의사가 '거품병'이라는 전문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는 일반인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문어를 쉽게 풀어서 말하고, 일반인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자주 확인해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전문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일반인이 대화할 때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
주어진 문장 형식에 맞게 서술하였다.	☐

37 인터넷 언어는 생생하게 쓰기 위해 의성어나 의태어를 사용하는데, 제시된 대화에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 낸 의태어는 쓰이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재미있게 쓰기 위해 '머해(뭐 해)'와 같이 의도적으로 글자를 잘못 쓰고 있다.

② 재미있게 쓰기 위해 '도 안 보고 싶은 줄!'과 같이 숫자를 이용하여 글자를 바꾸어 쓰고 있다.

③, ⑤ 간편하게, 즉 글자를 입력하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 빠르고 쉽게 쓰기 위해 '순삭(순식간에 삭제)', '왜게(왜 이렇게)', '꿀잼(꿀재미)'와 같이 줄여 쓰거나, '조아(좋아)', '보고시퍼(보고 싶어)'와 같이 소리 나는 대로 적고 있다.

38 이 대화에서 언어의 일부로 활용된 요소는 '그림말, 사진, 영상' 등의 시각적, 청각적 요소이다. 이와 같은 시각적, 청각적 요소를 활용하면 언어의 의미를 더 풍부하게 해 주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주어진 대화에서 언어의 일부로 활용된 요소를 밝히고, 그 표현 효과를 바르게 서술하였다.	☐
주어진 문장 형식에 맞게 서술하였다.	☐

39 윤서와 달리 하준은 학생 자치회에 건의 사항을 올리는 공적인 공간임을 고려하여 예의를 지키며 글을 썼다.

- 오답 풀이** ② 하준과 달리 윤서는 모두가 함께 보는 공간이므로 언어 사용에 주의하라는 게시판의 규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
 ③ 하준과 달리 윤서는 예의를 지키지 않고 글을 썼다.
 ④ 하준에 비해 윤서의 댓글에는 급식실 줄이 길다는 불만 사항만 나타날 뿐, 건의 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하준과 달리 윤서는 인터넷 언어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한 걸음 더 서술형 문제

188~189쪽

01 ㉠: 홀로 쓰일 수 있는 가장 작은 말 ㉡: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 ㉢: 동생 / 이 / 노래 / 를 / 부른다 ㉣: 동생 / 이 / 노래 / 를 / 부르- / -ㄴ- / -다 02 형태소의 분류 기준은 자립성의 유무와 실질적 의미의 유무이다. 이 문장을 구성하는 실질 형태소는 '농부', '들', '벼', '거두-', '있-'이고, 형식 형태소는 '가', '에서', '햇-', '를', '-고', '-다'이다. 03 접사 '뜻-'은 '뜻감'과 같이 '덜 익은'의 뜻을 더하거나 '뜻사랑'과 같이 '미숙한'의 뜻을 더하거나 '뜻잠'과 같이 '깊지 않은'의 뜻을 더한다. 04 '밤나무'는 어근 '밤'과 '나무'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합성어이고, '햇밤'은 접사 '햇-'과 어근 '밤'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05 모르는 단어의 의미를 짐작하여 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06 ㉠는 합성어나 파생처럼 기존의 단어 형성 방법으로 만든 새말인 반면에, ㉡는 단어의 첫 글자를 결합하는 등 새로운 단어 형성 방법으로 만든 새말이다. 07 노년층은 주로 한자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말과 예의를 갖춘 표현을 사용한다. 08 이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까닭은 손자가 사용한 줄임말을 할아버지가 잘못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세대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어휘를 사용해야 한다. 09 전문어는 해당 분야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장점이 있으나, 일반인과 대화할 때에는 전문어를 쉽게 풀어서 표현해야 한다. 10 '머해~(뭐 해)'와 같이 의도적으로 글자를 잘못 쓴다. / '순삭'과 같이 글자를 줄여서 쓴다. / '힘~'과 같이 의성어를 사용한다. / '1도 안 보고 싶은 줄'과 같이 숫자를 이용하여 글자를 바꾸어 쓴다. / 그림말, 사진 등 시각적 요소를 활용한다.

01 단어는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 또는 홀로 쓸 수 있는 말에 붙어 앞말과 쉽게 분리되는 말이고, 형태소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이다. '동생이 노래를 부른다.'를 단어로 나누면 '동생 / 이 / 노래 / 를 / 부른다(㉢)'이고, 형태소로 나누면 '동생 / 이 / 노래 / 를 / 부르- / -ㄴ- / -다(㉣)'이다.

평가 기준

- 상 ㉠~㉣에 들어갈 말을 모두 바르게 서술하였다.
 중 ㉠~㉣에 들어갈 말 중 2~3개만 바르게 서술하였다.
 하 ㉠~㉣에 들어갈 말 중 1개만 바르게 서술하였다.

02 형태소는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 홀로 쓰일 수 있는 자립 형태소와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이는 의존 형태소로 나뉘고, 실질적 의미의 유무에 따라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실질 형태소와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형식 형태소로 나뉜다. '농부가 들에서 햇벼를 거두고 있다.'를 구성하는 실질 형태소는 '농부', '들', '벼', '거두-', '있-'이고, 형식 형태소는 '가', '에서', '햇-', '를', '-고', '-다'이다.

평가 기준

- 상 형태소의 두 가지 분류 기준을 제시하고, 주어진 문장의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를 바르게 분석하였다.
 중 주어진 문장의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를 바르게 분석하였으나, 형태소의 두 가지 분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하 형태소의 두 가지 분류 기준을 제시하였으나, 주어진 문장의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를 바르게 분석하지 못하였다.

03 접사 '뜻-'은 '처음 나온', 또는 '덜 익은'의 뜻을 더하고, '미숙한', '깊지 않은'의 뜻을 더한다.

평가 기준

- 상 접사 '뜻-'의 의미를 세 가지 모두 서술하였다.
 중 접사 '뜻-'의 의미를 두 가지만 서술하였다.
 하 접사 '뜻-'의 의미를 한 가지만 서술하였다.

04 '밤나무'는 '밤(어근)+나무(어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고, '햇밤'은 '햇-(접사)+밤(어근)'으로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평가 기준

- 상 두 단어의 단어 형성 방법을, 단어의 짜임을 밝혀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중 두 단어의 단어 형성 방법을 서술하였으나, 단어의 짜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하 두 단어 중 한 단어의 단어 형성 방법만 서술하였다.

05 글을 읽으며 모르는 단어가 생겼을 때, 단어의 짜임을 알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해하며 단어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고, 나아가 짐작한 단어의 의미를 바탕으로 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평가 기준

- 상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단어의 짜임을 알면 좋은 점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 Ⓢ <조건> 중 한 가지만 충족하여 단어의 짜임을 알면 좋은 점을 서술하였다.
- Ⓜ <조건>과 관계없이 단어의 짜임을 알면 좋은 점을 서술하였다.

06 ‘반려(어근)+동물(어근)’, ‘누리(어근)+꾼(접사)’은 합성이나 파생처럼 기존의 단어 형성 방법으로 만든 새말이고, ‘감다살(감다 살았네)’, ‘스불재(스스로 불러온 재앙)’는 단어의 첫 글자를 결합하는 등 새로운 단어 형성 방법으로 만든 새말이다.

평가 기준

- Ⓢ 주어진 문장 형식에 맞게 ㉓와 ㉔의 새말 형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 Ⓜ ㉓와 ㉔의 새말 형성 방법을 서술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거나 주어진 문장 형식에 맞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 Ⓜ ㉓와 ㉔ 중 하나의 새말 형성 방법만 서술하였다.

07 <보기>에서는 ‘특별한 사고’를 뜻하는 ‘별고(別故)’, ‘흥미 있는 일이 없어 심심하고 지루하다.’를 뜻하는 ‘무료(無聊)하다’와 같은 한자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말을 사용하고 있으며, ‘땀’, ‘없으세요’와 같이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노년층은 한자어와 예의를 갖춘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 Ⓢ 주어진 문장 형식에 맞게 <보기>에 나타난 노년층 어휘의 특성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 Ⓜ <보기>에 나타난 노년층 어휘의 특성을 바르게 서술하였으나, 주어진 문장 형식에 맞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 Ⓜ <보기>에 나타난 노년층 어휘의 특성을 바르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08 세대마다 경험한 문화와 환경이 달라 서로 사용하는 어휘에도 차이가 생긴다. 주어진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까닭은 손자가 사용한 줄임말 ‘생선(생일 선물)’을 할아버지가 물고기 ‘생선’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대 간 소통할 때에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어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가 기준

- Ⓢ 주어진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까닭을 밝히고, 세대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바람직한 태도를 서술하였다.
- Ⓜ 세대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바람직한 태도를 서술하였으나, 주어진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까닭을 밝히지 못하였다.
- Ⓜ 주어진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까닭을 밝혔으나, 세대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바람직한 태도를 서술하지 못하였다.

09 전문어는 뜻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므로, 해당 분야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해당 분야 외의 일반인은 전문어의 의미를 알기 어려우므로, 일반인과 대화할 때에는 전문어를 쉽게 풀어서 표현해야 한다.

평가 기준

- Ⓢ 전문어의 장점과 사용 시 주의점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였다.
- Ⓜ 전문어의 장점과 사용 시 주의점을 서술하였으나, 주어진 문장 형식에 맞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 Ⓜ 전문어의 장점과 사용 시 주의점 중 하나만 서술하였다.

10 인터넷 언어는 간편하게 쓰기, 생생하게 쓰기, 글자를 재미있게 표현하기 등 어휘를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며, 그림말, 사진, 영상 등 시각적, 청각적 요소를 언어의 일부로 활용한다.

평가 기준

- Ⓢ 주어진 대화에 쓰인 예와 함께 인터넷 언어의 특성을 세 가지 이상 서술하였다.
- Ⓜ 주어진 대화에 쓰인 예와 함께 인터넷 언어의 특성을 두 가지만 서술하였다.
- Ⓜ 주어진 대화에 쓰인 예와 함께 인터넷 언어의 특성을 한 가지만 서술하였다.

한 걸음 더 고득점 문제

190~191쪽

01 ③	02 ⑤	03 ②	04 ⑤	05 ①
06 ④	07 ④	08 ⑤	09 ②	10 ②
11 ①				

01 단어는 홀로 쓰일 수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이다. ‘주먹, 밥’과 같이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일어의 경우에는 단어가 곧 형태소가 되고(ㅁ), ‘손수건(손+수건), 건너다(건너+다)’와 같이 둘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복합어의 경우에는 더 작은 문법 단위인 형태소로 나눌 수 있다(ㄴ). 형태소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로, 의미상 더 나눌 수 없으며 단어의 뜻을 구성하는 실질적인 의미를 담당하거나 문법적인 기능을 수행한다(ㄷ).

오답 풀이 ㄱ. 언어에서 의미를 나타내는 최소한의 구성 요소는 형태소이다.

ㄴ. 단어로 인정하는 조사는 붙여 쓰므로 단어를 연결할 때 반드시 띄어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

02 ‘진짜로’는 자립 형태소인 ‘진짜(명사)’와 의존 형태소인 ‘로(조사)’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오답 풀이 ① 조사는 단어이지만 홀로 쓰일 수 없으므로, 자립성이 있는 단어는 ‘들국화’, ‘진짜’, ‘예쁘게’, ‘피었구나’와 같이 총 4개이다.

② ‘파+--+구나’로 형태소의 개수는 총 3개이다.

③ ‘들-(접사)+국화(어근)’로 구성된 파생어로, ‘들-’은 홀로 쓰일 수 없는 의존 형태소이다.

④ ‘예쁘-(어간)+-게(어미)’로 구성된 단일어로, 형용사 어간 ‘예쁘-’는 실질 형태소이지만 부사형 어미 ‘-게’는 형식 형태소이다.

03 ‘날-(날다, 어근)+-개(접사)’, ‘날-(접사)+고기(어근)’로 구성된 단어로, 모두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 오답 풀이** ① ‘올벼(올+벼)’는 파생어이지만, ‘올가미’는 단일어이다.
 ③ ‘막차(막+차)’는 파생어이지만, ‘막대기’는 단일어이다.
 ④ ‘군살(군+살)’은 파생어이지만, ‘군고구마(군다+고구마)’는 합성어이다.
 ⑤ ‘돌조개(돌+조개)’는 파생어이지만, ‘돌머리(돌+머리)’는 합성어이다.

04 명사 ‘간판’에 접미사 ‘-장이’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간판장이’도 명사로, 품사가 바뀌지 않는다.

- 오답 풀이** ① 동사 ‘추다’가 접미사 ‘-ㅁ’과 결합하여 명사로 품사가 바뀐다.
 ② 형용사 ‘넓다’가 접미사 ‘-이’와 결합하여 명사로 품사가 바뀐다.
 ③ 부사 ‘빠꼭’이 접미사 ‘-이’와 결합하여 명사로 품사가 바뀐다.
 ④ 명사 ‘공부’가 접미사 ‘-하다’와 결합하여 동사로 품사가 바뀐다.

05 ‘손발’은 ‘손과 발’처럼 어근이 대등하게 본래의 뜻을 유지하는 대등 합성어이면서, 어근 ‘손’과 ‘발’이 하나로 합쳐져서 새로운 의미(마음대로 부리는 사람)가 만들어지는 융합 합성어이다. ‘손가방(손에 들고 다니는 가방)’은 한쪽의 어근 ‘손’이 다른 한쪽의 어근 ‘가방’을 수식하는 종속 합성어이다. ‘춘추’는 ‘봄과 가을’처럼 어근이 대등하게 본래의 뜻을 유지하는 대등 합성어이면서, 어근 ‘춘(봄)’과 ‘추(가을)’가 하나로 합쳐져서 새로운 의미(어른의 나이)가 만들어지는 융합 합성어이다.

- 오답 풀이** ② ‘논밭(논+밭)’, ‘오가다(오다+가다)’는 대등 합성어이고, ‘밤낮’은 ‘밤과 낮’처럼 어근이 대등하게 본래의 뜻을 유지하는 대등 합성어이면서 어근 ‘밤’과 ‘낮’이 하나로 합쳐져서 새로운 의미(늘)가 만들어지는 융합 합성어이다.
 ③ ‘손발’은 ‘손과 발’의 본래의 뜻일 때에는 대등 합성어, ‘마음대로 부리는 사람’의 새로운 의미일 때에는 융합 합성어이고, ‘손가방(손에 들고 다니는 가방)’은 종속 합성어이다.
 ④ ‘밤낮’은 ‘밤과 낮’의 본래의 뜻일 때에는 대등 합성어, ‘늘’이라는 새로운 의미일 때에는 융합 합성어이다. ‘피땀’은 ‘피와 땀’처럼 어근이 대등하게 본래의 뜻을 유지하는 대등 합성어이면서, 어근 ‘피’와 ‘땀’이 하나로 합쳐져서 새로운 의미(노력과 정성)가 만들어지는 융합 합성어이다. ‘오가다(오다+가다)’는 대등 합성어이다.
 ⑤ ‘콩국수(콩으로 만든 국수)’, ‘산나물(산에서 나는 나물)’은 종속 합성어이고, ‘주고받다(주다+받다)’는 대등 합성어이다.

06 ‘곧+바로’는 ‘곧바로’로 어근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형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① ‘말+소’는 ‘ㄹ’이 탈락되어 ‘마소’가 된다.
 ② ‘조+쌀’은 ‘ㅂ’이 첨가되어 ‘좁쌀’이 된다.
 ③ ‘나무+잎’은 ‘ㅅ’이 첨가되어 ‘나뭇잎’이 된다.
 ⑤ ‘울다+짓다’는 ‘ㄹ’이 탈락되어 ‘우짓다’가 된다.

07 ‘강녕하다’는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뜻이므로, 몸이 아픈 환자에게 건네기에 적절하지 않은 인사말이다.

08 ‘와이파이, 캘리그라피’는 시대와 가치관이 변하면서 새로운

개념이나 사물이 등장하고, 이를 표현하기 위해 생겨난 새말로 볼 수 있다. 세대 간 문화가 변화하면서 생겨난 새말로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오운완(오늘 운동 완료)’ 등이 있다.

09 ㉠은 영상 분야에서 사용하는 전문어이고, ㉡은 체육(피겨 스케이팅) 분야에서 사용하는 전문어이다. 전문어는 해당 분야의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뜻이 정확하고 구체적이다.

- 오답 풀이** ① ㉠과 ㉡은 한자어가 아니라 외래어로 이루어져 있다.
 ③ ㉠은 영상 분야에서, ㉡은 체육(피겨 스케이팅) 분야에서 사용하는 전문어이다.
 ④, ⑤ ㉠과 ㉡은 모두 전문어로, 해당 분야의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10 인터넷 언어에서 ‘세젤예(세상에서 제일 예쁜)’와 같이 글자를 줄여서 쓰는 까닭은 간편하게 쓰기 위해서이고(ㄴ), ‘최오!’와 같이 의도적으로 글자를 잘못 쓰는 까닭은 재미있게 쓰기 위해서이다(ㄷ).

- 오답 풀이** ㄱ. 글자를 입력하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 빠르고 쉽게 쓰기 위해서, 즉 간편하게 쓰기 위해서 초성만 적거나 서술어를 줄이거나 소리나는 대로 쓴다.
 ㄴ. 재미있게 표현하기 위해 영문자를 이용하여 글자를 바꾸어 쓴다.
 ㄷ. 생생하게 쓰기 위해 의성어나 의태어를 사용하거나 음절을 반복한다.
 ㄹ. 그림말, 사진, 영상 등 시각적, 청각적 요소를 언어의 일부로 활용하여 언어의 의미를 더 풍부하게 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한다.

11 ‘아전인수(我田引水)’는 자기 눈에 물 대기라는 뜻으로, 자기에 게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함을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소통할 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과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다.

- 오답 풀이** ② ‘역지사지(易地思之)’는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여 봄을 뜻한다.
 ③ ‘과유불급(過猶不及)’은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뜻으로,中庸(中庸)이 중요함을 이르는 말이다.
 ④ ‘각양각색(各樣各色)’은 각기 다른 여러 가지 모양과 빛깔을 뜻한다.
 ⑤ ‘불여일견(不如一見)’은 제 눈으로 직접 한 번 보는 것만 못함을 이르는 말이다.

01 추론하며 읽기

소단원 한눈에 보기

196~197쪽

- 1 (1) O (2) X (3) O 2 ④ 3 창의적인 생각
4 ③ 5 잔소리 6 (1) 천편일률 (2) 넋지 효과
7 ④

1 (1) 추론은 주어진 내용을 근거로 삼아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하는 것으로, 추론하며 읽기는 배경지식이나 글에 제시된 정보를 활용하여 글에 드러나지 않은 의도나 관점을 짐작하며 읽는 것을 말한다.

(2) 추론하며 읽을 때에는 글에 제시된 정보뿐만 아니라 독자의 배경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

(3) 표지, 차례, 글의 제목, 단어의 의미 등은 추론하며 읽기에 활용할 수 있는 요소에 해당한다.

2 배경지식이나 글에 제시된 정보 등을 활용하여 글쓴이의 의도나 관점을 추론하며 읽으면 글에 드러나지 않는 내용까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글의 내용을 표면적으로 받아들이는다고 보기 어렵다. 추론하며 읽으면 글을 능동적으로 읽을 수 있고, 글의 내용에 더욱 집중할 수 있으며, 글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여 오래 기억할 수 있다.

3 「동네 쓰레기를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하려면」에서 글쓴이는 넋지 효과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한 사례처럼 사람들이 스스로 변화하도록 유도하는 '창의적인 생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4 전력을 아끼기 위해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라는 구호를 외치는 것은 기존의 문제 해결 방법으로, 넋지 효과를 활용한 것이 아니다.

5 글쓴이는 규제나 단속, 감시 도구 등을 활용한 기존의 해결 방법을 '잔소리'에 비유하고 있다.

6 (1) 규제나 단속과 같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천편일률적인 방법으로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2) 넋지 효과를 활용한 해결 방법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사람들이 스스로 변화하도록 이끌으로써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7 「아이들은 어른보다 추위를 덜 탈까?」는 아이들이 어른보다 추위를 덜 타는 현상을 설명하는 글로, 추운 환경에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 주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여 건강에 도움을 주는 갈색 지방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내용 확인 문제

202~209쪽

- 1 ⑤ 2 변화하게 하라 3 (1) O (2) X
4 담벼락 앞에 화단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5 (1) O (2) O
(3) X 6 ④ 7 ⑤ 8 (1) O (2) X 9 ②
10 ①

1 글을 읽기 전에 책의 표지, 책의 제목과 부제, 책의 차례, 글의 제목과 부제, 글쓴이의 말 등을 훑어보면 글의 화제나 주제 등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문단의 중심 내용은 글을 읽으면서 알 수 있는 내용이므로, 글을 읽기 전이 아니라 글을 읽는 중 추론하기에 활용할 수 있다.

2 차례에 제시된 다른 글의 부제를 보면 '~하라', '~말라'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글쓴이가 글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①에 들어갈 내용은 이 글의 주제와 연관된 내용으로, 글쓴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문제 해결 방법이 이어질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이 글의 소재목들은 은근하고 부드럽게 변화를 유도하는 창의적인 생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①에는 '사람들이 스스로 변화하게 하라'라는 내용의 부제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3 (1) 이 글은 담벼락에 쓰레기를 버리는 문제와 같은 일상적인 사례를 제시하면서 글을 시작함으로써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2) 글쓴이는 넋지 효과를 활용하여 담벼락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넋지 효과가 인상적이라고 하였다. 이때 '인상적'이라는 단어는 어떤 행동이나 결과물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 쓰이는 말로, 이를 통해 글쓴이가 넋지 효과를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4 담벼락 앞에 화단을 조성하여 꽃을 심어 두자, 여느 때와는 다르게 사람들이 담벼락 쪽으로 돌아와서 쓰레기를 다시 가져갔다고 하였다. 즉 담벼락 앞의 화단은 사람들에게 시각적인 변화를 주어,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기 전에 다시 생각해 보게 함으로써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담벼락 앞에 화단을 만들었음을 서술하였다	☐

5 (1) 이 글은 구호, 안내문 등과 같은 기존의 해결 방법과 넋지 효과를 활용한 창의적인 해결 방법의 결과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2) 글쓴이는 아마존 일대가 있는 남미 지도가 그려진 화장지 케이스의 사례를 사진과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장지를 뽑아 쓸 때마다 초록색 부분의 높이가 낮아지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며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3) 줄어드는 숲 지키기 캠페인의 하나로 남미 지도가 그려진 화장지 케이스를 선보여 사람들이 화장지를 아껴 쓰게 된 사례를 시각 자료와 함께 제시하면서 넋지 디자인의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6 독일에서는 전력을 아끼기 위해 지하철역 출구에 발을 디딜 때마다 소리가 나는 피아노 모양의 계단을 만들어 사람들이 계단을 이용하도록 유도했으며, 그 결과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줄고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66퍼센트 늘어났다고 하였다.

7 공익 캠페인은 개인의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주로 사회 전체의 이익과 관련된다. 이러한 공익 캠페인에서 넋지 효과를 활용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8 (1) 도로의 곡선 구간이 시작되는 지점부터 중심부까지 점점 간격을 좁혀 흰색 가로선을 그리면, 운전자가 곡선 구간에서 같은 속도로 달리더라도 중심부에 가까워질수록 실제보다 속도감을 더 빠르게 느끼게 하여 스스로 속도를 줄이도록 할 수 있다.
(2) 노면 색깔 유도선은 천편일률적인 방법이 아닌 넋지 효과를 활용한 해결 방법이다. 글쓴이는 넋지 효과를 활용한 해결 방법을 작은 자극으로 은근하게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부드러운 힘에 비유하였다.

9 넋지 효과를 활용한 해결 방법은 작은 자극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사람들이 스스로 변화하도록 이끈다.

오답 풀이 ①, ④ 규제나 단속, 감시 도구 등을 활용하는 것은 넋지 효과를 활용한 해결 방법이 아닌 기존의 해결 방법으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에 해당한다.
③, ⑤ 글쓴이는 넋지 효과를 활용한 해결 방법은 작은 자극을 주어 은근하고 부드럽게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부드러운 힘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10 '천 마디 잔소리'는 기존의 해결 방법을, '부드러운 메시지'는 넋지 효과를 활용한 해결 방법을 의미한다. 글쓴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부드러운 메시지, 즉 넋지 효과를 활용한 해결 방법임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에는 넋지 효과를 활용한 해결 방법처럼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롭고 창의적인 생각의 필요성을 강조하려는 글쓴이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활동 응용 문제

210~213쪽

- 1 넋지 효과 2 ㉠ 3 ㉡ 4 ㉠은 독자의 배경 지식을 활용한 반면, ㉡은 글에 나타난 정보를 활용하였다.
5 ㉠ 6 ㉠ 7 ㉡ 8 ㉠ 9 ㉡

1 이 글은 넋지 효과를 활용하여 사람들이 스스로 변화하도록 이끌어, 자연스럽게 문제를 해결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보기>의 담벼락 화단, 피아노 모양의 계단, 노면 색깔 유도선은 모두 넋지 효과를 활용한 해결 방법에 해당한다.

2 이 글에서 글쓴이는 다양한 문제 해결 사례를 소개하며 기존의 해결 방법과 넋지 효과를 활용한 해결 방법의 효과를 대조하고, 작은 자극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넋지 효과를 활용한 해결 방법임을 말하고 있다. 즉 글쓴이는 넋지 효과를 활용한 해결 방법처럼 사람들의 자발적인 행동 변화를 이끄는 새롭고 창의적인 생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글을 쓴 것이다.

3 글쓴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부드러운 메시지, 즉 넋지 효과를 활용한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넋지 효과를 활용한 해결 방법처럼 사람들이 스스로 변화하도록 유도하는 창의적인 생각의 필요성을 강조하려는 글쓴이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글쓴이의 의도와 달리, ②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은 기존에 많이 쓰이던 방법으로 글쓴이가 부정적으로 여기는 문제 해결 방법이다.

4 ㉠은 단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맥락에 대한 독자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넋지 효과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을 추론하고 있다. 반면 ㉡은 '앞부분의 내용', 즉 글에 나타난 정보를 활용하여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글쓴이의 의도를 추론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독자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을 추론했음을 서술하였다.	☐
글에 나타난 정보를 활용하여 ㉡을 추론했음을 서술하였다.	☐

5 글쓴이의 의도나 관점은 대체로 글의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추론하며 읽을 때에는 자신의 경험이나 배경지식, 글의 흐름이나 글에 나타난 정보 등을 활용하며, 글쓴이가 의도적으로 생각한 부분을 포함한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한다.

6 글쓴이는 아마존 일대가 있는 남미 지도가 그려진 화장지 케이스 사례를 사진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화장지를 함부로 낭비하면 아마존의 숲이 사라진다는 메시지를 시각화한 넋지 디자인의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에서는 담벼락에 화단을 조성하여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담벼락 앞의 화단은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기 전에 다시 생각하게 하는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② 담벼락이나 전봇대 앞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모습은 평소엔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즉 글쓴이는 독자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사례를 도입부에 제시하면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자 한 것이다.
③ 이 글은 넋지 효과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한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볼 때, 마지막 질문에는 넋지 효과를 활용한 해결 방법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롭고 창의적인 생각의 필요성을 강조하려는 글쓴이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④ 공익 캠페인은 개인의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주로 사회 전체의 이익과 관련된다. 따라서 공익 캠페인에서 넋지 효과를 활용하면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7 제시된 내용은 독자가 등갓길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골목길을 본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여 글쓴이의 의도를 추론한 것이다.

8 추론하며 글을 읽으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내용까지 생각해 볼 수 있어, 글의 내용을 더욱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추론하며 글을 읽을 때에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내용까지 살펴보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글을 읽을 수 있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추론하며 읽기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글쓴이의 의도나 관점을 짐작하며 읽는 것이다.

④ 글에 나타난 정보나 자신의 배경지식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추론하여 읽으면, 글을 더욱 능동적으로 읽을 수 있다.

⑤ 추론하며 글을 읽을 때에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뿐만 아니라 단어가 사용되는 맥락, 글의 흐름 등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내용을 해석해야 한다.

9 감시, 단속 등 기존에 많이 사용되던 해결 방법과 달리, <보기>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넋지 효과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처럼 넋지 효과를 활용하면 시각적인 자극을 주어, 학생들이 스스로 안전에 유의하며 계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내용 확인 문제

214~215쪽

1 ④

1 이 글은 아이들이 어른보다 추위를 덜 타는 까닭과 원리를 설명하는 글이다. 중간 ④에서 몸속에 갈색 지방이 많으면 추운 환경에서도 몸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신진대사가 활발해져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으나, 몸속에 백색 지방이 많으면 좋은 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중간 ①에서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은 대부분 백색 지방이지만 갈색 지방도 일부 있다고 하였다.

② 중간 ②에서 백색 지방은 쓰고 남은 열량을 몸에 저장하는 반면, 갈색 지방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는 열을 많이 만들어 백색 지방을 태우는 역할을 주로 한다고 하였다.

③ 중간 ③에서 유산소 근력 운동과 몸의 온도를 일정 시간 동안 차갑게 유지하면 갈색 지방의 비율을 늘리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⑤ 중간 ②에서 갓난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몸속 갈색 지방의 비율이 더 높다고 하였으므로, 추운 환경에서도 몸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는 갈색 지방을 많이 갖고 있는 아이들이 어른보다 추위를 덜 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활동 응용 문제

216~217쪽

- 1 ② 2 갈색 지방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열을 많이 만들면서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다. 3 ⑤ 4 ⑤ 5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참고 견디면 결국에는 좋은 결과가 있다.

1 우리 몸에 있는 지방 중, 쓰고 남은 열량을 몸에 저장하는 것은 갈색 지방이 아니라 백색 지방이다.

오답 풀이 ① 우리 몸속 지방에는 흰색에 가까운 백색 지방과 갈색을 띠는 갈색 지방이 있다.

③ 갈색 지방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열을 많이 만들어 백색 지방을 태우는 역할을 주로 한다.

④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속 갈색 지방의 비율은 줄어들기 때문에 갈색 지방의 비율을 늘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⑤ 갈색 지방은 지방 세포에 미토콘드리아가 많기 때문에 지방의 색이 갈색으로 보인다.

2 갈색 지방에는 다량의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미토콘드리아가 열을 많이 만들어 백색 지방을 태우면서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한다.

평가 기준	확인 ☒
몸속 갈색 지방이 많으면 체온이 따뜻하게 유지되는 원리를 바르게 서술하였다.	☐
내용을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3 갈색 지방을 늘리려면 유산소 근력 운동을 하거나 우리 몸의 온도를 일정 시간 동안 차갑게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겨울에 따뜻한 공간에 있기보다는 밖으로 나가서 산책이나 운동을 하는 것이 갈색 지방을 늘리는 데에 도움이 된다.

4 글쓴이는 우리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갈색 지방의 비율을 늘리려면, 유산소 근력 운동을 하거나 우리 몸의 온도를 일정 시간 동안 차갑게 유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글쓴이는 독자에게 추운 날에도 실내에 머무르지 말고, 밖으로 나가 운동을 하며 건강하게 생활할 것을 당부하기 위해 이 글을 썼음을 추론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글쓴이는 갈색 지방이 추운 환경에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 주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여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③, ④ 글쓴이는 우리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갈색 지방의 비율을 늘리는 방법을 소개하고, 추운 날에도 종종 실외로 나가 몸을 움직이며 몸속 갈색 지방의 비율을 늘리려는 노력을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5 <보기>의 급훈은 지금 당장은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과정을 참고 견디면 달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뜻으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참고 견디면 결국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보기〉의 급훈 속에 담긴 의도를 바르게 서술하였다.	☐
내용을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소단원 마무리

218~219쪽

- 1 (1) O (2) X (3) O 2 ④ 3 ② 4 (1) O
(2) O (3) X (4) X 5 ① 6 ⑤

1 (1) 글쓴이의 의도나 관점은 글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추론하면서 글을 읽어야 한다.
(2) 추론하며 읽기란 배경지식이나 글에 제시된 정보를 활용하여 글에 드러나지 않은 의도나 관점을 짐작하며 읽는 것을 의미한다.
(3) 표지, 차례, 제목, 부제, 시각 자료, 단어나 문장의 의미 등 글에 제시된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글쓴이의 관점을 추론할 수 있다.

2 글을 읽기 전에 책의 표지와 제목과 부제, 차례 등을 훑어보면 어떤 내용으로 글의 흐름이 전개될지 짐작해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추론은 주어진 내용을 근거로 삼아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하는 것이므로,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암기하는 것은 추론하며 읽는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② 글의 내용과 관련한 자신의 배경지식이나 경험을 잘 활용하여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의도나 관점을 추론하며 읽으면, 글쓴이가 글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바를 잘 파악할 수 있다.

③ 글쓴이가 집필한 책이나 활동해 온 이력, 글쓴이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 등 글쓴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면 글의 내용이나 글쓴이의 가치관, 글쓴이가 글을 쓴 의도나 목적 등을 추론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⑤ 시각 자료는 글에 제시된 정보에 해당하며, 추론하며 읽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이다. 따라서 글쓴이가 시각 자료를 제시한 의도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 등을 파악하며 살펴봐야 한다.

3 배경지식이나 글에 제시된 정보를 활용하여 글에 드러나지 않은 의도나 관점을 짐작하며 읽으면, 글을 능동적으로 읽을 수 있고, 글을 읽는 동안 글의 내용에 더욱 집중할 수 있으며, 글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여 오래 기억할 수 있다.

4 (1) 이 글은 작은 자극으로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이끄는 넋지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 담벼락 앞의 화단, 피아노 모양의 계단 등 넋지 효과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한 다양한 사례를 시각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3) 기존의 해결 방법과 넋지 효과를 활용한 해결 방법의 결과를 대조하고 있으나, 이는 넋지 효과를 활용한 해결 방법이 더 효과적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일 뿐 기존에 쓰이던 해결 방법의 장점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4) 이 글은 넋지 효과를 활용한 해결 방법처럼 작은 자극으로 은근하게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도를 담고 있으므로, 급진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이 글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넋지 효과에 대해 설명하는 글로, 설명하는 글은 정보나 지식 등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6 이 글에서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 문제를 해결하는 넋지 효과에 대한 글쓴이의 긍정적인 관점이 드러난다. 따라서 글쓴이는 규제나 감시 등의 강제적 수단보다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변화를 바람직하게 여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천편일률적인 방법은 기존에 많이 쓰이던 해결 방법으로, 넋지 효과를 활용한 방법에 비해 그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하였으므로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독일의 피아노 계단, 국제 환경 보호 단체 더블유더블유에프(WWF)에서 선보인 화장지 케이스 등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으나, 이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③ 글쓴이는 넋지 효과를 활용하면 작은 자극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보았다.

④ 글쓴이는 공익의 성격을 띤 캠페인에서 넋지 효과를 활용하면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보았을 뿐, 공익을 위한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문해력 키우기

221~223쪽

- 1단계** | 1 전복되다 2 추론하다 3 감시
4 가미하다 5 호소문 6 수거하다 7 상습적
8 은근하다 9 천편일률적 10 의도 11 부제
12 고정 관념 13 설득하다 14 캠페인
15 능동적

- 2단계** | 1 기금 2 매력 3 사례 4 일화
5 자극 6 주행 7 강제적 8 분기점
9 자발적 10 급격하다 11 발칙하다
12 유익하다 13 안주하다 14 추측하다

- 3단계** | 1 배경지식 2 규제 3 설계하는
4 성과 5 관점 6 예 시민들은 도시의 공익을 위해 쓰레기를 줄이자는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7 예 범죄 예방을 위해 골목길마다 시시 티브이(CCTV)를 설치하였다.
8 예 규칙적인 운동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한다. 9 예 선생님은 다양한 질문을 던지며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유도하였다. 10 예 그는 창밖의 하늘이 어두워진 것을 보고 곧 비가 쏟아질 것이라고 짐작하였다.

1단계

- 1 **오답 풀이** 대조되다: 서로 달라서 맞대어져 비교가 되다.
- 2 **오답 풀이** 참고하다: 살펴서 생각하다.
- 3 **오답 풀이** 투기: 내던져 버림.
- 4 **오답 풀이** 조성하다: 무엇을 만들어서 이루다.
- 5 **오답 풀이** 안내문: 어떤 내용을 소개하여 알려 주는 글.
- 6 **오답 풀이** 낭비하다: 시간이나 재물 등을 헛되이 헤프게 쓰다.
- 7 **오답 풀이** 주기적: 일정한 간격을 두고 되풀이하여 진행하거나 나타나는 것.
- 8 **오답 풀이** 빈번하다: 번거로울 정도로 거듭하는 횟수가 잦다.
- 9 **오답 풀이** 비유적: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아니하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
- 10 **오답 풀이** 대안: 어떤 일에 대처할 방안.
- 11 **오답 풀이** 표지: 책의 맨 앞뒤의 겉장.
- 12 **오답 풀이** 창의성: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내는 특성.
- 13 **오답 풀이** 대응하다: 어떤 일이나 사태에 맞추어 태도나 행동을 취하다.
- 14 **오답 풀이** 구호: 집회나 시위 등에서 어떤 요구나 주장 등을 간결한 형식으로 표현한 문구.
- 15 **오답 풀이** 인상적: 어떤 대상에 대하여 마음속에 새겨지는 느낌이 강하게 남는, 또는 그런 것.

소단원 평가

224~227쪽

- 01 ⑤ 02 ④ 03 담벼락 화단은 시각적인 변화를 주어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기 전에 다시 생각해 보게 했을 것이다.
- 04 ⑤ 05 ④ 06 ① 07 ⑤ 08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담벼락에 화단을 조성하였다. 길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혼잡한 곳에 노면 색깔 유도선을 그렸다.
- 09 ⑤ 10 ⑤ 11 ⑤ 12 ③ 13 ④
- 14 ④ 15 유산소 근력 운동을 하고, 몸의 온도를 일정 시간 동안 차갑게 유지한다.

01 이 글에서는 담벼락 화단, 피아노 계단과 같이 넋지 효과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즉 글쓴이는 이 글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이끄는 넋지 효과를 활용하면,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 글을 쓴 것이다.

02 (나)에서 담벼락 앞에 화단을 조성하자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되었다고 하였으나, 화단을 만든 주체가 환경미화원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다)에서 넋지 효과는 규제나 감시 대신 사람들이 문제 해결에 스스로 참여하도록 이끌어 자연스럽게 변화를 불러온다고 하였다. ② (가)에서 담벼락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시 티브이(CCTV)를 설치하였으나, 설치한 당일에만 조금 효과가 있었을 뿐 금방 다시 쓰레기가 쌓였다고 하였다. ③ (라)에서 넋지 효과를 이용한 아이디어는 공익의 성격을 띤 캠페인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였다. ⑤ (마)에서 지하철역 출구에 있는 계단을 피아노 모양으로 설치하자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줄고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66퍼센트 늘어났다고 하였다.

03 ㉠은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이전과는 다른 자극을 주어 사람들의 자발적인 행동 변화를 유도한 사례로,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기 전에 다시 생각해 보게 함으로써 스스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만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평가 기준	확인 ☒
㉠으로 인해 사람들이 담벼락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되었음을 서술하였다.	☐
내용을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04 글에 드러나지 않은 의도나 관점을 추론하며 읽을 때에는 글의 제목과 글에 제시된 사례 등 글에 제시된 정보, 독자의 경험과 배경지식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글을 읽는 데 걸리는 시간은 추론하며 읽는 방법과 관련이 없다.

05 남미 지도가 있는 화장지 케이스, 곡선 구간에 그린 흰색 가로선과 같이 이 글에 제시된 사례들을 바탕으로 볼 때, 글쓴이는 넋지 효과를 활용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여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아마존 일대가 있는 남미 지도가 그려진 화장지 케이스는 아마존이라는 지역이 지닌 상징성을 활용하여 '화장지를 낭비하면 숲이 사라진다.'는 메시지를 비유적으로 전달한 사례이다. 이처럼 넋지 효과는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만, 반드시 상징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② 넋지 효과는 일상의 문제 해결 상황에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③ 이 글에 제시된 사례를 통해, 기존의 해결 방법보다 넋지 효과를 활용한 해결 방법을 사용했을 때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넋지 효과가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 ⑤ 글쓴이는 규제나 단속 등의 강제적인 방법보다는 넋지 효과를 활용하여 새롭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 그 효과가 더 크다고 하였다.

06 (다)~(마)에서는 사고 예방 캠페인, 경고문, 경찰의 주기적인 단속과 같은 기존의 문제 해결 방법을 사용했을 때보다, 곡선 구간의 중심부에 가까워질수록 간격을 좁혀 흰색 가로선을 그린 넋지

효과를 활용한 해결 방법을 사용했을 때 그 효과가 더 컸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다)~(마)의 소재목으로는 기존에 천편일률적으로 쓰이던 해결 방법에서 벗어나 넋지 효과를 활용한 창의적인 해결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07 곡선 구간의 시작점에서 중심부까지 점점 간격을 좁혀 흰색 가로선을 그리면, 운전자가 곡선 구간에서 같은 속도로 달리더라도 중심부에 가까워질수록 실제보다 속도감을 더 빠르게 느끼고 스스로 속도를 줄이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08 넋지 효과는 작은 자극으로 은근하게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담벼락 앞에 화단을 조성하고, 분기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길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혼잡한 곳에 노면 색깔 유도선을 그린 것은 모두 넋지 효과를 활용한 문제 해결 방법에 해당한다.

평가 기준	확인 ☒
넋지 효과를 활용한 해결 방법으로 담벼락 화단과 노면 색깔 유도선을 모두 서술하였다.	☐

09 사람들이 쓰레기를 상습적으로 버리는 담벼락 앞에 화단을 조성하자,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되었다고 하였다. 즉 담벼락 앞의 화단은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이전과는 다른 작은 자극을 주어,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기 전에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10 (다)에서 글쓴이는 '40퍼센트 이상'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여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의 효과를 강조하고, 넋지 효과를 활용한 방법이 실제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11 글쓴이는 기존의 해결 방법을 '잔소리'에 비유하고 넋지 효과를 활용한 해결 방법을 '부드러운 메시지'에 비유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부드러운 메시지, 즉 넋지 효과를 활용한 해결 방법임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에는 넋지 효과를 활용한 해결 방법처럼 은근하고 부드럽게 사람들이 스스로 변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롭고 창의적인 생각의 필요성을 강조하려는 글쓴이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

12 (가)에서 글쓴이는 어린 시절 친구들과 다방구 놀이를 하면서 아이들은 추위를 안 탄다는 할아버지의 말을 들었던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아이들이 추위를 덜 타는 까닭과 그 원리에 대한 내용으로 글이 전개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마)에서 우리 몸의 온도를 일정 시간 동안 차갑게 유지하면 갈색 지방을 늘리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글을 시작하고 있지는 않다.

② 이 글에서는 추위에 대한 다양한 속설을 소개하고 있지 않다.

④ 글쓴이는 갈색 지방과 백색 지방의 공통점이 아니라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갈색 지방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⑤ 이 글에서는 몸속 지방의 종류를 백색 지방과 갈색 지방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다.

13 갈색 지방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는 열을 많이 만들어 백색 지방을 태우는 역할을 주로 하고, 이때 발생하는 열로 인해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③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쓰고 남은 열량을 몸에 저장하는 것은 백색 지방이다.

② 유산소 근력 운동을 하면 몸속 갈색 지방의 비율을 늘릴 수 있다고 하였으나, 갈색 지방이 많을수록 신체의 근육량이 증가한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⑤ 갈색 지방이 많을수록 신진대사가 활발해진다고 하였으므로, 활발한 신진대사를 위해 갈색 지방을 몸 밖으로 배출해야 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14 몸속에 갈색 지방이 많으면 추운 환경에서도 몸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어 추위를 덜 타게 된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몸속 갈색 지방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어른이 아이들보다 추위를 더 잘 타게 되는 것이다.

15 (마)에서 몸속 갈색 지방의 비율을 늘리는 데 유산소 근력 운동과 몸의 온도를 일정 시간 동안 차갑게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
몸속 갈색 지방의 비율을 늘리는 방법 두 가지를 바르게 서술하였다.	☐
내용을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02 주장하는 글 쓰기

소단원 한눈에 보기

230~231쪽

- 1 (1) O (2) O (3) X (4) X 2 (1) 계획하기 (2) 내용 조
직하기 (3) 고쳐쓰기 3 주관적인 표현, 모호한 표현, 단정
적인 표현 4 (1) X (2) O (3) O 5 (1) 중간 (2) 신뢰
도 (3) 상태, 상황 6 근거, 객관적

1 (1) 주장하는 글은 어떤 문제와 관련하여 글쓴이가 자신의 주장을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서술한 글을 말한다.
(2) 주장하는 글은 '서론-본론-결론'의 구조에 맞추어 논리적으로 쓴다.

(3) 주장하는 글을 쓸 때에는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여 글의 설득력을 높여야 한다.

(4) 주장하는 글을 쓸 때에는 타당한 근거를 들어 주장을 뒷받침해야 다른 사람을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다. 이때 근거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주장과 연관성이 있는지,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내용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글쓴이의 주관적인 생각을 중심으로 구성된 근거는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2 (1) 주장하는 글 쓰기 과정 중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문제 상황을 발견하고 주장을 정한다.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는 다양한 매체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근거를 구성한다.

(2) 주장하는 글 쓰기 과정 중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서론-본론-결론'의 구조에 따라 개요를 작성한다.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는 자료를 수집하고 근거를 구성한다.

(3) 주장하는 글 쓰기 과정 중 고쳐쓰기 단계에서는 근거의 타당성, 표현의 적절성, 글의 구조의 완결성 등을 점검하며 글을 고쳐 쓴다. 표현하기 단계에서는 설득력을 높이는 표현을 활용하여 주장을 명료하게 드러내고, 구체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며 개요에 따라 글을 쓴다.

3 주장하는 글을 쓸 때에는 주관적인 표현, 모호한 표현,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주장을 명료하게 드러내어 글의 설득력을 높여야 한다.

4 (1) 이 글은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고, 올바르게 활용해야 한다는 자유의 주장을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서술한 글로, 주장하는 글은 독자를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글은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문제 상황에 대해 말하고 있다.

(3) 이 글에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여 주장의 신뢰도와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5 (1) 자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엠비티아이는 '중간'의 성격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다.

(2) 자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신뢰도가 떨어지는 엠비티아이 자료나 검사가 뒤섞여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3) 자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는 응답자의 상태나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6 수집한 자료가 근거로 활용하기에 적절한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주장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자료인지 판단해야 한다.

활동 응용 문제

235~243쪽

- 1 성격 유형 검사를 지나치게 믿는 친구들이 있고, 인터넷에도 이와 관련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너무 많다. 2 ③
3 ① 4 ⑤ 5 엠비티아이 검사는 '중간'의 성격을 설명하기 어렵다. 6 ① 7 ③ 8 ② 9 ⑤
10 ④ 11 ⑤ 12 ⑤ 13 ③ 14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이다. 15 (1) O (2) X (3) X 16 ② 17 전문가의 의견과 정식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지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18 ② 19 ⑤

1 자유는 친구들이 성격 유형 검사에 지나치게 몰입하고, 인터넷에도 이와 관련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너무 많다는 문제 상황을 발견하고, 주장할 내용을 정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자유가 발견한 문제 상황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
내용을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2 주장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경험한 일이나 뉴스, 기사 등에서 본 일 등을 떠올리며 문제 상황을 먼저 찾은 후, 이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정해야 한다. 따라서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먼저 정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3 주장하는 글 쓰기 과정 중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문제 상황을 찾고 주장할 내용을 정한다.

오답 풀이 ② 주장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여 적절한 자료를 선정하는 것은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해야 하는 일이다.

③, ⑤ 설득력을 높이는 표현을 활용하고, 구체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표현하기' 단계에서 해야 하는 일이다.

④ '서론-본론-결론'의 구조에 따라 개요를 작성하는 것은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해야 하는 일이다.

4 지유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책, 영상, 누리집, 기사, 블로그 등의 매체에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그러나 지유가 백과사전을 활용했는지는 알 수 없다.

5 (가)는 엠비티아이 검사의 설문 문항이 중간을 허용하지 않고 성격을 둘로 가르도록 구성되어 있어, ‘중간’의 성격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엠비티아이 검사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가)를 통해 알 수 있는 엠비티아이 검사의 문제점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
내용을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6 (나)를 통해 인터넷상에서 널리 사용되는 엠비티아이 검사 사이트의 검사는 정식 엠비티아이 검사와 관계가 없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엠비티아이 검사는 인터넷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정식 검사와는 관련이 없다.

③, ④, ⑤ 사람들이 엠비티아이 검사를 하기 위해 주로 방문하는 사이트 관계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와 검사는 연구진이 자체 개발한 것으로 정식 엠비티아이 검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였다.

7 (라)에서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성격 유형이 자신의 모든 것을 설명한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라)에서 엠비티아이 검사는 자신을 이해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② (다)에서 엠비티아이 검사는 개인이 자신의 심리적 선호에 관한 문항에 스스로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응답자의 상태나 상황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④ (라)에서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는 자신을 이해하는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⑤ (마)에서 엠비티아이 유형은 직무와 무관한 개인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업 채용 과정에서 엠비티아이를 활용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적인 부분이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8 블로그의 게시 글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다. 따라서 (마)와 같은 블로그에서 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글쓴이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지 확인하고, 자료가 신뢰할 만한 내용인지 검토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블로그의 게시 글은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③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할 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출처를 밝히야 근거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④ 블로그 게시 글의 조회 수는 자료의 신뢰성과 관계가 없다.

⑤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에 대한 반론을 제시할 때 활용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주장과 반대되는 내용이라도 살펴보는 것이 좋다.

9 수집한 자료의 적절성을 평가할 때에는 주장과 긴밀하게 연관

되어 있는지,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자료인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끄는 자료일지라도 주장과의 연관성이 부족하거나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자료가 아니라면 근거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10 스마트폰 사용이 학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장하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 공장을 방문하는 것은, 주장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11 글의 구조에 따라 내용 및 순서를 정하여 개요를 작성하고, 수집한 자료의 활용 방안을 구체화하는 단계는 ‘내용 조직하기’이다.

12 개요는 글의 전체적인 윤곽으로, 글을 쓰기 전에 주제와 목적을 고려하여 글의 주요 내용을 간추려 항목화한 것을 말한다. 개요를 작성할 때 각 부분에 더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새롭게 찾아서 추가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개요는 글의 구조에 따라 내용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글의 구체적인 전개 방향을 정리한 것이다.

③ 개요를 작성할 때에는 주제를 고려하여 내용을 삭제하거나 이동할 수 있다.

④ 개요를 작성할 때에는 글의 흐름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13 지유가 작성한 개요에 따르면, 글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것은 ‘결론’ 부분이다.

14 지유는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하여,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기 위해 이 글을 썼다.

평가 기준	확인 ☒
이 글에 드러난 지유의 주장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
내용을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15 (1) 본론 ①에서 전문가가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를 해석해 주면 정확한 설명을 들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각 성격 유형이 대표하는 전형적인 성격으로만 성격 유형을 받아들인다고 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각 성격 유형에 대한 편견으로 이어질 수 있다.

(2) 본론 ②에서 대중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인터넷상의 무료 엠비티아이 검사는 문항이나 측정 방법이 정식 검사와 차이가 있고,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여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하였다.

(3) 본론 ③에서는 무료 엠비티아이 검사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관계자를 인터뷰한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을 근거 자료로 활용하여 주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지유가 해당 사이트의 관계자를 직접 인터뷰한 것은 아니다.

16 결론에서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이를 맹신하는 태도를 버리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도구로 올바르게 활용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본론 ③에서 엠비티아이 검사는 응답자가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진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하였다.

③ 본론 ③에서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는 응답자의 상태나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하였다.

④ 결론에서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이를 맹신하지 않고, 개인의 성격 특성을 설명하는 하나의 근거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⑤ 본론 ④에서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는 검사 당시 개인의 심리 상태나 개인이 속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검사 결과만으로 그 사람의 성격을 완벽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17 결론에서 지유는 엠비티아이 검사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과 정식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지의 내용을 인용하여 주장의 신뢰도와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지유가 결론에서 주장의 신뢰도와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 요소 두 가지를 바르게 서술하였다.	☐

18 지유가 이 글을 고쳐 쓴 과정을 바탕으로 볼 때, 구체적이고 장황한 표현을 생략한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당연히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라는 주관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삭제하여 글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③ ‘어떤 사람들’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삭제하고, 대상을 ‘청소년들’이라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④ ‘엠비티아이 관련 연구소의 연구부장은 ~ 응답자의 상태나 상황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를 추가함으로써, 신뢰할 만한 전문가의 설명을 인용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⑤ 서론에서 일부 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엠비티아이를 활용하고 청소년들 사이에서 성격 유형에만 의존하여 상대방을 판단해서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는 사례를 추가로 언급하여, 독자의 흥미를 끌고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9 주장하는 글을 점검할 때에는 주장이 명료하게 드러났는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타당한지,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여 글의 설득력을 높였는지, ‘서론-본론-결론’의 구조에 맞추어 논리적으로 썼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독자가 자신의 주장에 반박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표현하였는지는 글의 설득력을 높이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활동 응용 문제

248-249쪽

1 ③ 2 ④ 3 ④

1 [A]는 소비자의 의견을 전달하고 제품 구매 시 유용한 정보를 참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점과 후기를 남기는 게시판이 필요하다는 관점을 전달하고 있다. 반면 [B]는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평

점과 후기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평점과 후기를 남기는 게시판은 없어져야 한다는 관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A]와 [B] 모두 평점과 후기를 남기는 게시판이 신뢰할 만한 정보 제공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2 최근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아 과장된 내용을 담은 후기가 늘고 있다는 것은 평점과 후기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에 해당하므로, 평점과 후기를 남기는 게시판이 없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에 해당한다.

3 학교 안에서 변화가 필요한 문제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거나(ㄱ), 학교 누리집의 건의 게시판에 게시된 글을 참고하고(ㄴ), 모둠별로 학교 생활을 하면서 불편함을 겪었던 경험을 공유하는(ㄷ)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학교 연혁은 학교가 변화해 온 과정을 소개한 것으로, 학교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문제 상황과는 관련이 적다.

소단원 마무리

251쪽

1 ③ 2 ④ 3 (1) O (2) X (3) O 4 (1) X
(2) O (3) X 5 ③ 6 ④

1 주장하는 글은 어떤 문제 상황과 관련하여 글쓴이가 자신의 주장을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서술한 글로, 독자를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정한 대상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글은 설명하는 글이다.

2 주장하는 글을 쓸 때 반대 의견을 활용하여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 주장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3 (1) 주장하는 글을 쓰는 과정 중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문제 상황을 찾고 이에 대하여 주장할 내용을 정한다.

(2) 주장하는 글을 쓰는 과정 중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서론-본론-결론’의 구조에 따라 내용 및 순서를 정하여 개요를 작성한다. 따라서 글의 구조보다 내용의 신뢰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주장하는 글을 쓰는 과정 중 ‘고쳐쓰기’ 단계에서는 점검 기준에 따라 친구들과 서로의 글을 공유하여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4 (1) 엠비티아이 검사는 응답자가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진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검사 당시 개인의 심리 상태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2)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엠비티아이를 활용하거나 청소년들 사이에서 성격 유형에만 의존하여 상대방을 판단하는 등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3)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는 성격 특성을 설명하는 하나의 근거 자료로, 이를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5 이 글에서 글쓴이는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뿐, 성격 유형이 개인의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않으므로, 성격 유형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이 글의 서론에서 에니어그램, 디스크(DISC) 등 성격 유형 검사의 종류를 언급하고 있으나, 각 검사의 특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풀이** ①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예시를 제시하여,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가 '중간'의 성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② 글의 내용과 관련하여 엠비티아이 관련 연구소의 연구부장, 심리학과 교수와 같은 전문가의 설명이나 의견을 인용함으로써 글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③ 결론에서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는 성격 특성을 설명하는 하나의 근거 자료일 뿐이라는 정식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지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⑤ 인터넷상의 무료 엠비티아이 검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와 검사는 정식 엠비티아이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관계자의 인터뷰를 담은 방송 프로그램 내용을 근거 자료로 활용하여 근거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문해력 키우기

253~255쪽

1단계 | 1 과도하다 2 채용 3 의존하다

4 단정적 5 심리적 6 선호 7 긴밀하다

8 전형적 9 외향 10 모호하다 11 설득력

12 근거 13 발췌하다 14 주장 15 유형

2단계 | 1 개요 2 분포 3 설문 4 오류

5 적성 6 직관 7 출처 8 트집 9 평점

10 대중적 11 일관성 12 악의적

13 맹신하다 14 발견하다

3단계 | 1 매력적 2 옹호 3 뒷받침하는

4 인위적 5 생활 양식 6 예 한동안의 논란 끝에 그들은 두 패로 갈라졌다. 7 예 활용한 자료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면 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8 예 기존의 교육 시스템이 지닌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9 예 나는 그녀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10 예 문화재의 보호를 위해 박물관 내에서는 사진 촬영을 허용하지 않는다.

1단계

1 **오답 풀이** 무분별하다: 분별이 없다.

2 **오답 풀이**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에서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사무.

3 **오답 풀이** 몰입하다: 깊이 파고들거나 빠지다.

4 **오답 풀이** 주관적: 자기의 견해나 관점을 기초로 하는 것.

5 **오답 풀이** 논리적: 논리에 맞는 것.

6 **오답 풀이** 성향: 성질에 따른 경향.

7 **오답 풀이** 상반되다: 서로 반대되거나 어긋나게 되다.

8 **오답 풀이** 즉흥적: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감흥이나 기분에 따라 하는 것.

9 **오답 풀이** 내향: 마음의 작용이 자신에게만 향함.

10 **오답 풀이** 명료하다: 뚜렷하고 분명하다.

11 **오답 풀이** 공감대: 서로 공감하는 부분.

12 **오답 풀이** 인식: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앎.

13 **오답 풀이** 반영하다: 다른 것에 영향을 받아 어떤 현상을 나타내다.

14 **오답 풀이** 표현: 생각이나 느낌 등을 언어나 몸짓 등의 형상으로 드러내어 나타냄.

15 **오답 풀이** 우려: 근심하거나 걱정함. 또는 그 근심과 걱정.

소단원 평가

256~257쪽

01 ② 02 글에서 다룰 주장과 관련한 문제 상황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제시하고 있다. 03 ⑤ 04 ③

05 ② 06 ③ 07 ② 08 주장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아 근거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01 이 글은 주장하는 글로, 어떤 문제와 관련하여 글쓴이가 자신의 주장을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서술한 글이다. 주장하는 글을 쓸 때에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내용을 바탕으로 글의 설득력을 높여야 한다. 따라서 독자의 감정을 자극하여 공감을 얻는 것은 주장하는 글을 쓰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

02 이 글의 서론은 (가)와 (나)로, (나)에서 글쓴이는 일부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를 활용하고 청소년들 사이에서 성격 유형에만 의존하여 상대방을 판단한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글에서 다룰 주장과 관련한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이 글의 서론에서 주장과 관련한 문제 상황을 제시하기 위해 사용된 방식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
내용을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03 글쓴이는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문제 상황에 대하여,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맹신하지 말고 이를 올바르게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해 이 글을 썼다.

04 (라)에서 인터넷상의 무료 엠비티아이 검사는 문항이나 측정 방법이 정식 검사와 차이가 있고,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하였다. 엠비티아이 검사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05 이 글에서는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고 이를 올바르게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달하고 있으나, 이와 반대되는 의견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다)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한 예시를 제시하여 '중간'을 반영하지 못하는 엠비티아이 검사의 한계를 설명하고 있다.
 ③ (바)에서 "이 결과는 성격 특성을 설명하는 하나의 근거 자료일 뿐입니다."라는 정식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지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④ (나)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안 되는 까닭은 무엇일까?'와 같이 주장을 질문 형식으로 제시하면서 근거에 대한 내용으로 글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
 ⑤ (라)에서 인터넷상에서 무료 엠비티아이 검사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관계자를 인터뷰한 방송 프로그램 내용을 근거 자료로 활용하여,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와 검사는 정식 엠비티아이 검사와 관련이 없음을 밝히고 근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06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는 검사 당시 개인의 심리 상태나 개인이 속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검사 결과만으로는 개인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여러 가지 성격 유형 검사 중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것은 엠비티아이라고 하였다.
 ② (다)에서 엠비티아이 검사는 한 사람의 성격을 기준에 따라 둘로 나누어, 조금이라도 수치가 더 높은 쪽으로 분류한다고 하였다.
 ④ (가)에서 엠비티아이 검사는 태도, 인식, 판단, 생활 양식의 네 가지 기준에 따라 사람의 성향을 두 가지로 나누고, 각각의 성향을 조합하여 성격 유형을 총 열여섯 가지로 제시한다고 하였다.
 ⑤ (마)에서 엠비티아이 검사는 응답자가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진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하였다.

07 인터넷상의 무료 엠비티아이 검사는 정식 엠비티아이 검사와 관계가 없어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은 엠비티아이 검사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

08 제시된 자료는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엠비

티아이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안 된다는 이 글의 주장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거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평가 기준	확인 ☒
제시된 자료가 근거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까닭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
내용을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대단원 평가

262~267쪽

- 01 ③ 02 ② 03 ③ 04 ③ 05 ⑤
 06 부드러운 메시지 07 ② 08 ⑤ 09 ⑤
 10 ② 11 갈색 지방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는 열을 많이 만들어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해 주는데, 나이가 들수록 몸속 갈색 지방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다. 12 ⑤ 13 ③
 14 ② 15 ① 16 (다)는 기업 채용 과정에서 엠비티아이를 활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주장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아 근거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17 ④ 18 ① 19 ⑤ 20 ④
 21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22 ⑤
 23 ② 24 ⑤

01 담벼락 앞의 화단과 피아노 계단은 모두 넋지 효과를 활용하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한 사례에 해당한다. 따라서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에 주목하여, 넋지 효과를 활용한 해결 방법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

02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국민 신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은 규제나 감시와 같은 기존의 문제 해결 방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람들의 자발적인 변화를 이끌어 문제를 해결하는 넋지 효과를 활용한 사례로 보기 어렵다.

03 ㉠은 담벼락 앞에 화단을 조성하자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까닭은 담벼락 앞의 화단이 시각적으로 이전과는 다른 자극을 주어,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기 전에 다시 생각하게 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즉, 사람들은 자신이 쓰레기를 버림으로써 담벼락 앞 화단의 미관을 헤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04 이 글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자연스럽게 변화를 불러오는 넋지 효과에 대해 다루고 있다. 넋지 효과를 활용한 방법은 규제나 감시 등을 통해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과는 다른 창의적인 해결 방법을 통해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은근하게 유도하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05 (나)에서 곡선 구간의 과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고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속도를 줄이라는 경고문을 붙이고 경찰이 현장에서 주기적으로 단속도 해 봤지만,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좀처럼 줄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다)에서 도로의 곡선 구간이 시작되는 지점부터 중심부까지 간격을 좁혀 흰색 가로선을 그리자, 운전자 스스로 속도를 줄이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사고 예방 캠페인이나 경고문, 경찰의 단속 등 기존의 해결 방법은 운전자의 자발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내기 어려웠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줄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06 (라)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사람들이 스스로 변화하도록 이끄는 넋지 효과를 ‘부드러운 메시지’에 비유하고 있다.

07 아마존 일대가 있는 남미 지도가 그려진 화장지 케이스는 화장지를 쓸 때마다 초록색 부분의 높이가 점점 낮아져, 사람들이 숲이 사라지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자연스럽게 화장지를 아껴 쓰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넋지 디자인을 가미하여 ‘화장지를 낭비하면 숲이 사라진다.’는 메시지를 비유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08 이 글은 아이들이 어른보다 추위를 덜 타는 까닭을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글쓴이는 갈색 지방과 백색 지방의 차이를 설명하고, 추운 환경에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 주는 갈색 지방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하였다.

09 (다)에서 갓난아이들은 몸속 갈색 지방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내는 열로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한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기온이 낮을 때 근육을 떠는 행동은 열을 발생시켜 체온을 올려 주나, 갓난아이들은 추위에 반응하여 몸을 떨 만큼 근육이 발달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② 갈색 지방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는 열을 많이 만들어 갈색 지방이 아닌 백색 지방을 태우는 역할을 주로 한다.

③, ④ 갓난아이가 피부를 두껍게 만들거나 혈액 순환을 빠르게 하여 체온을 유지한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10 (마)에 제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덥다고 느끼는 27도에서 갈색 지방의 비율이 기준치보다 줄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실내 온도를 27도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은 갈색 지방을 늘리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보다는 유산소 근력 운동을 하고, 체온을 일정 시간 동안 차갑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11 ⑤은 나이가 들면서 어렸을 때보다 더 추위를 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까닭을 질문하고 있다. 우리 몸의 갈색 지방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는 열을 많이 만들어 백색 지방을 태우면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몸속 갈색 지방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나이가 들수록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되는 몸속 갈색 지방의 비율이 줄어든다는 점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
내용을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12 주장하는 글을 쓰기 위해 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주장과 연관성이 있는지,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내용인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수집한 자료의 내용이 객관적이지 않더라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3 주장하는 글을 쓰는 과정 중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는 다양한 매체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근거를 구성한다.

오답 풀이 ① 설득력을 높이는 표현을 활용하는 것은 ‘표현하기’ 단계에서 할 일이다.

② 해결하고 싶은 문제 상황을 발견하는 것은 ‘계획하기’ 단계에서 할 일이다.

④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개요를 작성하는 것은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할 일이다.

⑤ 근거의 타당성, 표현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는 것은 ‘고쳐쓰기’ 단계에서 할 일이다.

14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의 적절성을 평가할 때에는 자료의 내용이 주장과 연관성이 있는지(ㄱ),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지(ㄷ)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15 (가)는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를 활용하는 올바른 태도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이고, (나)는 전문가의 설명과 함께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는 응답자의 상태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전문가의 의견이나 설명을 활용하면 주장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16 수집한 자료가 근거로 활용하기에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장과 연관성이 있는지,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내용인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다)는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안 된다는 자유의 주장과 연관성이 적어 근거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평가 기준	확인 ☒
수집한 자료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바탕으로 (다)가 적절하지 않은 자료임을 평가하여 서술하였다.	☐

17 이 글은 주장하는 글로, 글쓴이의 주장을 바탕으로 독자를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주장하는 글을 쓸 때에는 주관적이거나 단정적인 표현, 모호한 표현은 생략하고 주장을 명료하게 드러내어 글의 설득력을 높여야 한다. 고차원적인 지식을 신는 것은 주장하는 글을 쓰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

18 엠비티아이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하지 않다는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② 인터넷상에는 사실 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흥미 위주의 자료가 많고, 대중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인터넷상의 무료 검사는 문항이나 측정 방법이 정식 검사와 차이가 있고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처럼 신뢰도가 떨어지는 엠비티아이 자료나 검사가 널리 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엠비티아이 검사는 응답자가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진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검사 당시 개인의 심리 상태나 개인이 속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④ 엠비티아이 검사는 사람의 성격을 기준에 따라 조금이라도 수치가 더 높은 쪽으로 분류하여, '중간'의 성격을 설명하기 어렵다.

⑤ 엠비티아이 관련 연구소의 연구부장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 응답자의 상태나 상황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였다.

19 이 글에서 글쓴이는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이를 맹신하는 태도를 버리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로서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를 올바르게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와 자신의 실제 성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인터뷰는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만으로 개인의 성격을 완벽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근거의 설득력을 높이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1 (나)에서는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예시를 들어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가 '중간'의 성격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을 설명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나)에서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엠비티아이 검사의 한계를 설명한 방식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

22 (가)와 (나)는 공통적으로 평점과 후기를 남기는 게시판을 화제로 삼고 있으나, 서로 상반된 관점을 보이고 있다.

23 (가)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평점과 후기를 남기는 게시판이 있어야 한다는 관점을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후기로 인해 폐업한 가게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통계 자료는 평점과 후기를 남기는 게시판의 부정적인 영향에 해당하므로, (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4 (나)는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평점과 후기를 남기는 게시판이 없어져야 한다는 관점을 전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거로 평점과 후기를 악용하여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입는 피해가 크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한 걸음 더 서술형 문제

268~269쪽

01 호소문, 경고문, 시시 티브이(CCTV) 등과 같은 기존의 해결 방법과 달리, 넋지 효과를 활용한 해결 방법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 문제 상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02 많은 사람의 고정 관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넋지 효과가 인상적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글쓴이는 넋지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3**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양옆을 살피도록 하여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04 엠비티아이는 '중간'의 성격을 설명하기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지는 엠비티아이 자료나 검사가 뒤섞여 있으며,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는 응답자의 상태나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만으로는 개인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05** 주관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신뢰할 만한 전문가의 설명을 인용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어 설득력 있게 표현하기 위해 고쳐 쓴 것이다.

06 ㉠은 내용이 주장과 연관성이 있고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주장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어 근거로 활용하기에 적절하다.

01 이 글에서는 담벼락 앞의 화단, 피아노 모양의 계단과 같이 넋지 효과를 활용하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처럼 호소문과 경고문, 시시 티브이(CCTV) 등 기존의 해결 방법의 효과가 미미했던 것과 달리, 넋지 효과를 활용하면 창의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평가 기준

상 넋지 효과의 특성을 바탕으로 넋지 효과를 활용한 해결 방법의 효과를 <조건>에 맞게 바르게 서술하였다.

중 넋지 효과의 특성을 바탕으로 넋지 효과를 활용한 해결 방법의 효과를 바르게 서술하였으나, 기존의 해결 방법의 예를 언급하지 않거나 주어진 형식에 맞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조건>에 관계없이 넋지 효과의 특성을 바탕으로 넋지 효과를 활용한 해결 방법의 효과를 서술하였다.

02 (다)에서 글쓴이는 넋지 효과가 '인상적'인 것은, 많은 사람의 고정 관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인상적'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인상이 강하게 남는 것.'으로, 주로 어떠한 행동이나 결과물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 쓰인다. 따라서 '인상적'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단어를 사용하는 맥락으로 보아, 글쓴이가 넋지 효과를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평가 기준

상 넋지 효과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였다.

- Ⓢ (다)에 쓰인 단어를 인용하여 넋지 효과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을 서술하였으나, 주어진 형식에 맞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 Ⓜ <조건>에 관계없이 넋지 효과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을 서술하였다.

03 넋지 효과를 활용하면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 사람들이 문제 해결에 스스로 참여하도록 이끌어, 자연스럽게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보기>와 같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구역의 횡단보도에 그린 눈동자 그림은 사람들이 길을 건너기 전에 양옆을 주의 깊게 살펴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 교통사고의 발생률을 줄이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평가 기준

- Ⓢ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기>가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을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바르게 서술하였다.
- Ⓢ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기>가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을 바르게 서술하였으나,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못하였다.
- Ⓜ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기>가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을 바르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04 이 글에서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엠비티아이가 ‘중간’의 성격을 설명하기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지는 엠비티아이 자료나 검사가 뒤섞여 있으며,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는 응답자의 상태나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엠비티아이 검사의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만으로는 개인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맹신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평가 기준

- Ⓢ 이 글에서 제시된 엠비티아이 검사의 한계와, 이것이 개인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모두 바르게 서술하였다.
- Ⓢ 이 글에서 제시된 엠비티아이 검사의 한계와, 이것이 개인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미치는 영향 중 한 가지만 바르게 서술하였다.
- Ⓜ 이 글에서 제시된 엠비티아이 검사의 한계와, 이것이 개인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모두 바르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05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은 주관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글쓴이의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주장하는 글을 쓸 때 이처럼 주관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글의 설득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신뢰할 만한 전문가의 설명을 인용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어 주장을 설득력 있게 표현하기 위해 ㉠과 같이 고쳐 쓴 것이다.

평가 기준

- Ⓢ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글쓴이가 <보기>를 ㉠과 같이 고쳐 쓴 까닭을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바르게 서술하였다.
- Ⓢ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글쓴이가 <보기>를 ㉠과 같이 고쳐 쓴 까닭을 바르게 서술하였으나,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못하였다
- Ⓜ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글쓴이가 <보기>를 ㉠과 같이 고쳐 쓴 까닭을 바르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06 ㉡은 엠비티아이 검사를 활용하는 올바른 태도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한 것으로, 주장과 연관성이 있고, 주장의 신뢰도와

설득력을 높이는 데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근거로 활용하기에 적절한 자료이다.

평가 기준

- Ⓢ 근거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바탕으로 ㉡이 적절한 자료임을 서술하였다.
- Ⓢ ㉡이 적절한 자료임을 서술하였으나, 근거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바탕으로 서술하지 못하였다.
- Ⓜ ㉡이 적절한 자료임을 바르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한 걸음 더 고득점 문제

270~271쪽

01 ㉡ 02 ㉡ 03 ㉡ 04 ㉡ 5 ㉡

01 (다)~(라)에서 도로의 곡선 구간의 과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고문, 단속 등의 방법을 사용했을 때보다 곡선 구간의 시작 지점부터 중심부까지 간격을 좁혀 흰색 가로선을 그렸을 때 그 효과가 더 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기존의 강제적인 방법과 달리, 넋지 효과를 활용한 방법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하도록 이끌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한다.

02 아마존 일대가 있는 남미 지도가 그려진 화장지 케이스와 도로의 곡선 구간의 중심부로 갈수록 간격을 좁혀 그린 흰색 가로선은 모두 넋지 효과를 활용한 것으로, 시각적으로 이전과는 다른 자극을 주어 문제를 해결한 사례이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규제나 감시보다 시각적인 자극을 받았을 때 더 자연스럽게 행동을 바꾼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03 넋지 효과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나 감시, 단속 등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변화하도록 유도하는 창의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공공장소에 소음 정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조명을 설치하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용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04 이 글의 결론인 (마)에서는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이를 맹신하는 태도를 버리고,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를 올바르게 활용해야 한다는 글쓴이의 당부를 전달하고 있으나, 이를 질문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 이 글의 서론인 (가)에서는 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를 활용하고 청소년들 사이에서 성격 유형에만 의존하여 상대방을 판단하기도 한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글에서 다룬 문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이 글의 본론에 해당하는 (라)에서는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가 응답자의 상태나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전문가의 설명과 함께 제시하고 있다.

㉢ 이 글의 본론에 해당하는 (나)에서는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예시를 들어, 엠비티아이 ‘중간’의 성격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④ 이 글의 본론에 해당하는 (다)에서는 인터넷상에서 무료 엠비티아이 검사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관계자를 인터뷰한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을 근거 자료로 활용하여 근거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있다.

05 글쓴이는 엠비티아이가 ‘중간’의 성격을 설명하기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지는 자료나 검사가 뒤섞여 있으며,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는 응답자의 상태나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가 개인의 성장과 변화 가능성을 간과한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4 소통하며 이해하는 삶

01 매체와 생활

소단원 한눈에 보기

276~277쪽

- 1** (1) 매체 (2) 인쇄, 영상 (3) 정보 통신 기술 **2** ②
3 (1) O (2) X (3) O **4** (1) X (2) O **5** ②
6 (1) 비판적 (2) 부정적

1 (1) 매체는 어떤 정보를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물체 또는 그런 수단을 말하며, 미디어(media)라고도 부른다.

(2) 인쇄 매체는 문자와 그림, 사진 등을 이용해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로, 신문, 잡지, 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영상 매체는 소리와 음성, 문자, 영상 등을 이용해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로, 텔레비전, 영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뉴 미디어는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등장한 새로운 전달 매체로, 스마트폰, 누리 소통망(SNS), 인터넷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대중매체는 많은 사람에게 같은 정보를 대량으로 전달하는 매체이므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3 (1) 개인 인터넷 방송은 온라인 대화 등을 통해 매체 자료 생산자와 수용자 간의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진다.

(2) 개인 인터넷 방송은 전문 장비와 전문 제작 기술을 갖추지 않아도 제작할 수 있으므로 비교적 적은 자본이 든다.

(3) 개인 인터넷 방송은 개인이 매체 자료의 기획부터 진행, 촬영, 편집까지 직접 해서 인터넷을 공유한다.

4 (1) 대중매체는 많은 자본을 지닌 전문 조직에 속한 전문 인력이 분업·협업하여 매체 자료를 생산하는 반면, 개인 인터넷 방송은 전문성이 없어도 누구나 제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 인터넷 방송보다 대중매체가 더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2) 대중매체는 대중을 대상으로 많은 양의 매체 자료를 전달하고, 개인 인터넷 방송은 주제에 관심 있는 일부 대상으로 중심으로 매체 자료를 전달한다.

5 매체는 새로운 소식과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고(ㄴ), 즐거움과 휴식을 제공하며(ㄹ), 사회의 문화나 가치 등을 전수하고(ㄷ),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에 관여하는 등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오답 풀이 **ㄷ.** 사람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과장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매체의 부정적 영향력에 해당한다.

ㄹ. 한쪽으로 치우친 관점을 전달하여 혼란을 주는 것은 매체의 부정적 영향력에 해당한다.

6 (1) 매체 자료는 생산자가 자신의 관점으로 편집하고 제작한 결과물이므로, 매체 자료를 수용할 때에는 객관적인 사실과 매체 자료에 담긴 생산자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여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2) 매체 자료를 생산할 때에는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수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활동 응용 문제

280~291쪽

- 1 ⑤ 2 ② 3 생산자, 일방향(일방적) 4 ①
5 ② 6 ① 7 특정한 주제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하고
독특한 내용을 많이 다룬다. 8 ④ 9 ③ 10 ①
11 매체 자료의 생산자가 전하려는 의도를 파악하여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한다.

1 텔레비전과 같은 영상 매체는 전통적인 대중매체에 해당한다. 대중매체의 기능을 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는 스마트폰, 인터넷, 누리 소통망(SNS) 등과 같은 뉴 미디어이다.

2 대중매체는 방송사, 신문사처럼 많은 자본을 지닌 전문 조직에서 전문 장비와 전문 제작 기술을 갖추어 매체 자료를 제작하므로 매체 자료를 제작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3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과 같은 대중매체는 생산자가 수용자에게 매체 자료를 대부분 일방향으로 전달한다.

4 대중 매체는 대중을 대상으로 많은 양의 매체 자료를 전달하고(→), 매체 자료의 생산자와 수용자가 명확하게 구분된다(↓).

오답 풀이 ㄷ. 대중매체는 방송사, 신문사처럼 많은 자본을 지닌 전문 조직이 매체 자료를 생산한다.

ㄹ. 대중매체는 주로 생산자가 수용자에게 매체 자료를 일방향으로 전달한다.

5 전문 조직이 매체 자료를 생산하는 대중매체와 달리, 개인 인터넷 방송은 개인이나 소수의 인원이 매체 자료의 생산자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전문 조직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6 방송 중 실시간으로 댓글을 유도하는 것은 개인 인터넷 방송의 수용자가 아니라 생산자(제작자)이다. 수용자는 생산자의 유도에 따라 댓글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실시간 쌍방향 소통에 참여한다.

7 개인 인터넷 방송의 제작자는 주제에 관심 있는 일부 대상을 중심으로 매체 자료를 전달하기 때문에 특정한 주제에 국한되지 않

고 게임이나 먹방, 여행, ASMR(자율 감각 쾌락 반응) 등 다양하고 독특한 내용을 많이 다룬다.

평가 기준	확인 ☒
매체 자료의 주제와 내용 측면에서, 개인 인터넷 방송의 특성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

8 매체가 한쪽으로 치우친 관점을 전달하여 혼란을 준다는 인식은 매체의 부정적 영향력에 해당하는 반면, 나머지는 모두 매체의 긍정적 영향력에 해당한다.

9 개인 인터넷 방송을 통해 간접 경험을 쌓는 것은 매체의 긍정적 영향력에 해당한다.

10 매체 자료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가 자신의 관점으로 편집하고 제작한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매체를 이용할 때에는 매체 자료의 생산자가 전하려는 의도를 파악하여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11 매체 자료를 수용할 때에는 객관적인 사실과 매체 자료에 담긴 생산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매체 자료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수용자가 매체 자료를 이용하는 올바른 태도를 서술하였다.	☐
내용을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활동 응용 문제

292~293쪽

- 1 ④ 2 ④ 3 폭력적, 부정적

1 개인 인터넷 방송의 경우, 매체 자료는 전문성이 없어도 개인이 제작할 수 있으므로 긍정적 영향력을 미친 매체 자료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전문성이 있는 제작자가 생산한 매체 자료인지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 매체에서 얻은 정보를 그대로 수용하면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다. 따라서 매체 자료를 이용할 때에는 정보의 진의 여부나 적절성 등을 판단하며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3 청소년은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의 매체 자료에 노출될 경우 일탈, 폭력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매체 자료는 무의식적으로 수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1 (1) O (2) O (3) X 2 ④ 3 ③ 4 (1) X
(2) O (3) O 5 ④ 6 (1) O (2) O (3) X

1 (1) 대중매체는 많은 사람에게 같은 정보를 대량으로 전달하는 매체이다.

(2) 문자와 사진 등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신문이나 잡지, 소리와 음성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라디오, 소리와 음성, 문자, 영상 등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텔레비전은 모두 전통적인 대중매체에 해당한다.

(3)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등장한 인터넷, 스마트폰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전달 매체도 대중매체의 기능을 하게 되었다.

2 주제에 관심 있는 일부 대상을 중심으로 매체 자료를 전달하는 매체는 개인 인터넷 방송이다.

오답 풀이 ①, ② 대중매체는 매체 자료의 생산자와 수용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생산자가 수용자에게 매체 자료를 대부분 일방향으로 전달한다.

③, ⑤ 대중매체는 많은 자본을 지닌 전문 조직(방송사, 신문사)에 속한 전문 인력이 분업·협업하여 매체 자료를 생산한다.

3 개인 인터넷 방송은 대중매체에 비해 기존 방송법의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오답 풀이 ①, ⑤ 개인 인터넷 방송은 개인이 매체 자료의 기획부터 진행, 촬영, 편집까지 직접 해서 인터넷으로 공유하는 방송으로, 개인이 매체 자료의 생산자 역할을 담당한다.

② 개인 인터넷 방송은 전문성이 없어도 누구나 제작할 수 없다.

④ 인터넷의 확산과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누구나 매체 자료를 생산하고 송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서 개인 인터넷 방송이 활성화되었다.

4 (1) 개인 인터넷 방송은 전문 장비나 전문 제작 기술이 없어도 누구나 제작할 수 있다.

(2) 개인 인터넷 방송은 매체 자료의 생산자와 수용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모호하다.

(3) 개인 인터넷 방송은 매체 자료의 생산자와 수용자 사이에 정보를 대부분 쌍방향으로 주고받으며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다.

5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내용을 담기도 하는 것은 매체의 부정적 영향력에 해당한다.

6 (1) 매체 자료를 생산할 때에는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수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매체 자료를 수용할 때에는 객관적인 사실과 매체 자료에 담긴 생산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3) 사회 문제를 다룬 매체 자료도 생산자가 전하려는 의도를 파악하고 적절성을 평가하며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1단계| 1 마련하다 2 고려하다 3 보편화되다

4 신뢰도 5 성찰하다 6 누리다 7 측면

8 분별하다 9 제한적 10 수동적 11 자본

12 제작 13 영향력 14 관점 15 규제

|2단계| 1 여론 2 연령 3 제약 4 비판적

5 심지어 6 자극적 7 개선되다 8 관여하다

9 대중매체 10 수용하다 11 소통하다

12 유도하다 13 전수하다 14 전파하다

|3단계| 1 연출가 2 구독 3 매체 4 실시간

5 비결 6 예 이번 기획은 무척 참신하였다. 7 예 영

화 감상 동아리의 모집 인원은 20명 내외이다. 8 예 선정

적인 내용의 콘텐츠는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9 예 문제가 비교적 쉽게 풀려서 기분이 좋았다.

10 예 내 동생은 사사건건 나에게 도와 달라고 한다.

|1단계|

1 **오답 풀이** 전수하다: 기술이나 지식 등을 전하여 주다.

2 **오답 풀이** 조절하다: 균형이 맞게 바로잡다. 또는 적당하게 맞추어 나간다.

3 **오답 풀이** 전파하다: 전하여 널리 퍼뜨리다.

4 **오답 풀이** 여론: 사회 대중의 공통된 의견.

5 **오답 풀이** 수용하다: 어떠한 것을 받아들이다.

6 **오답 풀이** 공유하다: 정보나 의견, 감정 등을 나누다.

7 **오답 풀이** 경계: 사물이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분간되는 한계.

8 **오답 풀이** 보도하다: 대중 전달 매체를 통하여 일반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알리다.

9 **오답 풀이** 전통적: 예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것.

10 **오답 풀이** 전문적: 어떤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그 일을 잘하는 것.

11 **오답 풀이** 인력: 사람의 노동력.

12 **오답 풀이** 편집: 일정한 방침 아래 여러 가지 재료를 모아 신문, 잡지, 책 등을 만드는 일. 또는 영화 필름이나 녹음테이프, 문서 등을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하는 일.

13 **오답 풀이** 생방송: 미리 녹음하거나 녹화한 것을 재생하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의 제작과 방송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방송.

14 **오답 풀이** 기획: 일을 꾀하여 계획함.

15 **오답 풀이** 비결: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은 자기만의 뛰어난 방법.

소단원 평가

300~303쪽

01 ⑤	02 ④	03 ②	04 ⑤	05 ②
06 ④	07 ④	08 ⑤	09 ②	10 ④
11 ⑤	12 ③	13 ②	14 ④	15 매체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16 ①	17 ①	18 ②		

01 ㄱ은 문자와 사진 등을 이용해 정보를 전달하는 인쇄 매체(신문, 잡지, 책), ㄴ은 소리와 음성을 이용해 정보를 전달하는 음성 매체(라디오), ㄷ은 소리와 음성, 문자, 영상 등을 이용해 정보를 전달하는 영상 매체(텔레비전)로, ㄱ~ㄷ은 전통적인 대중매체이다. ㄹ은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전달 매체인 뉴 미디어(스마트폰, 인터넷)로, 대중매체와 같은 기능을 한다.

02 인터넷이 보편화되기 전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과 같은 전통적인 대중매체는 매체 자료의 생산자와 수용자가 명확히 구분되어 신문사나 방송사에서 전달하는 정보를 대중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문자 메시지, 댓글 등을 통해 수용자가 자신의 의견을 생산자에게 전달하는 등 정보를 쌍방향으로 주고받으며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즉,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매체 자료의 생산자와 수용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게 되었다.

03 (가)에서는 제작 측면에서의 대중매체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고, (나)~(다)에서는 매체 자료의 생산자와 수용자 측면에서 대중매체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04 대중매체의 매체 자료는 방송사, 신문사처럼 많은 자본을 지닌 전문 조직이 생산한다. 매체 자료의 수용자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용하기만 할 뿐, 매체 자료의 제작에 참여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② 하나의 매체 자료를 제작하는 데 많은 자본과 시간이 든다.

③ 방송사, 신문사 등과 같이 전문 조직이 전문 제작 기술과 장비를 갖추어 매체 자료를 제작한다.

④ 매체 자료의 기획, 제작, 편집 등의 과정은 각각 연출가, 작가, 기자, 연예인 등 해당 분야의 전문 인력이 나누어 맡는다.

05 (나)~(다)를 통해 대중매체는 생산자가 수용자에게 매체 자료를 대부분 일방적으로 전달하기(ㄷ) 때문에 매체 자료의 생산자와 수용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됨(ㄱ)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ㄴ. 매체 자료의 생산자와 수용자 간의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매체는 개인 인터넷 방송이다.

ㄹ. 대중매체가 대중에게 많은 양의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나)~(다)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06 이 만화에서 사용하는 매체는 개인이 매체 자료의 기획부터 진행, 촬영, 편집까지 직접 해서 인터넷으로 공유하는 개인 인터넷 방송이다. 개인 인터넷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어 누구나 매체 자료를 생산하고 송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서 발달하였다.

오답 풀이 ① 전통적인 대중매체에 해당하는 것은 신문, 책 등의 인쇄 매체, 라디오, 녹음기 등의 음성 매체, 텔레비전, 영화 등의 영상 매체이다. ②, ③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매체 자료를 대부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대중매체이다.

⑤ 개인 인터넷 방송은 전문 장비나 전문 제작 기술 없이도 누구나 쉽게 매체 자료를 제작할 수 있다.

07 실시간 대화창에 구독자들이 쓴 댓글을 방송 중에 바로 확인하는 장면을 통해 방송 중에 수용자와 실시간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ㄴ). 또한 구독자가 질문한 내용을 바로 확인해서 방송하는 장면을 통해 수용자의 의견을 즉각 반영하여 방송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ㄷ).

08 ㉠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다 되는 걸요!”라고 하였으므로, 개인 인터넷 방송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매체 자료를 쉽게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9 찍고, 편집하고, 인터넷에 올리면 끝인 개인 인터넷 방송의 제작 과정을 통해 개인 인터넷 방송은 전문 장비나 기술 없이도 누구나 손쉽게 매체 자료를 제작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0 개인 인터넷 방송의 생산자는 특정 주제에 관심 있는 일부 대상을 중심으로 매체 자료를 전달한다. 불특정 다수의 대중을 수용자로 설정하는 것은 대중매체이다.

11 매체 자료의 생산자 측면에서, 대중매체는 여러 분야의 전문 인력이 분업과 협업을 통해 매체 자료를 생산하고, 개인 인터넷 방송은 개인 또는 소수의 인원이 매체 자료를 생산한다.

오답 풀이 ① 대중매체는 많은 자본을 지닌 전문 조직이 매체 자료를 생산하고, 개인 인터넷 방송은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 매체 자료를 제작한다.

② 대중매체는 생산자가 수용자에게 매체 자료를 대부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개인 인터넷 방송은 생산자와 수용자 간의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

③ 대중매체는 대중을 대상으로 많은 양의 매체 자료를 전달하고, 개인 인터넷 방송은 주제에 관심 있는 일부 대상을 중심으로 매체 자료를 전달한다.

④ 대중매체는 전문 조직에 속한 전문 인력이 분업·협업하여 매체 자료를 생산하고, 개인 인터넷 방송은 전문 장비나 기술이 없어도 누구나 손쉽게 매체 자료를 제작할 수 있다.

12 (가)~(마)에서는 선생님과 학생들의 대화를 통해 대중매체와 개인 인터넷 방송이 우리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과 부정적인 영향력을 설명하고 있다.

13 (가)~(다)에서는 대중매체와 개인 인터넷 방송이 우리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을 설명하고 있다. 즉, 두 매체는 새로운 소식과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고, 즐거움을 주고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 주며, 우리에게 사회의 문화, 가치 등을 전수해 주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에 관여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라)~(마)에서는 대중매체와 개인 인터넷 방송이 우리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설명하고 있다. 즉, 두 매체는 잘못된 정보나 한쪽으로 치우친 관점을 전달하여 혼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흥미를 끌려고 자극적인 내용을 담기도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대중매체와 개인 인터넷 방송은 모두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대중매체와 개인 인터넷 방송은 모두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갖고 있는 것이지, 대중매체보다 개인 인터넷 방송의 긍정적인 영향력이 더 크다고 할 수는 없다.
 ③ 대중매체는 전문 인력의 분업·협업을 통해 매체 자료를 생산하는 반면, 개인 인터넷 방송은 전문성이 없더라도 누구나 매체 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 인터넷 방송보다 대중매체가 더 신뢰도가 높은 편이다.
 ④ 개인 인터넷 방송은 대중매체에 비해 기존 방송법의 규제를 덜 받기 때문에 선정적, 폭력적, 차별적 표현을 담은 매체 자료를 의도적으로 노출하기도 한다.
 ⑤ 대중매체는 전문 조직이 제작하는 것은 사실이나, 긍정적인 영향만 준다고 볼 수는 없다.

14 ㉠, ㉡, ㉢, ㉣은 매체의 긍정적인 영향력에 해당하고, ㉤, ㉥은 매체의 부정적인 영향력에 해당한다.

15 이 만화에서는 매체의 긍정적 영향력과 부정적 영향력을 모두 다루고 있다. 즉 ㉣ ‘매체의 두 얼굴’이란 매체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평가 기준	확인 ☒
㉣의 의미를 바르게 서술하였다.	☐
내용을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16 자신의 매체 이용 생활을 점검할 때에는 정보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17 ㉠은 매체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이고, 나머지는 모두 매체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이다.

18 매체 자료의 생산자는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수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매체 자료의 수용자는 매체 자료의 생산자가 전하려는 의도를 파악하여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오답 풀이 ㉠, ㉡. 다수가 이용하는 매체 자료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제공하는 매체 자료가 아니더라도 자신에게 필요한 자료라면 매체 자료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02 존중하는 언어생활

소단원 한눈에 보기

306쪽

- 1** (1) O (2) X (3) O **2** ③ **3** (1) 원만하게, 긍정적 (2) 효과적

1 (1) 다수 앞에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가상 공간에 퍼뜨리는 것은 언어폭력의 한 유형이다.
 (2) 언어폭력은 피해자의 사회적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인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3) 언어폭력은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부정적인 언어 표현을 통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준다.

2 서로 존중하는 말하기를 하려면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하며 말해야 한다.

3 (1) 서로 존중하는 말하기를 하면 문제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 서로 존중하는 말하기를 하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활동 응용 문제

310~323쪽

- 1** ③ **2** ④ **3** ③ **4** ⑤ **5** ② **6** 언어폭력은 가해자의 인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7** ②
8 ⑤ **9** 존중 **10** ④ **11** ② **12** 고통
13 ⑤ **14** ④ **15** ④ **16** ⑤ **17** ⑤
18 비수, 유리 파편(유리 조각) **19** ③ **20** ④
21 ③ **22** ㉠은 부드러운 말투와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로 말하고 있으나, ㉡은 신경질적인 말투와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태도로 말하고 있다. **23** ③ **24**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
25 ④ **26** ② **27** 서로 존중하는 말하기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1 S# 40에서 보라, 은주, 지아, 태연은 함께 선이 지아에게 색연필을 빌려 간 후 돌려주지 않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2 언어폭력은 부정적인 언어 표현으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위이다. ㉠에서 보라는 선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있다.

3 ㉠에서 보라와 은주는 선에게 모욕적인 말을 내뱉고 있다. 이러한 말을 들으면 모멸감(엄신여겨지고 얹잡아 보이는 느낌.)을 느끼게 된다.

4 S# 61에 나타난 언어폭력은 선을 비하하는 내용의 낙서로, 가상 공간에 게시한 내용이 아니라 교실 칠판에 적혀 있는 내용이다.

5 담임 선생님이 지아의 잘못을 꾸짖으며 친구에게 사과하라고 하는 상황에서 지아가 입을 다문 것은,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심리를 나타내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6 지아는 선에게 언어폭력을 가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억울해하고 있다. 이는 언어폭력이 가해자의 인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을 보여 준다.

평가 기준	확인 ☒
〈보기〉를 참고하여 지아의 말에서 알 수 있는 언어폭력의 문제점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
내용을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7 S# 65에서 상대방에게 언어폭력을 가하는 사람은 지아가 아니라 선이다. 지아는 선의 말에 당황해하다 화를 내고 있을 뿐, 선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선과 지아가 교실에서 말다툼을 하며 대립하고 있다.
 ③, ⑤ 선이 친구들 앞에서 지아가 예전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던 일을 말하고 있으며, 지아는 자신의 비밀이 밝혀져 당황해하고 있다.
 ④ 선은 지아가 영국에 가 본 적이 없고 엄마도 지금 영국에 안 계시다는 사실을 밝히며, 그동안 지아가 한 말이 거짓말이었음을 폭로하고 있다.

8 S# 70에서 지아는 자신이 금을 밟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은주, 재운, 태연이 금을 밟았다고 포함하며 얼른 나가라고 몰아붙였기 때문에 억울한 마음이 든 것이다.

9 선과 지아가 화해하려면,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하며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부드러운 말투와 배려하는 태도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며 대화해야 한다. 이러한 말하기 방법을 '서로 존중하는 말하기'라고 한다.

10 폭력적인 언어 표현은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사회적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언어 표현은 주변 사람들의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11 선은 피구 경기를 할 때 자신이 금을 밟지 않았는데도 친구들이 밟았다고 말하고, 지아가 자신에게 색연필을 주었으면서 준 게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고 말하며 다시 돌려 달라고 하여 억울하고 속상했을 것이다. 지아는 자신이 전학 오기 전 다녔던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았던 일이 밝혀져서 속상하고, 친구들이 자신을 따돌릴까 봐 두렵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

12 언어폭력을 당한 후 선은 속상하고 슬펐으며, 지아는 두려움을 느꼈다. 이처럼 언어폭력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준다.

13 속상했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잘잘못을 가리는 것은 화해하기 위한 말하기 태도로 적절하지 않다.

14 소리 나는 대로 적거나 줄임말을 사용하여 쉽고 빠르게 쓰는 것은 인터넷 언어의 특성으로,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언어폭력으로 보기 어렵다.

15 청소년들이 온라인 매체에 지나치게 몰입하도록 만드는 것은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는 언어폭력 문제와 관련이 없다.

16 차별이나 편견이 담긴 말을 사용하는 것이 언어폭력에 해당한다. 다른 사람과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차별이나 편견이 담기지 않은 말을 사용해야 한다.

17 게시판이나 댓글 기능을 없애는 방안으로는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는 언어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가상 공간에서 글을 작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언어폭력이 문제이므로, 언어폭력을 방지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18 이 글에서는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날카로운 짧은 칼'을 뜻하는 '비수'와 손가락 끝에 박히면 정말 아프고 잘 빠지지도 않는 '유리 파편(유리 조각)'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19 상처를 주는 도구로 사용되는 말은 상대의 마음을 도려내고 생채기를 낸다고 하였다.

20 평소 대화할 때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올바른 언어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욕설이나 비속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21 상대방을 존중하며 말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아예 드러내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면서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공손하게 말해야 한다.

22 ㉠은 상대를 존중하며 부드러운 말투와 배려하는 태도로 말하고 있으나, ㉡은 상대를 존중하지 않으며 신경질적으로 말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조건〉의 기준에 맞게 ㉠과 ㉡의 말하기 방법을 비교하여 서술하였다.	☐
내용을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23 서로 존중하는 말하기는 상대방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상대방의 마음은 어떠한지 등을 생각하며 말하는 것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24 언어 예절은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 즉 상대의 상황이나 처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25 부정적인 표현을 전혀 쓰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서로 존중하는 언어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표현을 줄이고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26 서로 존중하는 말하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해야 하고(ㅂ),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ㄹ). 또한 부드러운 말투(ㄴ)와 배려하는 태도로 말해야 한다(ㄱ).

오답 풀이 ㄷ. 부정적인 표현 대신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ㄴ.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하며 말해야 한다.

27 서로 존중하는 말하기를 하면 문제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서로 존중하는 말하기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
내용을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활동 응용 문제 324~325쪽

1 ④ 2 ③ 3 상황, 감정, 기대 4 ②
5 ⑤

1 '너'를 주어로 시작하는 말을 한다고 해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전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너'를 주어로 표현하다 보면 상대방을 탓하게 되기 쉽다.
②, ③ '너'를 주어로 표현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어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어렵고, 오히려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⑤ '너'를 주어로 표현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비난이나 강요, 공격 등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된다.

2 '나 전달법'은 '나'를 주어로 하여 자신의 행동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3 '나 전달법'은 자신이 문제라고 인식한 '상황'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말하고, 자신의 '기대'를 상대방에게 적절히 밝히는 것이다. 즉, '나 전달법'의 구성 요소는 상황, 감정, 기대이다.

4 '감동하다'는 '기쁨'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에 해당한다. '분노'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로는 '불쾌하다', '밉다', '화나다', '분하다' 등이 있다.

5 '나 전달법'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때에는 문제가 되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지적보다는 자신의 감정이 어떠한지 드러내는 데 초점을 둔다.

오답 풀이 ① 자신이 문제라고 인식한 상황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말한다.

② 자신이 문제라고 인식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술한다.

③ 상대방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나'를 주어로 하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한다.

④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바를 적절히 밝힌다.

소단원 마무리

326~327쪽

1 (1) X (2) O (3) O (4) X 2 ④ 3 ① 4 ③
5 (1) X (2) X (3) O (4) O 6 ④

1 (1) 언어폭력은 가상 공간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2) 언어폭력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피해자의 사회적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또한 언어폭력은 가해자의 인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3) 언어폭력은 부정적인 언어 표현으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4) 악의 없이 장난으로 하는 말이나 친근한 마음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기분 나빴거나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면 언어폭력에 해당한다.

2 언어폭력은 부정적인 언어 표현으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위이므로, 자신의 감정이 상했던 일을 상대방에게 직접 말하는 것만으로는 언어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가상 공간에서의 언어폭력이 심각하기는 하지만, 언어폭력의 영향으로 가상 공간에서의 의사소통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4 서로 존중하는 말하기는 상대방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며 말하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가상 공간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언어 예절을 지켜야 한다.
② 자신의 감정을 감추지 말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④ 다른 사람에게 올바른 언어 예절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만한 의사소통과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⑤ 나이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지켜야 하는 말하기 방법이다.

5 (1) 차별이나 편견이 담긴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 부정적인 표현보다는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3) 부드러운 말투와 배려하는 태도로 말하고,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며 말해야 한다.

(4)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하며 말해야 한다.

6 서로 존중하며 말하면 문제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은 서로 존중하는 말하기의 효과와 거리가 멀다.

문해력 키우기

329~331쪽

|1단계| 1 아리다 2 도려내다 3 문득

4 찹싸다 5 비방하다 6 비아냥거리다

7 낚아채다 8 탓하다 9 황당하다

10 호소하다 11 예민하다 12 착각하다

13 자기중심적 14 분석하다 15 악물다

|2단계| 1 눈치 2 명예 3 비수 4 의사

5 통계 6 파편 7 가식적 8 생채기

9 차별적 10 인신공격 11 언어폭력

12 인지하다 13 존중하다 14 훼손하다

|3단계| 1 회복하기 2 경각심 3 결점 4 실태

5 비난 6 예 내가 힘든 처지에 있을 때 친구가 큰 도움을 주었다. 7 예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려 흠칫 놀랐다.

8 예 나는 무심코 친구에게 말실수를 하였다. 9 예 친구가 내가 쓴 글에서 맞춤법이 틀린 글자를 찾아내어 책잡았다.

10 예 나는 방에 널브러져 있는 물건들을 주섬주섬 정리하기 시작했다.

|1단계|

1 **오답 풀이** 손상하다: 명예나 체면, 가치 등을 떨어뜨리다.

2 **오답 풀이** 쏘다: 말이나 시선으로 상대방을 매섭게 공격하다.

3 **오답 풀이** 흠칫: 몸을 움츠리며 갑작스럽게 놀라는 모양.

4 **오답 풀이** 빈번하다: 번거로울 정도로 거듭하는 횟수가 잦다.

5 **오답 풀이** 퍼뜨리다: 널리 퍼지게 하다.

6 **오답 풀이** 씹씹거리다: 숨을 매우 가쁘고 거칠게 쉬는 소리가 잇따라 나다. 또는 그런 소리를 잇따라 내다.

7 **오답 풀이** 휩싸이다: 어떠한 감정에 마음이 뒤덮이다.

8 **오답 풀이** 험담하다: 남의 흠을 들추어 험담하다.

9 **오답 풀이** 당황하다: 놀라거나 다급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다.

10 **오답 풀이** 폭로하다: 알려지지 않았거나 감춰져 있던 사실을 드러내다.

11 **오답 풀이** 예리하다: 끝이 뾰족하거나 날이 선 상태에 있다.

12 **오답 풀이** 억울하다: 아무 잘못 없이 꾸중을 듣거나 벌을 받거나 하여 분하고 답답하다.

13 **오답 풀이** 악의적: 나쁜 마음이나 좋지 않은 뜻을 가진 것.

14 **오답 풀이** 공정하다: 공평하고 올바르다.

15 **오답 풀이** 다물다: 입술이나 것처럼 두 쪽으로 마주 보는 물건을 꼭 맞대다

소단원 평가

332~335쪽

01 ④ 02 언어폭력은 친구 간 갈등을 일으키거나 관계를

악화시킨다. 03 ④ 04 ⑤ 05 ② 06 ③

07 가상 공간에서의 언어폭력 08 ④ 09 ②

10 ④ 11 ③ 12 서로 존중하는 말하기를 한다. / 상

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한다. 13 ③ 14 ③

01 (가)~(다)에서 등장인물들은 상대방을 존중하거나 배려하지 않고 언어폭력을 가하고 있다. 즉 부정적인 언어 표현으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다)에서 선이 지아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있으나, (가)와 (나)에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② (가)와 (나)는 선에게, (다)는 지아에게, 즉 다수가 아니라 각각 한 사람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있다.

③ (가)~(다) 모두 신체에 해를 끼칠 듯한 말을 하고 있지 않다.

⑤ (가)~(다) 모두 일상의 대화 상황으로,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대화가 아니다.

02 (나)와 (다)에서 선과 지아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며 크게 대립하고 있다. 이와 같이 폭력적인 언어 표현은 친구 간 갈등을 일으키거나 갈등이 깊어지게 하여, 결국 친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다.

평가 기준	확인 ☒
언어폭력이 친구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
내용을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03 ㉔은 상대방에게 '거짓말하는 애'라고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말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한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

04 (나)에서 언어폭력의 가해자 중 한 명인 지아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왜 자기한테만 그러냐고 하면서 억울해하고 있다. 이는 언어폭력이 가해자의 인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 준다.

오답 풀이 ①, ④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는 언어폭력의 문제점에 해당한다. ②, ③ 언어폭력의 문제점에 해당하나, (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05 (다)에서 지아는 자신이 금을 밟았다고 다른 친구들이 공격하며 몰아붙이자 처음에는 억울해하면서 반박하다가, 나중에는 당황하여 정말 나가야 할지 고민하며 쭈뼛거리고 있다.

06 ㉠의 낙서와 함께 장난스러운 그림들이 적혀 있었으나, 악의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악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위이므로 심각한 언어폭력에 해당한다.

07 이 글은 통계 자료를 제시하여 '가상 공간에서의 언어폭력'의 실태와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가상 공간에서의 언어폭력'의 유형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08 가상 공간에서의 언어폭력은 단체 대화방에 상대를 초대하여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쏟아 내는 방식(ㄱ), 지속적으로 상대를 대화방에 초대하여 위협하는 방식(ㄴ), 거짓 정보나 소문, 악의적인 이야기 등을 메시지로 퍼뜨리는 방식(ㄷ) 등으로 이루어진다.

오답 풀이 ㄴ, ㄷ 만날 때마다 외모나 옷차림을 비하하는 방식이나 면전에 대고 모욕적인 말을 지속적으로 하는 방식은 가상 공간이 아니라 현실 공간에서 언어폭력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해당한다.

09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는 언어폭력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사회적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오답 풀이 ① 가상 공간에서의 언어폭력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지속된다.

③ 언어폭력의 내용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빠르게 확산된다.

④ 언어폭력 가해자의 인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⑤ 언어폭력 피해자에게 우울감, 불안감, 심한 스트레스 등의 정신적 고통을 준다.

10 ㉠ “말이 비수가 된다.”라는 표현은 말이 사람을 공격하는 무기가 된다는 의미로, 신체에 상처를 주는 물리적인 폭력과 마찬가지로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의 폭력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11 ㉠ ‘유리 파편’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것으로, ‘비수’와 같은 의미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는 말은 ‘유리 파편’과 같은 말에 해당하지 않는다.

12 제시된 상황에서 두 사람은 서로 존중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하는 말하기를 해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켜야 할 언어 예절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
내용을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13 ‘나 전달법’은 자신이 문제라고 인식한 ‘상황(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고, 자신의 ‘기대(바람)’를 상대방에게 적절히 밝히는 것이다.

14 ㉠은 ‘너 전달법’이고 ㉡은 ‘나 전달법’으로, ㉠과 ㉡ 모두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한 문제 상황에 사용할 수 있다. ㉠처럼 ‘너’를 주어로 표현하다 보면 상대방을 탓하게 되기 쉬우며, 상대방에게 비난이나 강요, 공격 등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반면에 ㉡처럼 ‘나’를 주어로 하여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면 상대방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바람을 전달하여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다.

대단원 평가

340~345쪽

01 ⑤	02 ⑤	03 ④	04 매체 자료의 생산자와 수용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생산자가 수용자에게 매체 자료를 일방향으로 전달한다.	05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었다.
06 ③	07 ③	08 ②	09 ③	10 ③
11 ④	12 ①	13 ④	14 ⑤	15 ⑤
16 ④	17 서로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말해야 한다.	18 ⑤	19 ⑤	20 ⑤
21 ⑤	22 ②			

01 (마)에서는 생산자가 수용자에게 매체 자료를 일방향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매체 자료 생산자와 수용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대중매체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대중매체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02 스마트폰은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전달 매체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② 신문이나 잡지는 전통적인 대중매체 중 인쇄 매체에 해당한다.

③ 라디오는 전통적인 대중매체 중 음성 매체에 해당한다.

④ 텔레비전은 전통적인 대중매체 중 영상 매체에 해당한다.

03 (다)에서 대중매체는 완성된 매체 자료를 수많은 시청자에게 빠르게 전달한다고 하였다.

04 (라)를 통해 매체 자료의 생산자들이 분업·협업을 통해 매체 자료를 생산하고, 생산된 매체 자료가 수용자에게 일방향으로 전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마)에서 대중매체의 경우 생산자가 수용자에게 매체 자료를 일방향으로 전달하며, 따라서 매체 자료 생산자와 수용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
(라)와 (마)에 나타난 생산자와 수용자의 측면에서의 대중매체의 특성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
내용을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05 이 만화에서 남학생의 말을 통해, 인터넷의 확산과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누구나 매체 자료를 생산하고 송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서 일반 개인도 매체 자료의 생산자 역할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일반 개인이 매체 자료의 생산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배경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
내용을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06 개인 인터넷 방송은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적으며(ㄱ), 전문 장비나 기술 없이 개인 또는 소수의 인원만으로 제작할 수 있다(ㄴ).

오답 풀이 ㄴ. 이 만화에서 개인 인터넷 방송의 제작 과정을 설명하면서 찍고, 편집하고, 인터넷에 올린다고 하였다. 편집이 없는 경우는 생방송인 경우에 한정된다.

ㄷ. 전문 장비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은 대중매체이다. 개인 인터넷 방송은 전문 장비나 기술이 없어도 누구나 손쉽게 매체 자료를 제작할 수 있다.

07 개인 인터넷 방송은 ㉠과 같이 제작자(생산자)가 실시간으로 시청자(수용자)의 댓글을 유도하고, ㉡과 같이 시청자(수용자)가 댓글 등의 방법으로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한다. 즉 개인 인터넷 방송은 매체 자료의 생산자와 수용자가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다.

08 대중매체는 수많은 사람들, 즉 대중을 대상으로 매체 자료를 전달한다. 이와 달리 개인 인터넷 방송은 주제에 관심이 있는 일부 대상을 중심으로 매체 자료를 전달한다.

09 대중매체와 개인 인터넷 방송은 잘못된 정보나 한쪽으로 치우친 관점을 전달하여 혼란을 주기도 한다.

10 대중매체와 개인 인터넷 방송은 잘못된 정보나 한쪽으로 치우친 관점을 전달하여 혼란을 주기도 하고, 사람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내용을 담기도 한다. 텔레비전에서 폭력적인 장면을 자주 봐서 그런 장면에 익숙해진 것은 이와 같은 매체의 부정적 영향력이 미친 사례로 볼 수 있다.

11 매체 자료를 이용할 때에는 매체 자료의 생산자가 전하려는 의도를 파악하여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단순히 인기 있는 매체 자료를 중심으로 선택하는 것은 매체를 이용하는 올바른 태도와 거리가 멀다.

12 (가)에서 선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은주에게

보라는 “왜 그래?”라고 하면서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고 있으므로, 언어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13 (나)에서 지아는 선에게 색연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따돌리고 보라 무리와 친하게 지내기 위해 색연필을 빌려준 것이라며 거짓말을 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선은 보라, 은주, 태연이 지아에게 색연필을 돌려주라고 압박하자 색연필 세트를 꺼내 건네고 있다.

②, ③ 은주와 보라는 색연필을 지아에게 돌려주라고 선을 몰아세우고 있지, 선의 잘못을 짚어 주거나 갈등을 중재하고 있지 않다.

⑤ 색연필은 지아가 선에게 주었던 것인데, 지아는 선을 따돌리기 위해 빌려주었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14 [A]에서 보라는 선에게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하면서 선이 체육 시간이 끝나고 씻지도 않는다고 단정 지어 말하고 있다. 이러한 보라의 말은 모두 선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말로, 언어폭력에 해당한다.

15 ㉢에서 보라는 선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정적인 언어 표현으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위를 언어폭력이라고 한다.

16 (가)에서는 선의 아빠를 ‘알코올 중독자’라고 표현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이를 통해 선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있다.

17 (나)와 (다)에서 선과 지아는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며 크게 갈등하고 있다. 따라서 선과 지아가 화해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말해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선과 지아가 화해하기 위한 말하기 방법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
내용을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18 ㉢에서 태연은 지아가 거짓말을 한 상황이 아닌데도 만날 거짓말을 한다며 몰아세우고 있다.

19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는 언어폭력은 그 내용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빠르게 확산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언어폭력을 인식하더라도 그 내용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어렵다.

20 언어폭력은 부정적인 언어 표현으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위이다. 가상 공간에서 게임을 하다가 다른 이용자의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을 말하는 것은 언어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21 화가 났다면 화가 난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화가 난 까닭을 차분히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2 ㉡ ‘나 전달법’은 자신의 행동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1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협업하여 매체 자료를 제작한다. 생산자가 수용자에게 매체 자료를 일방향으로 전달하여, 매체 자료의 생산자와 수용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된다. **2** 전문 장비나 기술이 없어도 누구나 손쉽게 매체 자료를 제작할 수 있다.

3 새로운 소식과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한다. 즐거움을 주고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한다. 사회의 문화와 가치 등을 전수한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에 관여한다. **4** 매체 자료를 생산할 때에는 수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매체 자료를 수용할 때에는 생산자가 전하려는 의도를 파악하여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5** 언어폭력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피해자의 사회적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가해자의 인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6** 언어폭력이란 부정적인 언어 표현으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위인데, ㉠은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말이므로 언어폭력에 해당한다. **7** 문제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8** ㉠과 ㉡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의미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하기를 해야 한다.

01 제시된 자료를 보면, 뉴스와 드라마 등과 같은 대중매체의 매체 자료를 제작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협업하고 있으며, 생산자가 수용자에게 일방향으로 전달한 매체 자료를 수용자가 받아들이고 있어 매체 자료의 생산자와 수용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다.

평가 기준

- 상 제작 측면과 매체 자료의 생산자와 수용자 측면에서 대중매체의 특성을 각각 한 문장으로 바르게 서술하였다.
- 중 제작 측면과 매체 자료의 생산자와 수용자 측면에서 대중매체의 특성을 서술하였으나, 각각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못하였다.
- 하 제작 측면과 매체 자료의 생산자와 수용자 측면에서 대중매체의 특성 중 하나만 서술하였다.

02 제시된 자료는 개인 인터넷 방송의 경우 전문 장비나 기술이 없어도 누구나 손쉽게 매체 자료를 제작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평가 기준

- 상 제작 측면에서 개인 인터넷 방송의 특성을 주어진 문장 형식에 맞게 서술하였다.
- 중 제작 측면에서 개인 인터넷 방송의 특성을 서술하였으나, 주어진 문장 형식에 맞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 하 개인 인터넷 방송의 특성을 서술하였으나, 제작 측면에서의 특성을 서술하지 못하였다.

03 대중매체와 개인 인터넷 방송은 새로운 소식과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고, 즐거움과 휴식을 제공하며, 사회의 문화와 가치 등을 전수하고, 사회의 문제에 관여하는 등 개인과 사회에 긍정적 영향력을 미친다.

평가 기준

- 상 매체의 긍정적 영향력을 세 가지 이상 서술하였다.
- 중 매체의 긍정적 영향력을 두 가지만 서술하였다.
- 하 매체의 긍정적 영향력을 한 가지만 서술하였다.

04 매체 자료는 개인 또는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매체 자료를 생산할 때에는 수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매체 자료를 수용할 때에는 객관적인 사실과 매체 자료에 담긴 생산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매체 자료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평가 기준

- 상 주어진 문장 형식에 맞게 매체 자료를 이용하는 올바른 태도를 매체 자료의 생산자와 수용자의 입장으로 구분하여 바르게 서술하였다.
- 중 매체 자료를 이용하는 올바른 태도를 매체 자료의 생산자와 수용자의 입장으로 구분하여 서술하였으나 주어진 문장 형식에 맞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 하 매체 자료를 이용하는 올바른 태도를 매체 자료의 생산자와 수용자의 입장 중 하나만 서술하였다.

05 ㉠과 같이 부정적인 언어 표현으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을 언어폭력이라고 한다. 언어폭력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피해자의 사회적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가해자의 인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문제점이 있다.

평가 기준

- 상 ㉠과 같은 말의 명칭을 포함하여 ㉠과 같은 말의 문제점을 세 가지 이상 서술하였다.
- 중 ㉠과 같은 말의 문제점을 세 가지 이상 서술하였으나, ㉠과 같은 말의 명칭을 포함하지 않았다.
- 하 ㉠과 같은 말의 문제점을 두 가지만 서술하였다.

06 ㉡은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므로, 부정적인 언어 표현으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언어폭력에 해당한다.

평가 기준

- 상 언어폭력의 개념을 밝히고 ㉡이 언어폭력에 해당하는 까닭을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여 바르게 서술하였다.
- 중 언어폭력의 개념을 밝히고 ㉡이 언어폭력에 해당하는 까닭을 서술하였으나,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여 서술하지 못하였다.
- 하 언어폭력의 개념을 밝히지 않고, ㉡이 언어폭력에 해당하는 까닭을 서술하였으나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여 서술하지 못하였다.

07 서로 존중하는 말하기를 하면 갈등이나 문제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평가 기준

- 상 서로 존중하는 말하기의 효과를 세 가지 이상 서술하였다.
- 중 서로 존중하는 말하기의 효과를 두 가지만 서술하였다.
- 하 서로 존중하는 말하기의 효과를 한 가지만 서술하였다.

08 ㉠ ‘비수’와 ㉡ ‘유리 파편’은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하여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모든 부정적인 말을 의미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하기를 해야 한다.

평가 기준

- 상 ㉠과 ㉡의 공통된 의미를 밝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말하기 방법을 주어진 문장 형식에 맞게 바르게 서술하였다.
- 중 ㉠과 ㉡의 공통된 의미를 밝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말하기 방법을 서술하였으나 주어진 문장 형식에 맞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 하 ㉠과 ㉡의 공통된 의미를 밝혔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말하기 방법을 서술하지 못하였다.

한 걸음 더 고득점 문제

348~349쪽

1 ④ 2 ④ 3 ④ 4 ③ 5 ③ 6 ⑤

1 (가)에서 소개하는 매체는 대중매체이고, (나)에서 소개하는 매체는 개인 인터넷 방송이다. 대중매체는 대중에게 많은 양의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고, 개인 인터넷 방송은 해당 주제에 관심 있는 일부 대상을 중심으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한다.

2 대중매체와 개인 인터넷 방송은 모두 새로운 소식과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먼 지역의 소식도 실시간으로 알려 준다.

오답 풀이 ① 대중매체와 개인 인터넷 방송 모두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에 관여한다.

② 개인 인터넷 방송은 대중매체보다 방송법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워, 사람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자극적인 내용을 일부러 노출하기도 한다.

③ 대중매체와 개인 인터넷 방송 모두 즐거움을 주고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한다.

⑤ 대중매체가 개인 인터넷 방송보다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으나, 대중매체와 개인 인터넷 방송 모두 잘못된 정보나 한쪽으로 치우친 관점을 전달하여 혼란을 주기도 한다.

3 매체 자료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가 자신의 관점으로 편집하고 제작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나 한쪽으로 치우친 관점을 전달할 수 있다. 따라서 매체 자료를 이용할 때에는 객관적인 사실과 매체 자료에 담긴 생산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내용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4 (가)에서는 선의 아빠를 ‘알코올 중독자’라고 하면서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퍼뜨리고 있다.(ㄱ). 또한 선의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거짓 소문을 내어 선의 사회적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ㄷ), ‘우리 반 촌년’과 같이 편견이 담긴 표현으로 선을 비하하고 비웃고 있다.(ㄷ).

오답 풀이 ㄴ. (가)에 상대방에게 신체적으로 해를 끼칠 듯한 위협하는 말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5 (나)와 (다)에서 언어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이 바뀌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나)와 (다)에서 가해자는 줄곧 지아이고 피해자는 선이다.

6 ㉠은 ‘왕따’라는 표현 외에도 “너 그런다고 친구들이 너 좋아할 것 같아?”와 같이 상대방을 무시하고 비하하며 상처를 주는 표현이 대부분이므로, ‘왕따’를 빼고 말한다고 해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이 될 수는 없다.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